건축사

2001 01 vol.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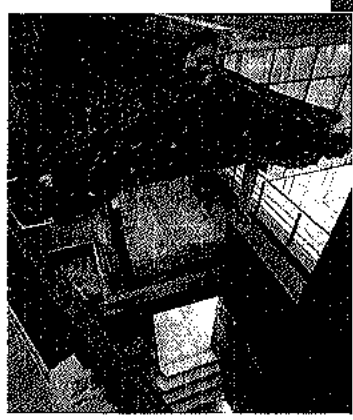
신년사_____ 건축환경 변화에 적극 맞서
특집_____ 좌담 : 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작품리뷰____ 서미갤러리
기고_____ 도시의 입지 : 명당과 강물

korean architect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1년 1월호. 등록381호

차례 20001 1 381호



서미갤러리(유태용 + 차주재作)

신년사	건축환경 변화에 적극 맞서	이의구	14
특집	좌담 : 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7
작품리뷰 / 서미갤러리		유태용+차주재	36
	대담 : 건축의 내재적 컨텍스트	김봉렬	46
	비평 : 이 생뚱스러움!	이종건	52
회원작품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이용호	56
	인천광역시 종합관광안내소	김경택	61
	캐피탈타워	(주)정림건축	64
	분당 J씨 주택	김석환	68
	청주 인터넷 데이터 센터	김병년	72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점	이영욱	74
기고	도시의 입지; 명당과 강물	박시익	76
건축만평		유원재	83
건축마당	협회소식		84
	건축계소식		86
	해외잡지동향		90
	현상설계		96
	법령		108
	회원현황		113
	통계(2000년도 11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14
	2000년도 총목차		116

발행인: 이의구
편집인 : 서천식
편찬분과위원회 :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헌군, 최동규
편집 · 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 http: //www.kira.or.kr
E-mail : hkjo@kira.or.kr hsjoung @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천풍잔산인쇄
광고 :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D.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 본 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Vol. 381 January 2001

Newyear Address

Actively Facing the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Field		Lee Eui-Koo	14

Special Issue

KIRA at the Turning Point : Its Future Choices			17
Review / Seomi Gallery		Yoo Tea-Yong & Cha Ju-Jae	36
interview	Internal Contexts of Architecture	Kim Bong-Ryeol	46
critique	What an Unexpectedness!	Lee Jong-Keun	52

Works

Anyang Gymnasium & Ice Rink	Lee Yong-Ho	56
Incheon Metropolitan City Tourist Information Complex	Kim Kyung- Taik	61
Capital Tower	Junglim Architecture	64
Bundang J's Residence	Kim Seok-Hwan	68
Cheongju Internet Data Center	Kim Byung-Nyun	72
Korean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Taegu Branch Office	Lee Young-Wook	74

Feature

Sites in the City : Propitious Spots and the River	Park Si-Ik	76
Cartoon	Yoo Won-Jai	83

Architects' Plaza

KIRA News	84
Archi-Net	86
Overseas Journal	90
Competition	96
Laws & Ordinances	108
Members	113
Statistics	114
2000 Annual Index	11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1~4
강남구건축사회/517-3371 · 강동구건축사회/486 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5-1588 · 노원구건축사회/938-578' · 도봉구건축사회/954-'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 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9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53-2337 · 군포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92-4121 · 안산건축사회/(031)4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2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7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6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삼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논형지역건축사회/(041)934-2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7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 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6-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2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9-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시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6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 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환경 변화에 적극 맞서

Actively Facing the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Field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회망찬 후己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게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과 사무소에도 행복과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예년과 달리 마음 한켠에 자리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새해의 희망과 설레임을 억누릅니다. 올 해가 경제 재도약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만,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경기하락의 징후들은 올 한해 우리경제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로인해 경제사정에 큰 영향을 받는 건축설계업계 또한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업체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야 하는 고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가하면 나라 안팎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긴박한 변화의 기류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올 한 해 건축설계업계 앞날에는 적지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건축의 현실은 작은 외적 충격이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다수 건축사사무소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경제구조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초마다 마음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왔지만 올해 업계의 상황이 이렇듯 급박한 탓에 우리들의 새해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한 우리 건축설계업계로서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결연한 각오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업계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영구조 개선 ▶건축설계 시장질서 확립 ▶건축사업무

영역의 확대 ▶건축사사무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삼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조직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선 우리 건축설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화 · 개방화 ·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거듭나지 않고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건축정보 및 건축사업무 지원체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건축설계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 건축계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화된 건축설계업계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모두의 의식전환과 구조개혁 의지, 그리고 자발적인 동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경기악화는 비단 건축설계업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므로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낸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관련 정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 없이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가뜩이나 갈길이 먼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신고범위의 확대, 건축사자격의 기술 · 기능계 통합 자격관리운영법률 적용, 건축사의 현장조사 · 검사업무 벌칙강화 등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은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을 넘어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협회는 그 와중에서 국내 건축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해 UIA가입을 계기로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 구성 문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정책건의나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때론 적지않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의 정책 현안들은 전회원의 단결된 힘과 의지에 힘입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초 출범하는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의 경우만해도 본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가 중심이 돼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교육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와 향후 WTO협상 등에 있어 우리 건축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선 예산확보 등 관련단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범건축계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 !

이처럼 건축설계 시장개방 및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 속에서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을 지키고 생존의 고비를 넘기위해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분투해 왔습니다만, 여러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해온 지난 2년여 동안 본인과 협회에 대해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올 한해 협회의 사업과 일들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거 불모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던 저력을 되살려, 새해에는 7천7백여 전회원이 단합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다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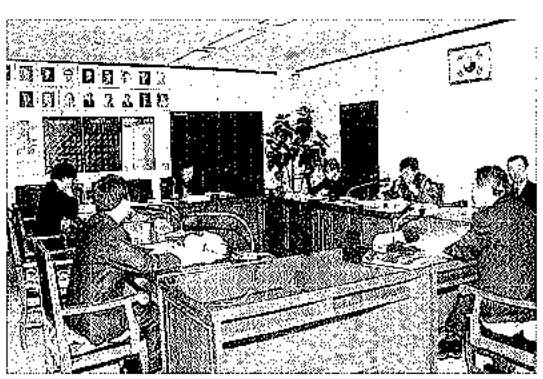
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인 또한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남은 임기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인사에 대신합니다.

좌담 : 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KIRA at the Turning Point : Its Future Choices

일 시 / 2001. 1. 10(수) 14시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승회/건축사사무소 경영위치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불참)
목대상/상화건축사사무소
박서홍/희산건축사사무소
이관영/한인건축, 본협회 이사
이상돈/세림건축, 전북건축사회 회장
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장양순/동명건축,본지편찬위원장,사회



좌담광경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격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 · 개방화 · 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편집자주〉

회원들 협회를 잡부금 내는 단체로 인식
피해의식 많아 임의화되면 탈퇴하려는 회원 다수 우려

장양순_____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WTO에 의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과 이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건축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등 산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협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회비 미납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생존문제를 걱정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1년여의 유예 끝에 금년부터 임의단체가 되어 회원가입의 자유화, 도서등록의 폐지 등 36년간 안주해 왔던 어제와는 판이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력확보와 회원의 결속력강화라는 두 명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좌담회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우리협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일조가 될까해서 마련됐습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특대위를 가동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영이사께서 그간의 과정 등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관영_____아마 오늘 좌담회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협회의 가입이 임의화가 된 뒤에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협회가입 임의화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협회가입을 임의화 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복장이나 머리모양을 자율화했던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의도이겠지요. 따라서 과거에 두발이나 교복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했습니다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율화가 정착되었던 것처럼, 협회가입이 임의화가 된다고 해서 협회가 크게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협회라는 조직의 힘으로서만 가능한 역할, 앞으로 협회의 이름으로 해야할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느냐를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필요성을 보다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양순_____임의화에 따른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를 가장 절실히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목대상소장께서 회원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목대상_____서초건축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임의단체가 되면 회비문제라든가, 협의문제 등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는냐는 문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놨던 것이 아니라 본협회나 서울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탈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탈퇴의사를 묻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분들에게 탈퇴할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면 협회에 가입했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좀 더 회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돈_____임의화로 변하는 세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단체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협회에 대해 회원들은 잡부금을 내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고, 또 피해의식을

협회 가입 임의화 전화위복 기회로
타율적 관행에서 자율화로 새로운 개념의 틀 짜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비문제입니다. 본부,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상조회, 신협 등에 내는 월정회비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화가 되면 탈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도 소속감이 있고, 회비를 내더라도 아깝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소속감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협회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회 가입 임의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듭나는 협회가 되기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기해 놓고 각론적인 분야에서 참여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는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즉, 법적인 문제, 자율적인 문제 등에서 좋은 방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신입회원 입회시 가입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400만원의 입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연 4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들어올려고 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업무신고는 해놓고 가입비가 없어서 협회에 가입을 못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주장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가협회나 학회보다 저렴하게 한다든지, 일부를 내면 종신회비로 한다든지 등의 방법연구가 있어서 회원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임의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건축사 인장이 날인돼서 혀가가 나고 준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의 인장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 등은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관에서 체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건축사 확인증이라든지, 실적증명이라든지, 소속증명 등을 활용해서 비건축사가 설계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중앙고속이나 충주호 유람선 등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몽골에 갈 기회가 있어 현지에 가보니까 골프장을 건설해서 건축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문을 해 준 일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양순_____현재 우리협회가 임의화가 됐다고 해서 복수단체가 금방 탄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안심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회원의 탈퇴수가 급증하리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월정회비 수납현황을 보면, 부산의 경우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50.4%이고, 80%이상인 곳이 제주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입니다. 평균이 57.1%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비를 못내므로해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불황과 겹쳐서 탈퇴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복수화 뿐만이 아니라 회원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최교수님께서는 외부의 입장에서 임의화에 따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찬환_____임의단체화 되는 것은 규제완화, 자율화,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 서비스 제고 등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는 물론 대부분의 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의단체화 함에 따라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변화의 단초는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건축사가 강제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율적이었다면 이제부터

본부는 회비이상의 일 한다고 자부
건축사와 관련된 정책 등 근본적 문제 다뤄

는 자율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시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다소 비판적이고 방관적이랄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회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이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회원이 한 데 어울려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건축사협회가 지금까지의 조직과 업무, 회원관리와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개념과 틀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집시켜야 하며, 상의하달(上意下達,Top-down) 방법이 아닌 하의상달(下意上達, Bottom-up)에 의해 의견통합과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원에 대한 자격을 사무소 등록회원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 자격자로 할 것인지, 또한 어느정도 외부에 개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다양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 현재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으로서 사협회는 건축인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장양순_____협회가 임의단체가 되면서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립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재정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에 회원으로서 협회를 보는 시각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회_____저는 이 자리에 한 평범한 회원의 입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들에게 있어서 건축사협회는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간 많은 불편을 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계도서신고를 건축사협회에 하가 신청 후 열흘 이내에 하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험악한 규정을 만들게 한 것도 건축사협회이고, 열흘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행정관서에 통고한 주체도 건축사협회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지만, 그동안 건축사협회가 회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아닌 지역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축사협회가 입안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건축가에게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다른 기관도 아닌 건축사협회가 추진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당시에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직원들로부터 건축사협회의 불친절에 대한 불평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자신도 예전에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건축사가 될 사람들조차 건축사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건축사협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예들은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가 되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찬환_____도움을 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 걸림돌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관영_____임의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변화, 예를 들면 회원수의 증·감 문제는 회원으로서의 부담과 회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혜랄까 이익, 이 두가지면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협회 본부에 대한 경우와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회와 본부를 상대로한 문제 구별해야
본부 이성적이고 공동의 활동, 지회 친목 향토성 등 감성적 활동해야

김승회_____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회원이 협회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사협회가 회원을 '관리' 하고 있는 태도, 건축사협회가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축가를 도와주는 단체임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의 구조, 협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배려를 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그것이 바로 전세계 건축사단체들이 겪고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수준과 성격이 서로 다른 건축사간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정적인 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젊은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Lonely Wolf' 라고 부르며, 협회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늑대의 습성에 비유해서 '외토리' 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역시 늑대는 집단으로 생활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야기를 다시 (부담)과 (수익)으로 돌려본다면, 본부와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본부를 상대로 했을 때의 부담은 월정회비 2만원으로 연 24만원입니다. 그러나 지역건축사회의 회비는 이보다 몇배나 더 많습니다.

임의화가 된 다음에 본부회비와 시도건축사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구건축사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임의화가 된 다음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회비만 내면 되지 않느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책위에서 여러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파생되는 문제는 지역건축사회의 존립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운영방법에서 예를들면 지역건축사회 운영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수혜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일종의 회원에게 되돌아가는 서비스면에서도 본부가 회원에게 주는 이익과 시도건축사회비를 부담하는 대신 되돌려 받는 이익이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본부에서 받는 수혜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사제도개선문제라든가, 최근에 일고 있는 건축사교육개선문제라든가, 법규개정문제 등과 같이 건축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중에서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부에서는 2만원어치 일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건축사회비, 아까 전북회장님이 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볼 때, 가령 지역건축사회비를 안내고 대한건축사협회 본부회비만 냈을 때 그 사람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구건축사회의 회비의 경우는 야유회, 운동회, 바둑대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비를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강제화 일때도 회원의 자격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임의화 일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협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를 생각할 때, 시도건축사회를 상대로 하는 문제와 본부를 상대로 하는 문제가 돼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의 재원이 회비 2만원입니다. 그것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연구의 경우, 회원에게돌아오는 것이 이익을 눈에 보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조직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사법개정, 자격 상호인정, 시험제도 개선 등 협회가 아니면 못해
제3의 협회 출현 가능성 적어

지금의 협회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협회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의 탄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최찬환_____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고 받는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협회에 기여하거나 주는 것 하고, 협회를 통해서 받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거나,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총체적인 이득과 주는 것을 따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김승회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부 건축사들은 협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협회라는 것이 회원이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회원과 협회의 뜻이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 협회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뜻이 맞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본부의 대표성은 국가로 비유해 보면 국방과 외교에 해당됩니다. 어떤 한 조직체가 대외적 창구를 할 때는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단합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획업무라든지, 대외활동 소위 이해집단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 등은 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본부 협회가 중앙정부라고 생각하면 지회는 자치단체와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지회는 친목이나 향토성 등 감성적인 활동을 주로하고, 본부는 전문인의 공동체로서 이성적이고 공동의 활동을 주로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때 본부의 성격은 임의화 단체가 되어도 분명히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려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 뜻은 같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하기는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의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관영_____저는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 김소장님처럼 상당히 섭섭하셨던 회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섭섭했던 회원 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조금만 더 협회에 관심을 갖는다면 섭섭해도 버릴 수 없는 필요한 존재임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최근 몇 년동안 협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만 보더라도, 국내적으로는 각종 건축사법규개정문제와 관련하여, 건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WTO와 관련된 건축사자격상호인정, 교육제도개선, 시험제도 개선, 계속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문제들은, 회원들이 구성해 주신 협회가 아니면 추진해 나갈 수 없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장래에는 언젠가는 건축사로서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건축사의 수준과 위상이 높아지면 이제까지 염려했던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갖게 되면 비상식적인 결정들도 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협회가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고 험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은 협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발전시켜 단합된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_____본협회에서는 회지편찬, 법령개폐 참여 등을 비롯하여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술자관리, 시험관리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 한사람이 본협회 회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일년에 24만원입니다. 24만원을 내고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혜는 받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시도회별로 회원당 50~140만원 정도를 내야 시도 건축사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원

본부회비 이의 없으나 지방회비 지역따라 3배차이
시도회 기구 축소 등으로 회비 절감해야

은 50만원을 내는 반면, 제주회원은 14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본부회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는 과연 회원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반문해 볼 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건축사회의 경우 잡부금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사무기구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등록이 없어지는 등 기존의 업무가 축소되어 회원관리업무에만 주력해야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의 최소운영비용만이라도 본부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때 조직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건축사협회에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건축사회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운영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시도건축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본부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깊에 논의되어 다듬어져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건축사업무 전반에 관련된 확실한 사업을 해주고, 지역건축사회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회원간 친교 및 지역건축문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면 회원들이 적어도 피해의식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양순_____임의단체화와는 관계없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것, 회원이 협회에게 주는 것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든가, 회원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회와 본부와의 역할이 확실하게 돼서 예를들어 기획은 본부에서 관리는 지회에서 하는 형태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회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탈퇴하는 회원도 적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임의화되기 이전부터 예상을 해왔었고, 95년에 협회 개혁에 대한 백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서 박서홍소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서홍_____임의단체를 이야기 하면서 임의단체에 대한 성격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임의단체가 된 뒤의 우리협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성격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중앙집권적 시각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방분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부사항 등 상당히 혼란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회의 임의화 문제는 전제조건이 선행된 뒤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은 많은 변화를 거친 시기이기 때문에 95년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임의화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 관변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협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관변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임의화라는 것은 친목집단,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닌 NGO 그룹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인 이익단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문제의 방향이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1년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질서에 맞는 협회조직을 구성한다는 의견일치를 본다면 여기에서 주안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객은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회원을 전제로 하는 시각이 전제가

현행 규정 시도회 가입없이 본부 가입 불가
지회 관리비 본부 예상 편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식으로 임의화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의화가 됐을 때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 우선 둘이상의 복수단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회비수납 등 협회운영에 대한 문제, 탈회와 회비미납후의 문제 그리고 본부와 지부와의 문제, 즉 4개의 축으로 나누어 논의하다보면 우리가 처한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각 사무실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하고, 혼자서 못하고 두서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고, 단체로서 다함께 할 수 일은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와같은 공동의 일을 하는 것이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그래서 제3, 제4의 단체들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룹에서 새롭게 단체를 만들 경우,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와 목적이 예를 들어 기존의 협회에서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거나 하고 싶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환영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친목을 다지는 모임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른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협회로서는 지금의 협회이상의 능력을 갖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도 회원들이 조금 더 협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능동적으로 협회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_____협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운영방침을 정하는 데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양순_____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서홍_____이익을 표방하는 전문가단체라면 동일한 직업군을 갖는 수평적인 유대관계 조직이고, 거기에서 문제는 생긴다고 봅니다. 수평적 유대감으로 묶여진 우리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 유대감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3가지의 공동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해, 유사한 경험, 공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가지가 다 상이합니다. 이제는 추상적으로 원론적인 문제 토론보다는 이 세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복수단체 문제도 그것의 출현은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서도 안되며,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단체의 출현에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협회가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협회의 기능과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시급한 현안문제를 열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건축사의 기능과 정의가 국제화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건축사자격의 평등화란 문제가 WTO에 의해서 대두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축사자격이 국제적으로 평등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것은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계기는 WTO가 만들었지만 필요성은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WTO의 추진일정이 예상과 같지 않더라도, 마침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건축사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건축사집단인 우리 협회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한

복수단체 가능성 필요에 의해 탄생
막아서도 막는다고 되지 않아 이에 대비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서야

일들이 당연히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건축사법의 태동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건축사가 함께 주도해 왔는데, 더 이상 정부가 개선작업을 주도하여 주길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부의 조직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건축사와 관련된 제도는 건축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협회가 적극적이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일들의 대부분이 교수와 극소수의 건축사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건축사의 총의가 모여지는 어떤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축사가 참여한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건축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개개인이 협회에 애정을 갖고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소비자 단체라든가 경실련 등의 단체들이 시민들의 작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듯이 현업에 종사하는 동질의 직업을 가진 건축사들이 기부한 적은 회비로써, 건축사집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이해하여 주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협회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인집단이 해야될 가장 큰 일인지도 모릅니다.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므로써 더 나아가서는 고객, 즉 건축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전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협회라는 조직이 더욱 더 튼튼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회원들께서 내시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조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하필 이 때에 임의화라는 것으로 인해 협회라는 조직의 결집력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목대상_____회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임의화의 문제는 참여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사의 위상정립이라든가, 이익창출이라든가, 대정부 강화방안 즉 법제도 등을 건축사(회원)의 편에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지구단위계획 등의 문제가 사실 건축사들이 실제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협회의 기구를 보면 비상근으로 되어있는 임원들이 유급 상근직으로 해서라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도 좌담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정해주고 회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임원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이다보니까 회원들이 책임을 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라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줄 때 회원들 또한 참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물론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지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려면 어느 부분인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안됐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압력도 가할 수 있고, 책임도 추궁함으로써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막연하나마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 보는데, 협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등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사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도 활성화시키는

하의상달 체제 갖추고 모든 것이 회원편에서 정리되어야
회원에 희망찬 비전 제시 참여기회 부여해야

등 무조건 예산을 줄여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도만 높아진다면 회비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저도 협회의 문제점이 회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분과활동이 없고, 모든 활동이 형식화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불씨를 지피는 기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다수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일회성이 짙은 정책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할려면 전문성을 갖는 분과나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고, 최종 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데, 그것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홍보가 되고, 논의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과라는 것은 겉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속해 있는 법제위원회의 경우 뺄라야 하루전에 제목만 적힌 회의자료를 팩스로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률에 관한 법제를 단 몇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해서 관계기관에 보낼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이익집단라면 특히 대정부관계가 중요한데, 끊임없이 내부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 계속 연구되어져서 평상시 그런 부분이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가부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회원들은 어느정도 좋아지고, 어느정도 나빠지는 관계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를 못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관심이 왜 없느냐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협회든지 참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좋은 회원이 많이 가입하고 활동해야만 협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회원의 참여활성화이고, 그 방법은 분과위원회나 의견결집과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 기능도 좋지만 예를들면 설계도 아파트, 학교, 병원, 교회 등 종류별로 정해서 분과를 만들고 관심있는 분야에 스스로 참여해 활동하면 나름대로 특성화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단, 업무와 직결된 부분의 전문화나 참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서 반드시 공동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건축사협회가 개인단위의 단체냐, 업소단위의 단체냐, 아니면 자격단위의 단체냐를 차제에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양순_____전체적으로 수평적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는 여러 여건으로 어려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급이 되더라도 협회를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어려울수록 연구, 개발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사무처 인원도 대폭 줄이는 등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협회도 투자마인드로 바꿔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전문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회비가 같아져야 되는 부분, 경감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참여의식이 적은데 대하여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회원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방안 연구와 리더십의 문제 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서홍_____추가한다면 협회의 성격을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지방분권적인 조직 중에서 명확하게 구

무조건 예산 감축보다 합리적인 투자해야
어려울수록 연구개발투자, 우리는 인원감축 등 거꾸로 가

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본부와 지부와의 기능과 역할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부 이사회의 경우 의결권과 집행권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부와 지회간의 관계를 어떤 틀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 및 정리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중앙집권적인 성격으로 왔다고 보고, 향후는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가서 각각의 역할과 성격이 뚜렷해진다면 분과위원회는 지부에서 맡아야 될 것 같고, 큰 틀의 문제는 본부의 역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각 회원이 회비를 내지만, 협회에서는 다음해에 싹을 틔우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 R&D가 0.02%밖에 안됩니다. 2%를 투자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벤처기업은 15~20%정도이고, 일반제조업이 4~5%정도인데, 특히 지식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업계는 4%를 투자해도 안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태가 앞으로 내년에 심을 싹앗까지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하고,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투자는 불황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되며, 결실의 일부를 다음 해 농사를 짓기위한 종자로서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돈_____문제는 협회의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연구활동 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조직이나, 경영관리 등 모든 건축사의 관리는 본부에서 하고, 시도건축사회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하나의 모임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연합회제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연합회제도로 갈만큼 주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율이 8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건축사회의 경우는 자립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건축사협회의 기능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별로 잘 되어 자립도가 높으면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더 유지하여 보다 성숙된 단계로 발전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계적인 발전차원에서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서흥_____전체구성은 지방자치제로 가는데, 예산만큼은 통합예산의 개념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익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비수납에다 수익구조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만이 아닌 수입구조에 의해서 파생되는 비용발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강남권에서 20층이상 빌딩을 120억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협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새빌딩을 구입하므로써 장기적으로 발생가능한 수익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비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양순_____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위원회에서 나온 공통적인 전제조건은 회원확충이었습니다. 회원확충이 안되고는 여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들어 보험의 경우, 현재의 회원숫자로는 보험사에서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 가족, 학생 등을 포함한다면 최소 6만에서 최대 10만명까지 회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만으로도 일부 회비

전문화된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기회 확대
위원들의 유급화도 시도해야

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협회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교육도 아웃소싱을 통해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부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위원회에서 이미 작년 9월말에 집행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사법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면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다보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여러 가지 부수되는 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서홍_____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최찬환_____수익사업중에서 회원을 담보로 하거나 고정고객으로 생각하여 하는 비전문사업은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회원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업무의 분야를 개척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_____공제사업의 경우, 2~3천만원짜리 용역 보증증서를 하나 떼는데 1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타기관에 가서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최찬환_____그것은 바로 주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부분이고, 아웃소싱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쩔 수없이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끌어들여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수용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서홍_____그것은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협회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아웃소싱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영_____수익사업 얘기를 하니까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거꾸로 돈을 써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사의 교육이나 시험제도의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건축학교육과 관련된 학제개선 부분은 교육계에 말기더러도, 바뀌어진 교육제도가 건축사를 배출하는데 알맞은 것이냐에 대한 이른바 교육제도에 대한 검증은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다시말하면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가 되기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데 대하여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런제도를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만, 이미 영·미에서는 건축사가 되기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한 교과과정을 수료해야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공학분야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먼저 연구되고 있고, 공학관련 16개 분야가 모여서 한국공학인증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자공학이라든지,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건축공학처럼 산업계에 흥미를 끌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서, 소위 산업체의 기부금이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학 교육은 건설회사에

협회 R&D 예산의 0.02%, 벤처기업은 15%대, 4%도 모자라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준비해야

공급하는 기술인력을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미묘한 문제까지 같이 논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도 산학협동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곳이 나라인데, 그것도 임의화라든가, 자율화라든가, NGO지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축학교육인증원 뿐 아니라, 실무교육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인턴제도를 확립하려면 인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턴교육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건축사자격을 딴 사람들을 위해 계속적인 계발을 위해 계속교육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제도도 지금처럼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시험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협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언제 혜택이 올 지 모르는 일이라고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업에서 생활하는 한은 자신의 직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막대한 인력과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협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양순_____수익사업과 함께 R&D부분에 대한 투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제제도도 수익사업이 되면서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찬환_____건축사협회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를 사협회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일종의 인증제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잘모르는 건축주는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사협회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관리 겸 임의단체에서 평가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평가를 해주면 다음에 쓸 사람에게도 인식을 높여주는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가와 인증제는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관영_____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고객 즉 건축주의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건물주가 그 평가를 우리에게 의뢰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찬환_____처음에는 수입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사람들이 굳이 호텔에 무궁화가 몇 개 있는가를 알 필요가 없고, 어느집이 맛있는 식당이라는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등록을 해주면 그것을 보고 오고, 또 그러다보면 등록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작품의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이 건물은 어떠어떠한 점이 좋다라는 것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장양순_____소비자보호연맹에서 녹색인증제를 실시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녹색인증마크를 달게 되면 그만큼 득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를들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인증한 건물이라고 하면 진도얼마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등을 제도화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회원서비스 차원에서 공제제도가 논란이 있었

사무조직, 연구개발, 경영관리는 본부, 지회는 지역사회 개발위한 친목단체
연합회제도는 시기상조(인건비가 80%)

습니다. 연금도 그동안 했다가 해체된 상황인데,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연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와 연금이외에 회원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홍_____3,40대 회원들을 위해서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목대상_____덧붙여서 참신한 인재개발이 있어야 하고, 업무의 연속이 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의 자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건축사협회 회원은 개업사무소의 소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회를 위하여 자원봉사적 입장에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다른 단체에서는 인원을 활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데,그 이유는 건축사면허를 가졌거나 안가졌거나 혹은 개업을 했거나 않했거나 관계없이 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활용과 관련해서 제도 및 회원자격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회가 회원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회원이 협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싹이 틀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이 협회를 떠났느냐, 협회가 회원을 떠나게 만들었느냐를 떠나서, 임의화가 시작되는 2001년에는 새로 태어난 협회라는 각오로, 협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도 도저히 기대에 못미친다면 그때 떠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임의화라는 위기가 협회를 새롭게 태어나게하는 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승회_____저는 건축사협회 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부조리한 제도의 개선, WTO체제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준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건축사협회는 협회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고민해야하는 부분은 건축사가 일하는데 적합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의 공유,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한 수의 상업매체들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갈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잡지를 운영해야한다면 그 내용 역시 건축사협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양순_____다음으로 리더십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협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회원은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수레바퀴의 양 축과 같은 것이여서 항상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찬환_____사협회가 전체회원을 상대로 해서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의견들이 본부에서 통계로서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실지로 어떤 사안을 입안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지, 회원들의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말만 앞서는 식의 회의나 행정은 도움이 안되고,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제대로 진찰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무시되거나 없는 것 같습니다. 짐작하건대 내부적인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책과 제도와 법규 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회원이 해결할 수 없는

수익사업 전제는 회원확충, 문호개방, 건축사법 개정 되어야
빌딩임대, 공제사업, 건물인증제 등 부대사업 많아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회원들을 통해 법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집해서 자료를 만들어 법개정하기 전에 협회의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대리만족을 해도 좋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협회가 나서서 대변해 주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하나는 여러 회원들의 중복업무에 대한 공유화, 공동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예를들어 혼자 100만원을 낼 것을 100명이 모이면 1만원씩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투자의 효율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의 공유화작업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예로 들면 한사람이 하나의 디테일을 개발했을 때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디테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한다고 하면 99개의 디테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화 부분이 거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낄 때는 밖으로 갖고 있는 바람막이처럼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두번째는 내부를 효율화시키고 공동화하면서 집적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생존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압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곧 리더십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건축계의 전체를 위해서라도 건축사협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협회는 건축계의 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건축계의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등 건축계가 합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함으로써 더욱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 사협회, 가협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회비징수 문제, 돈 자체가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대상_____토목학회의 경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에게 감리를 주면서 기존의 50배의 비용을 주겠다고 했을 때 토목학회에서는 우리는 10배만 주면 감리를 잘해 주겠다라고 해서 토목의 감리요율을 높이 책정한 예가 있습니다. 또 토목에서 도로설계를 할 때 대안설계를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한 비용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대안설계를 했다고해서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예를들어 건축설계를 했다가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IMF를 맞으면서 60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1,000평을 설계했다가 600평으로 줄어서 다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전체 1,600평을 설계했는데 건축주는 600평에 대한 설계비만 줍니다. 같은 예로 토목은 1,600평에 대한 비용을 모두 받습니다. 이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원들 전체가 뜻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단합이 안되는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덤핑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덤핑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윤리에 호소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일한 만큼의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작업량은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

건축사 인증제도, 계속 교육사업 등 주 업무에 투자해야
수익사업과 회원서비스 함께 이뤄지는 사업 찾아야

해서 모든 보수는 계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계약서작성이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작성된 도면과 허가를 내주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표준계약서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도 설계비의 몇 %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상세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결국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설계비 항목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열된 표준계약서 등을 공식력있는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회원들이 건축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_____오늘날은 시스템적 유형을 갖는 관리형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개인보다는 기구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돈_____협회의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실천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선거할 때만 무성한 말들이 나돌다가, 종국에는 그러한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협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협회가 발전하지 못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떨어진 것만 해결하느라 바쁘다보니까 계획성도 없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회원이나, 소도시에 있는 회원들은 어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더라도 정보가 없으니까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회원들의 특수성을 띈 작품이나 건축사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용도별로 분류해서 전산화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협회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회원은 협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서홍_____요율의 문제와 가격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구조가 독점구조와 공유구조라고 봅니다. 독점구조는 선자독식의 개념이고, 공유구조는 재화의 균등배분 개념입니다.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경우든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일된 논의의 요율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독점구조에서 요율체계와 공유구조에서의 요율체계를 둘로 구분하는 선에서 출발하면 회원들이 참고로 쓸 수 있는 요율구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더라도 협회에서 회원 서비스의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돈_____요율문제는 독점규제와 관련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보수기준을 사용해 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율 또는 맨데이라고 해서 사용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폐지되어 버리자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준용하여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는 방법 또한 공정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회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느 요율이든지 우리 협회가 정하는 것이 있다면 견적서 내기도 좋고, 건축주와 대화

설계보수요율 기준에 문제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회원과 함께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하기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영_____저는 여러해 동안 요율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었고, 마침 협회의 의뢰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작업량에 비례한 비용, 다시 말해서 투입된 직접인건비에 대한 사례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제정한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3년간의 사무소 실적을 조사하여 평균한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가 기준이란 것은 없고, 다만 해마다 건물별로 공사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소비자의 수준과 시장윤리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통계로 보여집니다. 업무보수대가기준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실정에서는 통계에 의한 수량화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프로젝트별로 작업인력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 않은데다 요즘같이 덤핑을 마다않는 열악한 조건에서는 통계자체의 객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몇몇 규모있는 사무소들은 자체적인 통계에 의한 설계비계산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무소들은 협회차원의 설계보수대가기준을 필요로하지 않고도 활발한 설계활동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보수는 건축주와 설계자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면 그 뿐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그 첫머리에 '설계보수대가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없으므로써 회원이 겪는 불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건축주와의 계약시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다거나 덤핑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계약의 기준으로는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것이 덤핑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는 절대 공공요금처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고해서 밑질 것을 알면서도 덤핑가격으로 수주를 한단 말인지요? 덤핑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의 양식과 수준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무소들이 일꺼리만 많다면 현재 통용되는 설계비로도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소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나마 일거리가 떨어져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을 놀리느니 일한다고 덤핑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도 설계보수요율이 있어야 하겠다는데는 찬성하지만, 과연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덤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결정한 설계보수대가기준이라고 해서, 공공요금처럼 생각하여, 이것보다 덜 받으면 제재를 받으니까 다른데 가봐야 마찬가지라고 건축주를 설득하려 한다면,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돈_____어쨌든 회원들의 시각은 요율표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서입니다. 또 한가지는 설계를 보면 허가 설계건, 시공 설계건, 그리고 감리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단계는 계획, 기본,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과 업무가 있고, 감리도 법정감리와 시공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들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단계별 책임과 업무와 비용들이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익창출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공유화 작업 등 리더십의 경영마인드 필요
협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 가지고 회원도 협회에 기여할 일 찾아야

이관영_____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표본조사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경우, 보수요율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설계사무소의 장부를 갖다가 조사를 하여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결국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설계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거래실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회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합리적인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슴없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최찬환_____보수요율이 없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카르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무소와 계약단계에서 갖고 있는 방법들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보수요율이 정확했다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가 갖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하나는 현재 개인단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것들은 사무실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사무소 한두개를 선정해서 전문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해서 무엇이 잘못돼 있고, 무엇이 잘돼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면 개별사무소의 비경영인이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양순_____보수요율 문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무소 나름대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리더십의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사로서의 기술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전체 경영을 위한 마인드의 문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건축사가 돼야 되는가의 문제, 돼야 된다면 상근부회장을 경영분야에서 영입할 필요는 없는가의 문제 등 좀 더 열린생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에 대한 문제도 협회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회원 스스로 개발을 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발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협회에 제공함으로써 여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건축계가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등 좀 더 능동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회는 회원과 건축계를 위해서, 회원은 좀 더 협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성숙된 건축계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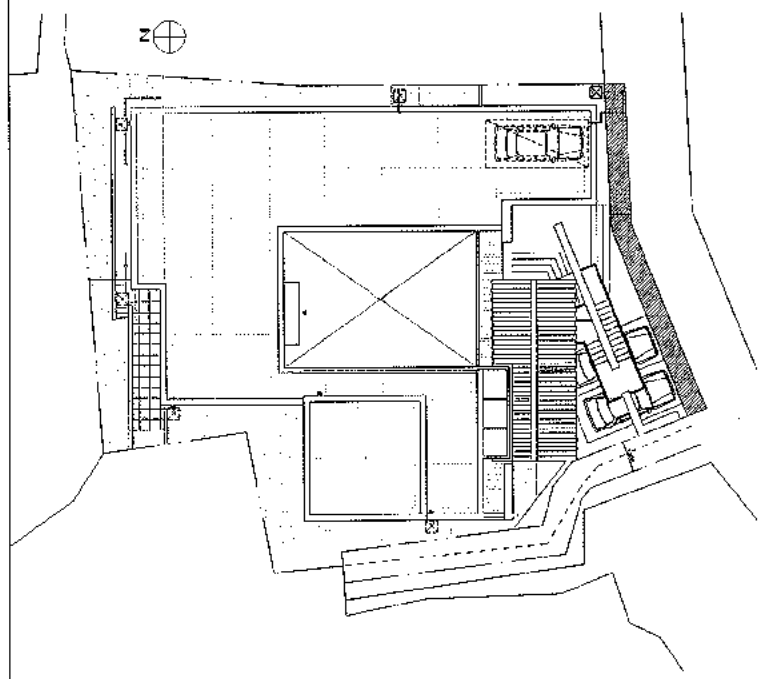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서미갤러리
Seomi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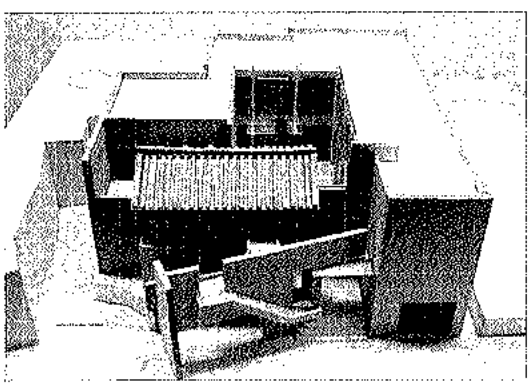
유태용 / (주)테제건축사사무소 + 차주재
Designed by Yoo Tea-Yong & Cha Ju-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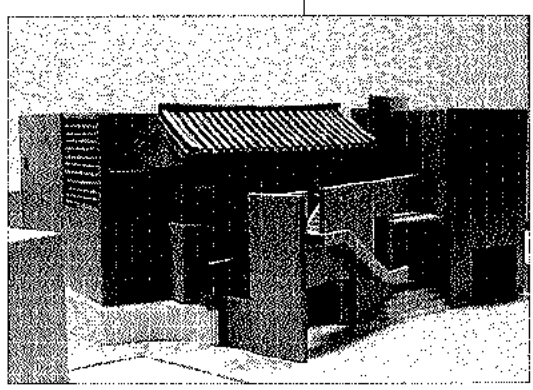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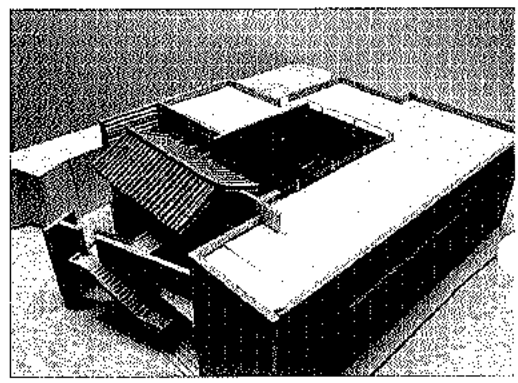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29-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4종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540.2㎡
건축면적	288.97㎡
연면적	526.86㎡
건폐율	53.49%
용적률	97.53%
용도	주거 및 전시시설
구조	철골조, 일부 목구조
규모	지상 2층
내부마감	THK9+12 석고보드2겹위 VP도장
외부마감	THK50 베이스패널, 전벽돌치장쌓기, T18복층유리
설계담당	변문수
구조설계	나라구조
전기설계	신원전기
기계설계	세아설비
시공	홍송원
건축주	홍송원
사진	이재성
설계기간	1998. 5.~ 1999. 9.
시공기간	1999. 10.~ 200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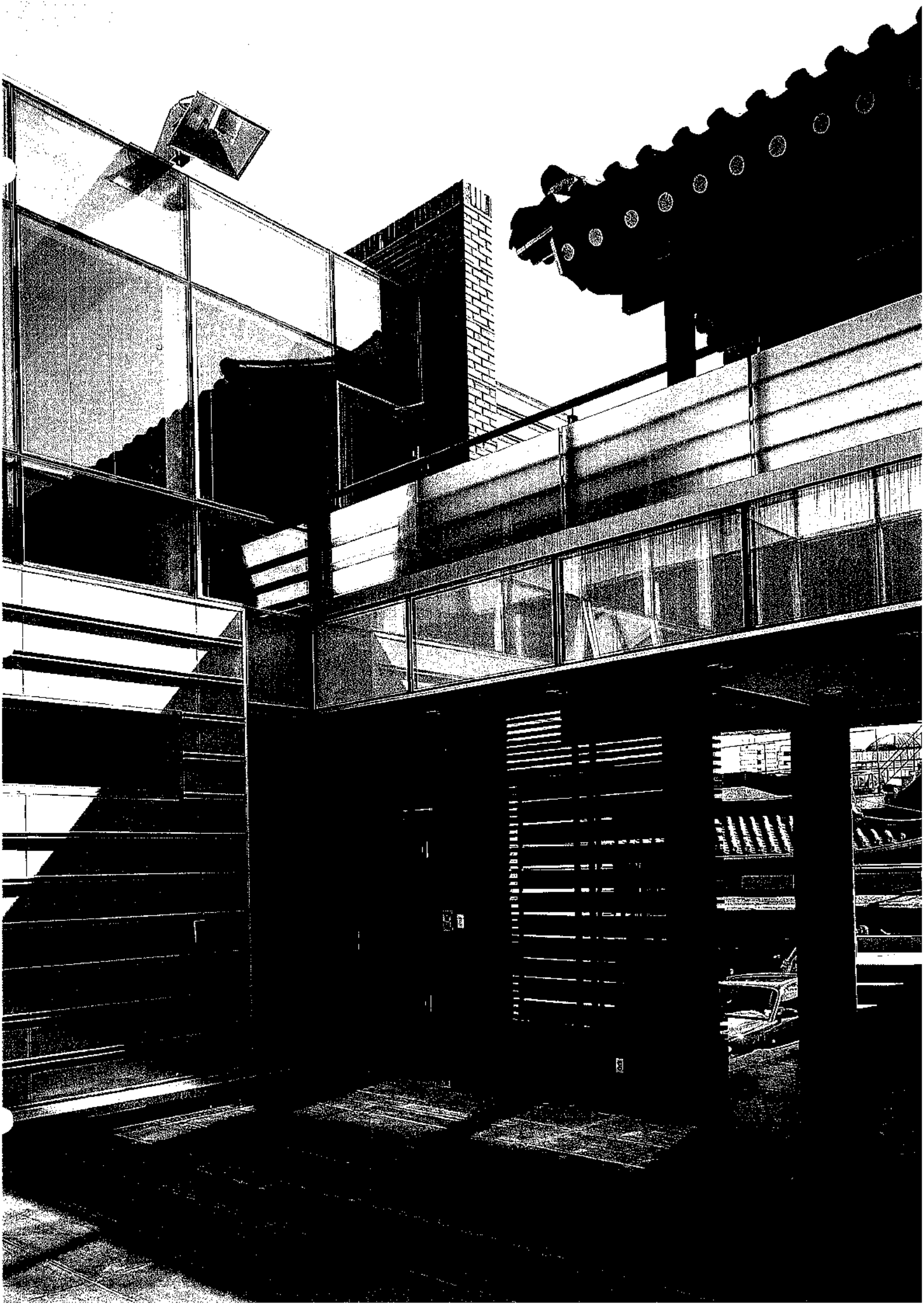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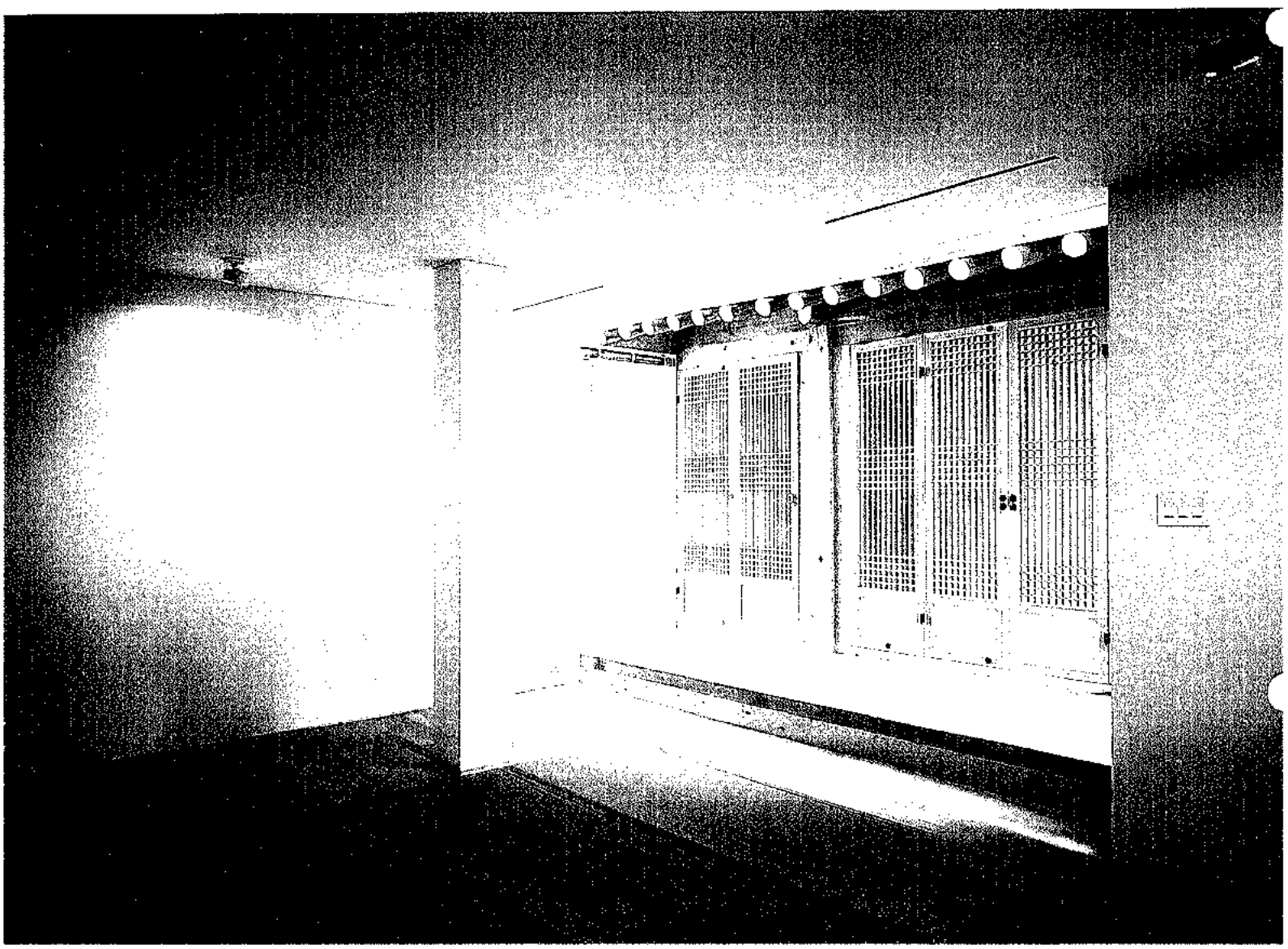
가회동은 「멋」이 있는 동네다. 남으로는 인사동, 동으로는 경복궁, 서로는 창경궁, 운현궁 등의 전통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그 중심에 있다. 그곳에 사는 평범한 아낙네 조차도 웬지모를 자긍심에 젖게하는 문화의 동네다.

가회동은 「밤」이 있는 동네다. 날로 디지털화되고 주변에 묻혀 하루가 모자라는 동네와는 달리 가회동은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휴식이 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동십자각에서 시작하여 경복궁 담옆으로 즐비한 화랑가 건물들도 이곳에선 더없이 어울린다. 그래서인지 이런 부류의 공간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의 작업공간은 바로 그 화랑가의 끝자락이지만,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가회동 주택 및 전시시설에서 계획의 주요는 비단 일정지역에서만 거론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전통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특수아닌 특수성을 고려해 보편화할 수 있는 나름의 양식을 표현해내는 것과, 비록 시간이란 연속선상의 한 맥락을 볼 수 있지만, 엄연히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상보적 관계로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주어진 기능에 부합된 절제된 배경으로써의 내부공간 실현 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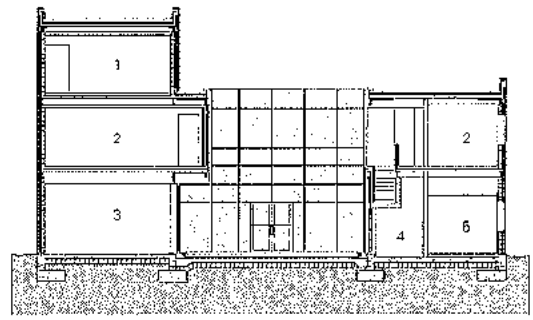
특수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피상적인 이미지로 전통적 양식의 사용됨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관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을 끌게 되었고, 결국 미온적 태도보다는 적극적 구현의 수단으로 2층 서재공간을 한옥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신축전에 이땅에는 작은 마당을 가진 「ㄷ」자형의 한옥이 있었고, 철거시 계획규모에 적절한 부재를 추려 모아 한옥을 지은 지금에 보면 시간의 벽을 넘어선 재현의 의미를 덤으로 갖게 하였다.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개념의 정리는 공간의 위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진출입동선 체계를 계획하였고, 배치상에서 시각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한옥을 배치하였다. 목적공간은 아니지만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체계를 가진 동선상에서 한옥공간은 늘 시각적 중심에 자리한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적 조합만이 아닌 안방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공간 교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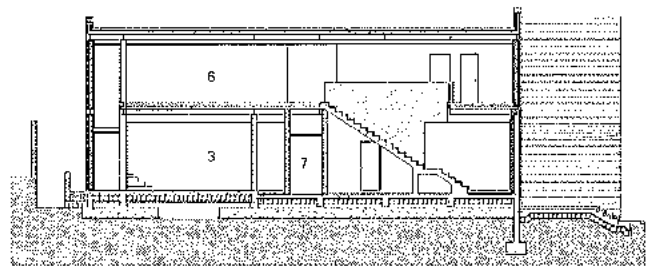


고려하였고, 그 이미지는 붙박이장(자게장) 및 침대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한옥의 누마루는 내부공간에서 도시적 배경을 전통적 이미지와 융합시키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자칫 폐쇄감을 주기 쉬운 중정을 가진 배치상에서 적절한 개방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마루공간은 건축주에게는 일종의 이벤트 공간으로 씌여질 것이며, 이를 위한 동선인 외부계단은 중화된 전벽돌 벽을 느끼며, 중정에서 거리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즉 누마루로 진입하게 되는 시간의 벽을 넘는 전이공간이다. 선과 질감, 색상이 강한 한옥과의 조화를 위해 무채색 계열의 시멘트 성형패널을 사용하였고, 상반된 두 요소를 엮는 요소로 수평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중정에서는 투명과 투영을 위한 커튼월로 구성하였다. 내부공간은 가변성(철골)을 고려하였고, 미술관이라는 기능에 부합되도록 색상 및 디테일을 단순화하여 배경으로서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기능의 해결, 양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옥을 적절히 사용하였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글/유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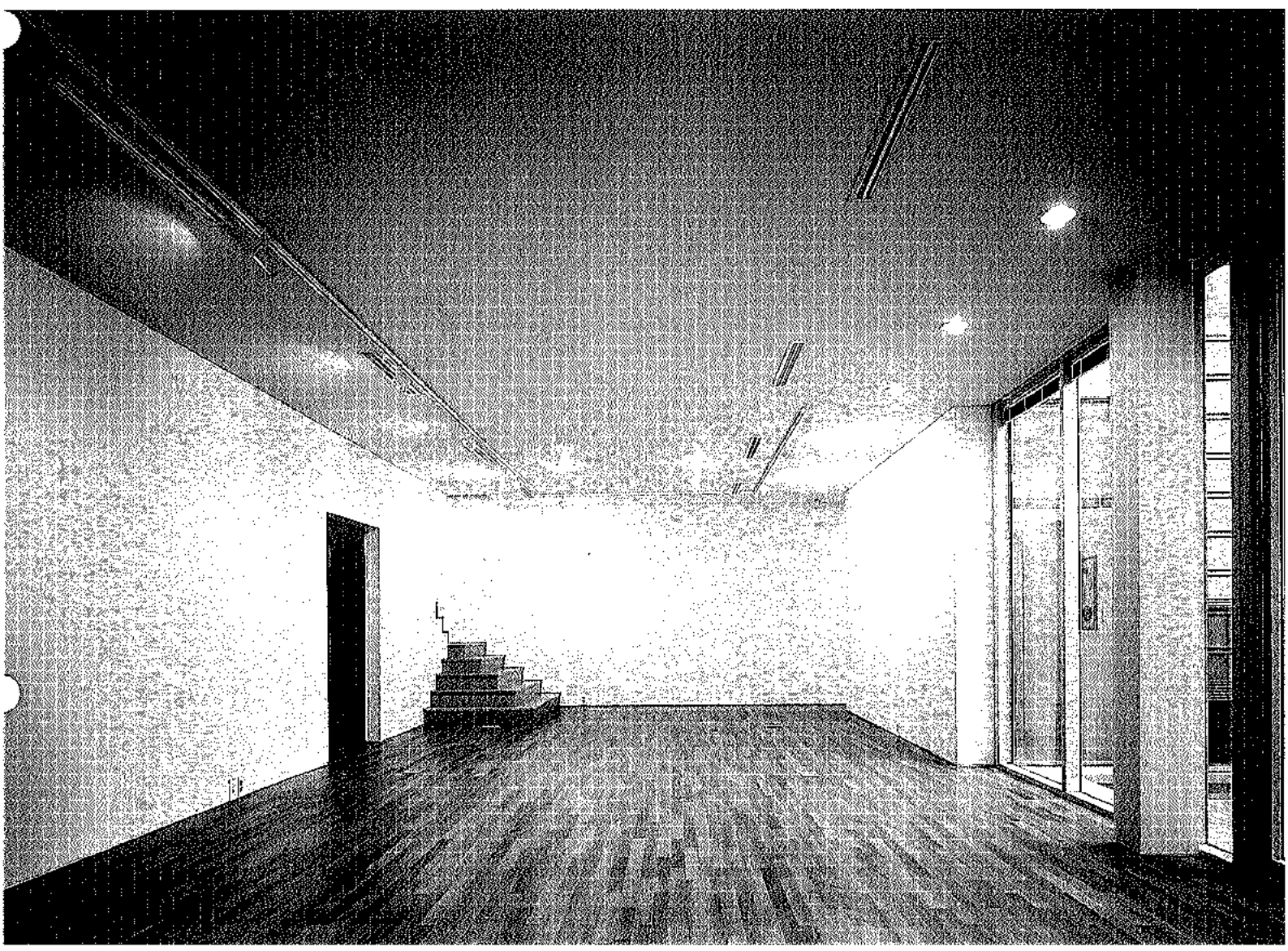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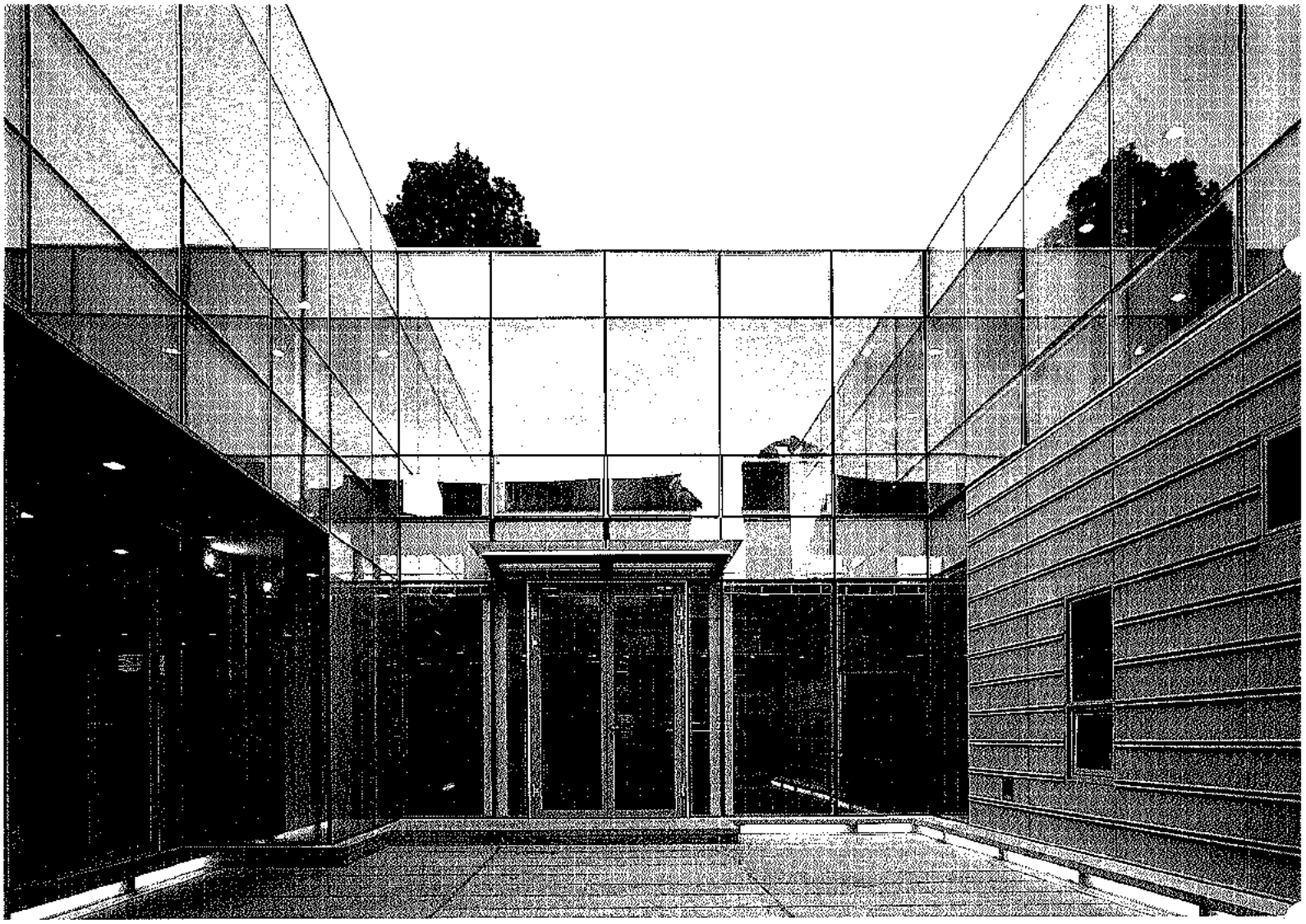
종단면도



1. 동행크실
2. 침실
3. 전시실
4. 기계실
5. 관리실
6. 거실
7. 화장실

횡단면도





Kahoi-dong is a place of numerous attractions: North to Insa-dong, South to Kyungbok Palace, East to Changgyung and Unhyun Palaces, it is situated in the core of our traditional culture. Within such place, every villager is encouraged to feel complacent to be part of a meaningful historic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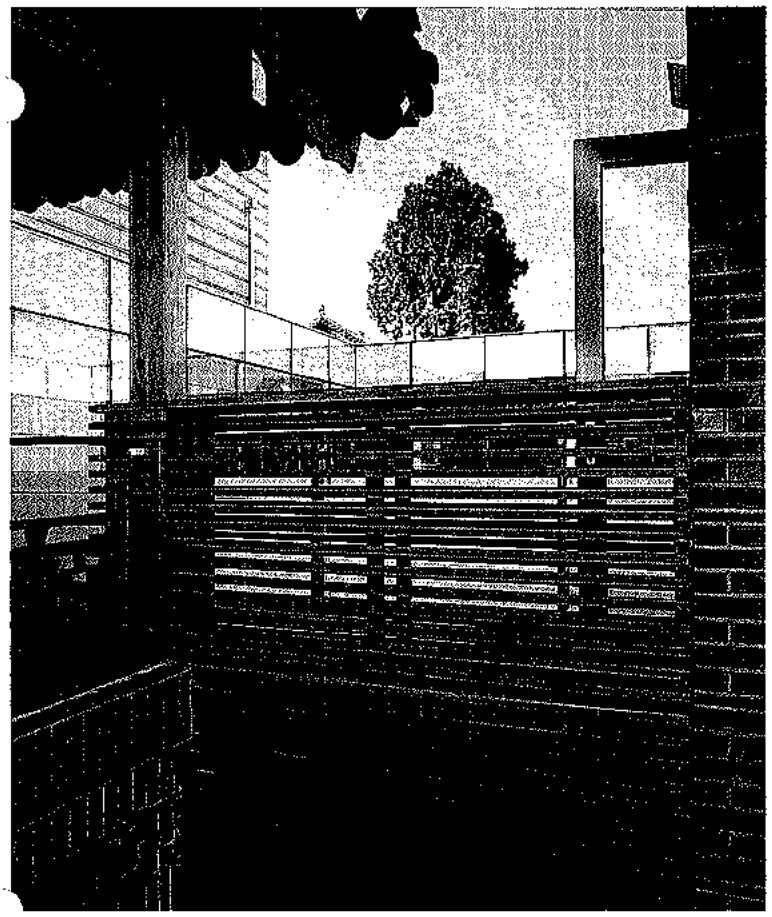
It is also a town with a 'night.' Whereas most other portions of the city is deeply drenched in the current fad of speed and digitalization, Kahoi-dong supplies us with an air of capacity, abundance, and rest. The steps of people walking along the streets of this town feel much more lighter, and the row of galleries placed across the fencing walls of Kyungbok Palace seems never out of place - which can explain why such type of architecture is in constant increase in this area. Our workshop is at the edge of the galleries, but it also has a potent as a spot of another beginning.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is housing and exhibition facility at Kahoi-dong - though they are not exclusively reserved to projects in certain regions - were that of expressing a style which could universalize the specific aspects of the area's often problematic tradition, and its temporal translation - that of forming an interrelational balance between the present and history, now in inevitable coexistence. Also important was the creation of interior space as a modest backdrop to the given functional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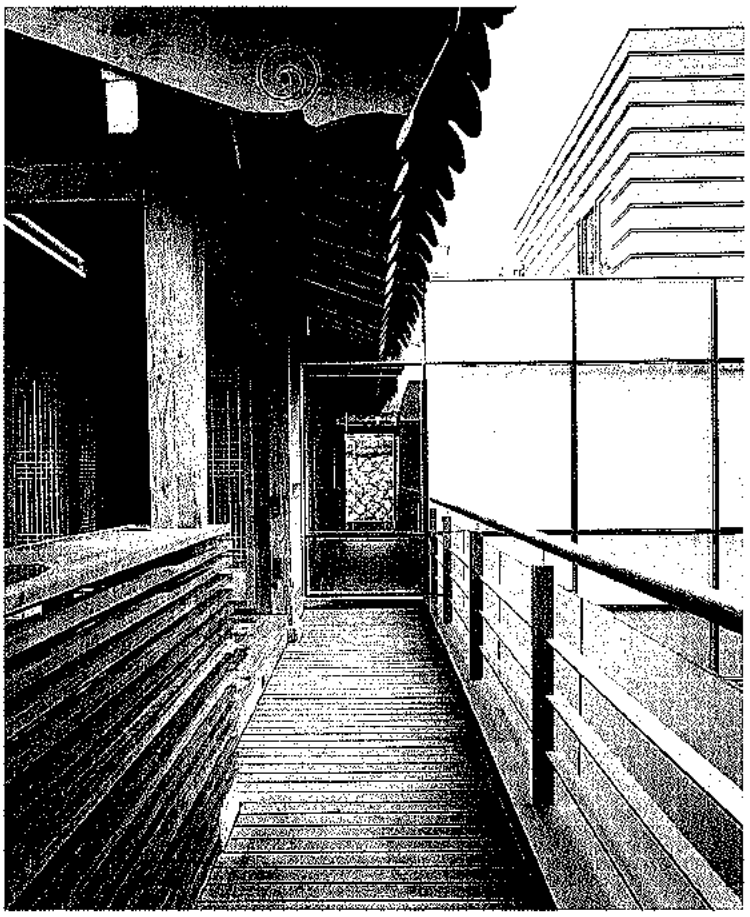
As an expression of this specific character, the use of tradition in a superficial manner was to be avoided. A more active method of reification was applied, planning the library section of the second floor in Korean traditional style. By recycling various materials saved from the old house that used to sit on this site, the project was bestowed with an additional value of representation going beyond the scale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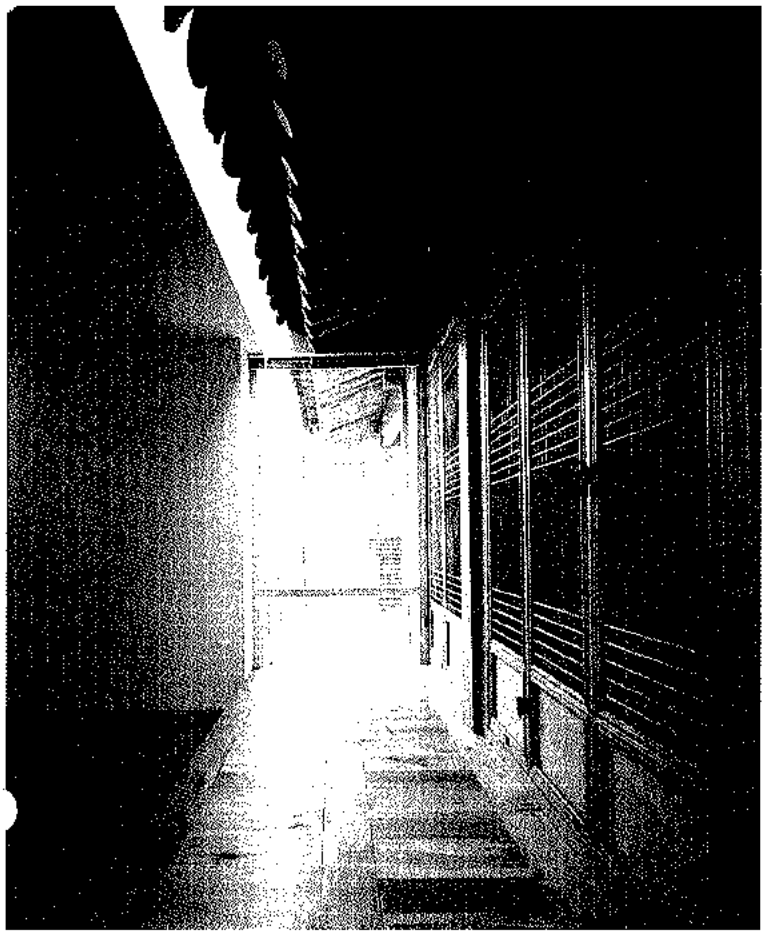
The contrasting concept of tradition and the modern was fluently incorporated into the spatial hierarchy of the house, which was manifested in its circulation planning. Within the overall layout, the traditional house was placed on the visual core. Though it does not serve a strong functional purpose, this house occupies the center as the path along the inner court surrounds it. Beyond this formal composition, a communication with other spaces is suggested by its connection to Anbang - one of the master bedrooms - whose image is linked all the way to the traditional cabinet and the bed.

The wood-floored parlor of the house features the mixture between the urban landscape as a background and the traditional image in the interior, and supplies an openness that is often missed in such court-centered plan. This space is also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events, and the outdoor stairway connected to it is sort of a buffer zone, as one begins to approach it from the inner court only to be exposed to the street along its way, led by the red bricks of the wall. As our traditional housings have strong lines, materiality and color, cement panels of gray tone were used in the modern portion, while a horizontal linear element connected the two parts. The court was covered with a transparent curtain wall.

With future modifications in mind, steel structure was chosen for the interior space, which was designed with si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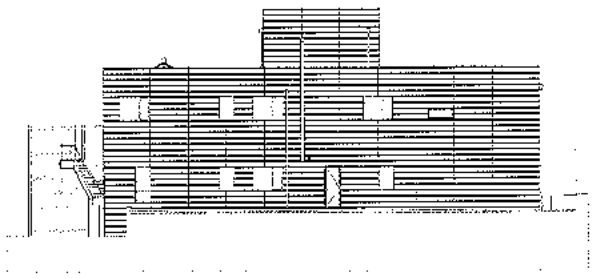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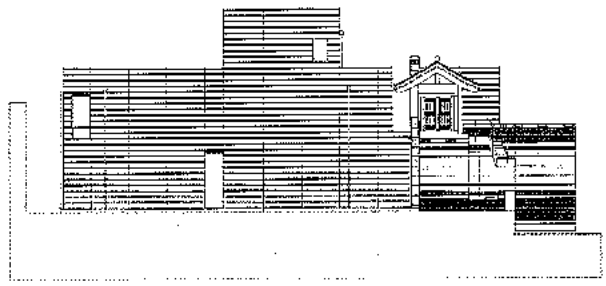


colors and details to fulfill its role as a background for the various works of art it will exhibit. I believe it was the right choice of using the traditional housing style in this project, in respect to its functional and stylistic dem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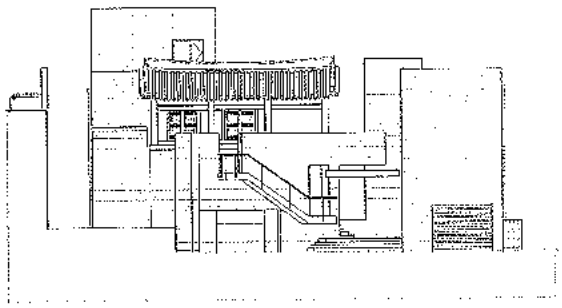
Location	129-1 Kahoi-dong, Chongro-gu, Seoul
Area Specification	Residential Area, Aesthetically Controlled District Height Controlled District
Site Area	540.2m²
Building Area	288.97m²
Total Floor Area	526.86m²
Building Coverage Ratio	53.49%
Gross Floor Ratio	97.53%
Function	Residence and exhibition facility
Structure	Steel structure with partial wood structure
Size	two story building
Interior Finishing	VP painting over two layers of THK9+12 gypsum board
Exterior Finishing	THK50 base panel, stone masonry, T18 double glass
Architect in Charge of Design	Byun Moon-soo
Structural Engineering	Nara Engineering
Electric Installations	Shinwon Electrics
Mechanical Installations	Saeah Engineering
Construction	Hong Song-won
Client	Hong Song-won
Photographs	Lee Jae-sung
Design Period	May 1998 - Sep 1999
Construction Period	Oct 1999 - Sep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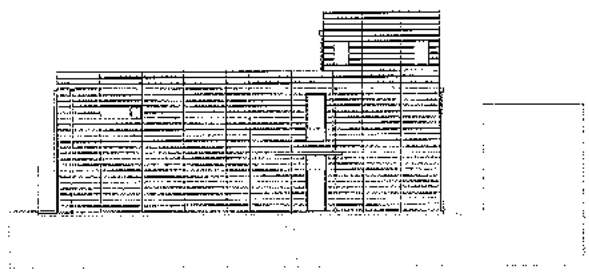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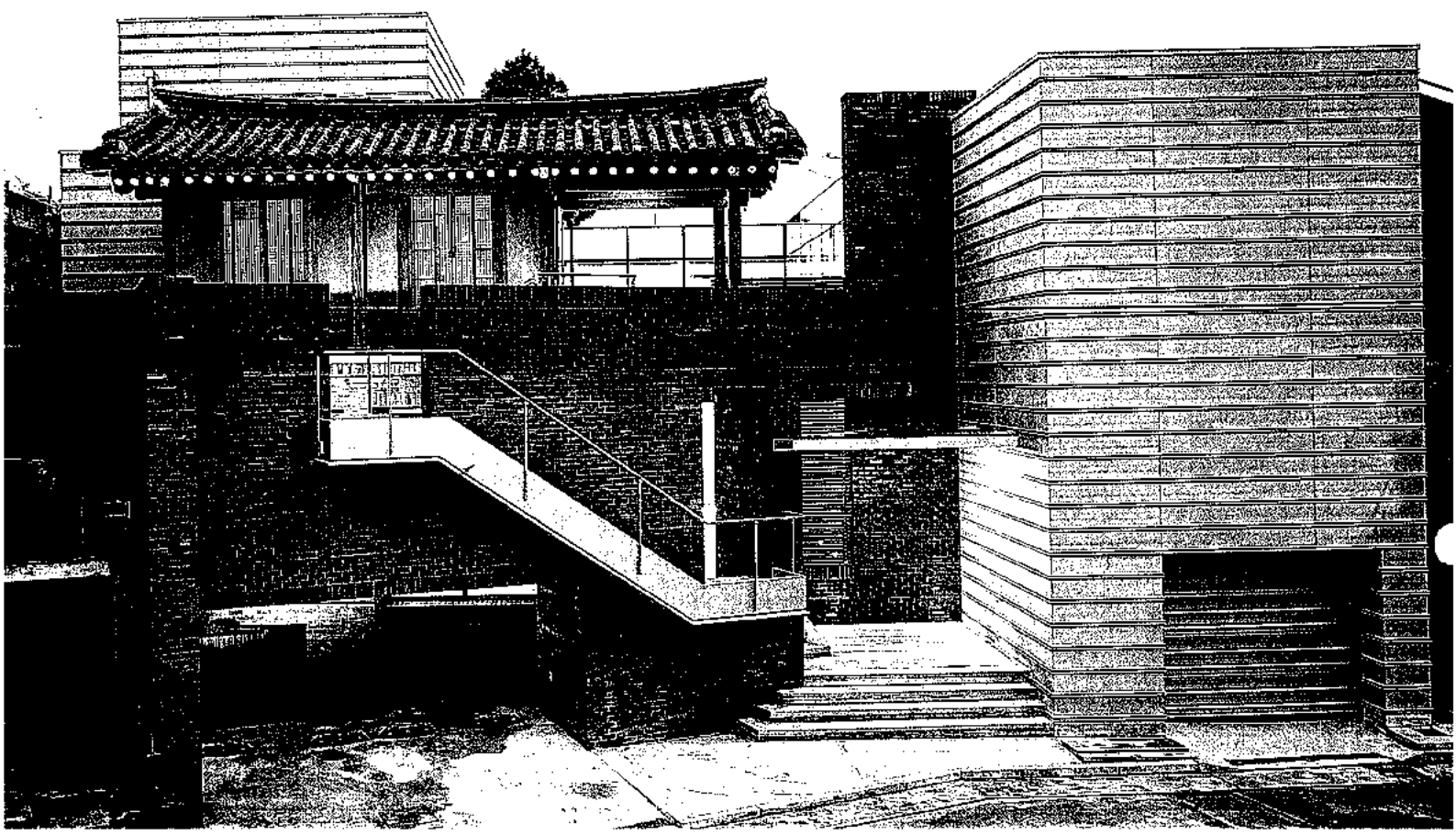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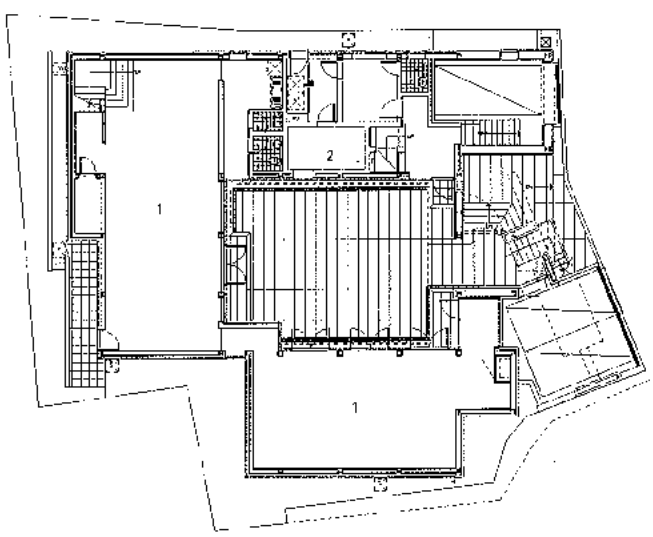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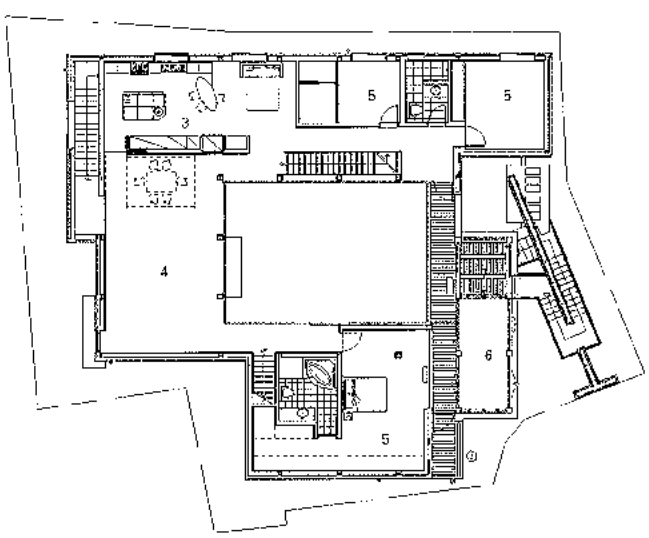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1. 전시실
2. 기계실
3. 부엌
4. 거실
5. 침실
6. 서재
7. 누마루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축의 내재적 컨텍스트

Internal Contexts of Architecture

건축사 / 유태용(테제건축)
대담자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일시 / 200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테제건축

대담광경 (왼쪽:김봉렬, 오른쪽:유태용)

김봉렬____몇 년 전까지 전통한옥 보존지구였던 가회동은 서울의 몇 안 되는 역사환경 지역이면서, 건축가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환기시켜온 곳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태용소장께서 새로운 주택과 갤러리를 설계하셨는데, 서미갤러리에 대해 건축주가 요구했던 바와 기존의 건축적 상황, 그리고 계획 당시의 주안점 등 작업 경위를 설명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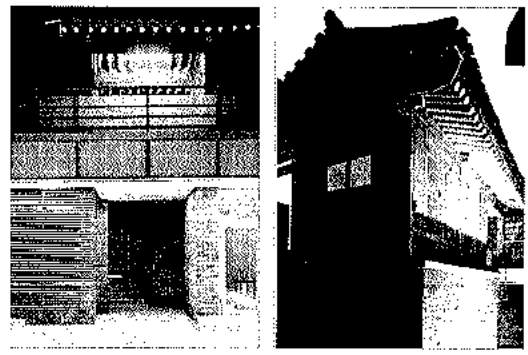
유태용____서미갤러리의 건축주와는 창조건축에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IMF 관리체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였고, 사무실 기능을 포함한 주택 건물을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를 주문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김봉렬____그런 최저 조건으로 인한 건축주와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실제 공사비는 5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유태용____마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IMF시절을 지나면서 건축주는 더 개선된 건축환경을 원하게 되었고, 가회동이란 지역의 장소성과 주변의 경복궁 일대의 화랑가를 고려하게 되어 좀 더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은 공기 때문에 설계하지 않았고, 철골조에 노출 시멘트 블록 마감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몇년전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새로 개발했던 두 가지 색이 혼합된 노출 시멘트 블록을(기존 노출 시멘트 블럭과 색상, 단면이 다르고 가격도 일반 벽돌보다 저렴)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설계 진행과정에서 구청 협의 중에 도시미관 심의지침사항 적용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지침 내용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경사지붕의 적용이었습니다. 건축주가 평지붕 건물을 선호한 것도 이유지만, 10:3의 기울기의 경사지붕을 'ㄷ' 형태의 건물에 요구하는 것이 더욱 힘든 문제여서 한옥을 직접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성북동의 한 프로젝트에서 한옥과 현시대적인 건물을 직접 병립하여 설계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변에 한옥과 병행된 전벽돌 벽을 배치하고, 'ㄷ' 자 중정형태의 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설계의 관점은 후에 필지를 구입하여 확장했을때의 고려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인접한 그 필지와 후면의 한옥을 포함한 작은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봉렬____이 건축물은 비록 '갤러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주된 용도는 2층의 주택과 1층의 사무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용도상의 정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태용____처음에는 '갤러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일하는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습니다. 후에 건축주가 갤러리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지를 살펴보면 뒷집은 한옥이고 옆은 축대, 앞에는 조그만 과일가게였는데, 가회동 주변의 외부 컨텍스트에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재적 컨텍스트(internal context)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이 목표는 저의 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재적 컨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과는 의미가 다른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내재적 컨텍스트는 정서적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내어 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봉렬____이 건물이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이트가 한옥지구라는 점과, 거기에 맞춰 의도를 하셨든 아니든, 전면에 한옥을 등장시키고 기존 도시 한옥이 가졌던 중정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들일 겁니다. 대지를 처음 접하고 가졌던 초기의 이미지랄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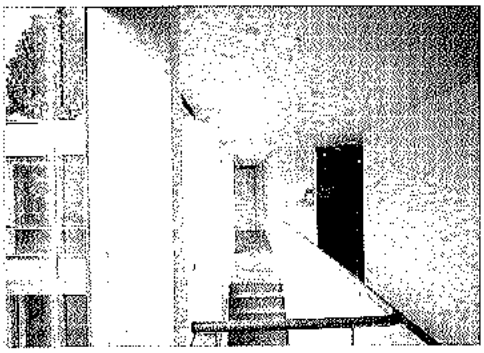
유태용____처음부터 한옥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높은 축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남동에서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길 기억나시죠. 종묘 쪽은 지반이 높기 때문에 석축이 아주 높게 쌓여 있고 창경궁 쪽은 담이 낮게 쌓여 있는데, 그 높은 석축이나 담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거리를 지나면 옛날에 그 길을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휴먼 스케일을 얘기할 때 낮고 다정하고 친근한 것을 말하는데, 어떨 땐 이런 침묵의 석축 같은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대지를 감싸는 석축과 담에는 어떤 건축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봉렬____한옥지구라는 것에 대한 중압감, 건축적 전통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갈등은 별로 없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태용____한옥지구에 대한 중압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근처를 다녔던 기억들은 한옥지구라는 환경이 중압감보다는 오히려 더 편한 작업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봉렬____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복합적 용도와 대조적 재료의 표현 등,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결국 중정이 이 건물의 datum이 되어 다양한 용도와 형태를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시한옥의 중정 공간을 재현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어색해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의식을 안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건축적 타입으로서 하나의 중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 기호로서 만들어진 중정인데, 기능이나 공간적 성격이 모호하게 보입니다. 내부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중정 자체가 하나의 비어있는 오브제가 되어 대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태용____흔히들 공공성을 위협하는 상업적인 건물의 폭력성을 많이 비판하지만, 개념에 의한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통 건축의 현재성' 이나 '중정의 의미' 등의 건축적 개념 보다, '이 건물에 어떤 충만한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의 가족관계나 기억들이 투영되는 정서가 다양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건축적 개념이 디자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러한 개념이 디자인 행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설계작업에서 중정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일자 건물이나 ㄴ자 건물 뒤쪽에 마당을 내놓는 경우 정도밖에 남는 가능성이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모든 외부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점을 흡수하고, 나쁜 점을 보완하려다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정의 필요



성이 있다면 옆에 두 개의 주택을 나중에 구입하여 확장하였을 때 비어있는 중심적 공간의 역할으로서일 것입니다.더욱이 한옥이, 특히 1층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세워질 때 중정과 같은 비어있는 공간 없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김봉렬____직설적인 한옥의 형태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현재 우리 건축계의 분위기입니다. 서미갤러리에서 결과적으로 한옥이 재현되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한옥을 거리낌없이 재현한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이겠지만, 대상으로서 이 건물을 띄우려고 한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같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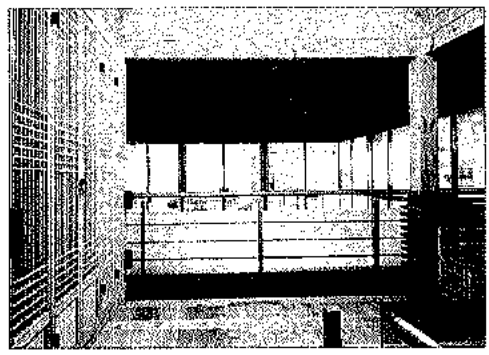
유태용____한국에서 사는 건축가에게 한국성이란 풀지 못한 숙제 같이 되어있죠. 사실, 이 문제를 자유롭게 넘나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팀은 그래요, '자꾸 한옥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는 거지요. 결국 한옥이라 구분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죽어있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는 거죠.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실제로 지어졌다면, 전략적이든 개념적이든 간에, 보기 괜찮고 사용하기 괜찮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측면 1칸, 정면 3칸이면 이게 사당이지, 주택은 아니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봉렬____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밖에서도 한옥의 형태가 강하게 인식되지만, 특히 중정 쪽에서 봤을 때, 한옥이 하나의 대상물(object)로 부각되는데,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도시한옥과 상관없다고는 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한옥들의 질서를 보면 형태가 부각되는게 아니라 스크린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공간, 마당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벽면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서미갤러리는 가회동 한옥군에 대해 다분히 표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용____건축가가 도시적으로 해석하는 한옥이란 일반적으로 도심 한옥과 한옥 사이의 조그만 길이라든가, 한옥 안의 마당, 담 너머 보이는 옆집의 한옥, 질서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여기다가 한옥을 그런 식으로 구현했으면, 오히려 한옥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전면에 한옥을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갖고 싶어하는 자기 건물의 성격은 분명하게 있었고, 이러한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과의 사이에 어떤 전위적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옥의 외부적 표현 보다는 내부에서 보는 한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할 지도 몰라요. 내부에 유리를 단순하게 사용한 것도 사실은 주변을 배경화 하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한옥 모습이라든가, 내부에서 보는 측백나무 등과의 관계를 맺어 주고 싶었습니다.

김봉렬____베이스 패널을 뒤집어서 사용하신 점 등을 보면 재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태용____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디자인 실장이 베이스패널 sample 단면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뒷면이 더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



요. 왜냐하면 부인은 앞, 뒷면을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결된 거지요. 그 색상이나 톤 자체는 건축주가 좋아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재료나 공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꼭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건축가들이 이런 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재료산업은 발전이 없고, 경제적이고 좋은 재료들을 개발할 수 없겠지요. 그런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을 새롭게 보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지요.

김봉렬____수공예적인 한옥의 재료와 커튼월 시스템 같은 공업적인 재료를 중정에서 동시에 병치 하셨는데, 한옥지붕과 본체가 만나는 부분, 지붕의 경사에 접합되는 부분 등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다른 합리적인 분리방법들을 제쳐두고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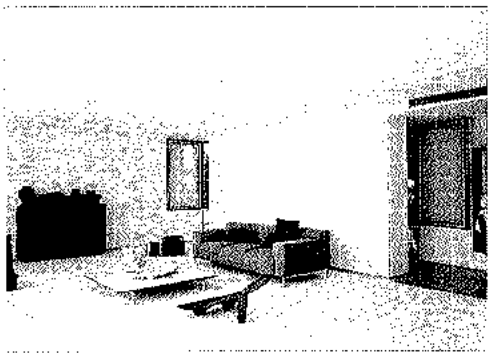
유태용____우선 중정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기능적인 것만 남기고,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옥을 연구하시는 분이 한옥은 정말 하이테크적인 건축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하이테크의 근본은 제가 보기에 장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하이테크라 한다면, 그건 재료나 기계적 표현을 말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디테일이나, 구성하는 방식에 정교한 장인적 속성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한옥이라는 것 자체의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한옥이 너무 강한 오브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김봉렬____내부를 백색의 모노톤으로 마감하셨는데, 무난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밖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혼용들, 다양한 재료들이 병치되고 있는 상황을 내부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니멀한 경향도 역시 건축주의 요구입니까?

유태용____그건 아니었어요. 건축주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벽면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공간의 재료에 외부재료가 굳이 스며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봉렬____내부 동선의 순화적 처리라든가 내부에 차경되는 외부의 수법들에서 동시대적 경향을 읽는다면, 내부의 구성을 끌고 나가는 톤은 전시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밖에서 보여주셨던 병치의 수법들이 오피스나 갤러리나 주택 안에서 특성화되어 나타났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중정은 아늑하다기 보다는 지배적인 공간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마도 커튼월로 조작된 완벽한 인공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옥을 정점의 강조점으로 부각시켜서, 아까 침묵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서미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이 침묵 등으로 상징화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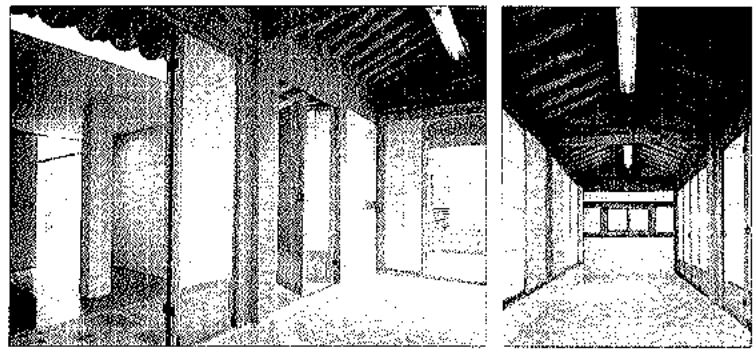
유태용____사실은 이 중정을 뒤에 있는 한옥하고 연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앞의 두 집을 구입해서, 두 집과 중정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레이어들이 생기는 걸 구상했어요. 그래서 입구쪽이 반외부공간이 되고 들어오면 한옥이 있고, 낮은 측벽에 나무가 있고 그런



관계성을 가지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뒷 잡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실용적으로 쓰자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건축주에게 중정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중정을 건너가는 길만 남기고 물로 다 채웠으면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퍽 공감을 했지만 보류하자고 했지요. 지금도 그 시도의 흔적이 있는데, 중정 주변 벽 밑에 간접 조명이 있고, 배수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주는 이 건물에서의 중정을 비어있는 조각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중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걸 구성해 주는 것이 한옥과 커튼 월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시한옥에서의 중정과는 다른 거죠. 여기서 중정이라는 것이 안방, 건넌방에 열려있고, 장독대도 있고, 거기서 빨래도 하는 이런 개념의 중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오히려 1층에 자리잡은 갤러리에 속해있는 스페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택에서는 그걸 사용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중정이 비어있음으로하여 외부의 공간과 내부의 시선 모두 포용하는 충만한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봉렬____이 작품에서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나 발표하신 글들을 보면 작업을 하시는 태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사옥이 하이테크적인 흉내를 내는 형태가 아니라고 부정하셨고, 서미갤러리는 자칫 잘못하면 8,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경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지, '프로젝트 진행상 이렇게 된 것이다, 혹은 컨텍스트나 건축주의 뜻에 의한 결과다'라는 말씀들은 기존의 유명 건축가들한테서는 보기 드문, 소박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건축가의 두 가지 자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서비스맨-아주 전문적인 실력을 가졌지만 건축주나 땅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매 작품마다 경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맨으로서의 태도하고, 또 어떤 사항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건축주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티스트로서, 전위적 실험가로서의 건축가의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소장님은 전자에 속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아도 되나요?

유태용____굳이 말한다면 저는 프로젝트와 건축주의 요구에 충실한 작업가입니다. 나는 제도판에서 일하다 죽겠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건축을 그만두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나,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목표 중의 하납니다. 저에게도 건축이 큰 시련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졸업, 유학, 실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인데, 한국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한국성이란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건축가가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을까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것을 수용할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지요. 건축의 사회적인 역할, 예를 들면 근대주의처럼 건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 같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건축은 몽타쥬 작업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얘기하자면, 어떤 불연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연속적인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스스



로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3년간 진통을 겪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3년간을 제 몸에 남아있는 한국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건축적인 한국성에 대해 고민했던 시기를 보내고 나니, 그 이후로는 작업할 때 한옥이 되든, 스테인레스 스틸이 되든, 뭐가 되든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김봉렬____유소장님께서 부정하실 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캐리어와 위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30대나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40대의 건축가가 드문 편입니다. 또 제대로 활동하는 40대 이상의 건축가들을 보면 초기부터 독립 아뜰리에를 운영하면서 성장해 온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은 창조라는 대조직에서 활동하시다가,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소위 '구멍가게'를 차리신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또, 지금 말씀 중에 담론을 거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들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 '약한 건축' 이라든가 '일상성의 건축' 이라는 그런 담론들이거든요. 강력한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컨셉을 거부하고 좀 소프트하고 따뜻하고, 인간 본위적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후배들이나, 건축계에 당당하게 말씀해주셔서 다른 방향의 건축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건축계의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간직하실 연배는 아니시라는 거죠. 본인은 개인 작업에 충실하고 또 다른 이상이 있으셔서 빨리 건축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유태용____대조직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했어요.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작업 자체는 큰 규모나 작은 규모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조직 설계회사가 외국 설계사의 국내 허가방이라는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으레 상업적 건축을 한다고 비판받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건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주를 건축의 세계로 이끄는 작업, 다시 말하면 (부단한 노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노동조합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는)그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형 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뜰리에 건축가들도 어떤 맥락에서는 고마워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질문하신 내용 중 건축의 담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와 유리된 건축계 내부만의 담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화 되지 못하는 건축 자체만을 위한 담론보다는 사회에서 부딪치는 실질적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건축가가 겸허한 자세로 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좋은 건물의 이야기 거리가 참된 담론이지 않을까요?

김봉렬____그런 상황을 뚫고서 뭔가를 해 보시려고 할 때 어떤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태용____열심히 일 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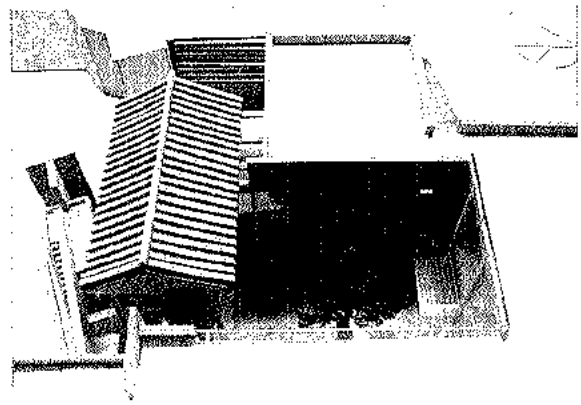
김봉렬____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신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건축계에 대해서 발언도 하시고 지도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서미갤러리
Seomi Gallery

비평 critique

이 생뚱스러움!
What an Unexpectedness!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un



서미갤러리 모형

건축가 유태용.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만나고, 그래서 급기야 그의 작품들을 살펴본 일련의 과정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늘 익숙하던 길을 걷듯, 그가, 그리고 그의 작품이 좋고 편안하다. 왠가? 대답하기 힘들다.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는 버클리에서 M.ARCH를 마치고 현지에서 5년 여간 실무를 쌓으며 AIA를 딴 후, 우리나라에서 10년간 꼬박 창조건축이라는 거대 설계집단 디자이너로 일해 왔다. 그런데, 그는 여지껏 나에게 그리고 우리 건축사회에 아직 낯이 설다. 그렇다고 또, 그가 관통해 온 세월들을 보건대, 그리고 그가 작업해 온 성과들을 두고 판단컨대, 그에게 신인이라는 언어를 들이밀기에는 적절치 않은 듯 하다.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그는, 우리건축의 리딩그룹을 형성하는 이들에 비해 전혀 손색없고 또 충분히 원숙하며, 어쩌면 그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같다. 그가 이제 출현한 것은 그러니, 지금껏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속단할 수밖에 없다. 혹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저어하는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가 이번에 자신의 작품들을 우리

I have not known architect Yoo Tea-yong - it was only recent that I heard of his name and got to meet him, and finally came to know his works. Yet he and his works, from reasons unknown to myself at this moment, have a quality of intimacy. The buildings by this architect, a graduate of Berkeley who had worked in the US for five years as AIA before returning to Korea to execute further practice at a major design firm Changjo Architects for the last 10 years, never fail to provide us with a sense of comfort. We are largely unacquainted with Yoo but still he - with all the works created from the last decade - doesn't seem to fit with the characterization as a 'newcomer.' In the least, he himself has as much quality as an architect as any other established designers of our architectural society. How such a competent architect has only now emerged on the horizon remains to be a problem of chance or his preference to stay below the radar, but it is certain his fresh vision of architecture will provide an occasion for our architectural circle to reflect on itself. His recent work, Seomi Gallery, is one with outstanding details and innovative form, incorporating the different worlds of house and gallery, tradition and the modern. It attracts our cerebral attention and instigates debate. But, as in other cases, to comprehend the work in its total in this short essay is out of the question - I do not believe that is the object of a criticism. Instead, I will look into its features that excited both my body and soul, its many layers of architectural meaning, and through them, I may be able to express some stories of architecture within myself.

It all begins with the 'unexpectedness' of Seomi Gallery. The tension inside my body is stirred up by the immediacy, contrast and juxtaposition of one and the other that flows within it. Seomi Gallery has the unexpectedness that discovered such flow in bulk. To analyze its images from various directions, I would like to bring out the vocabularies of Gaston Bachelard, the metaphysician of the imagination. He had mentioned that the imaginative force of our mind essentially stems from two axes - one of enjoying the unexpected that enables a transcendence upon the new, and the other of digging into the bases of one's existence and simultaneously

앞에 내민 것은, 우리 건축계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를 의미 있게 자극하는 소중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서미 …' 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거의 완벽한 디테일과 탄탄한 조형성을 토대로, 집과 갤러리라는 두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과 현대라는 두 다른 세계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까닭으로, 적지 않은 지적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기서 깡그리 파고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평행위 또한 그러함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는, '서미 …' 가 담지하고 있는 많은 건축 차원과 질들 중, 유독 나의 몸을 긴장시키고 나의 정신을 이완시킨 내력을 더듬어내기를 희망하며, 그래서 무언가 나의 건축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이야기는 '서미 …' 의 생뚱같음에서 시작하자. 내몸의 팽팽함은, 그 안에 흐르는 이것과 저것간의 급박함이며, 격렬한 부딪힘이며, 그래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병치에서 생생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흐름들을 채로 쳐 발견한 생뚱스러움. 그 상들을 이모저모로 뜯어보기 위해, 상상력의 형이상학자 가스똥 바슐라르의 언어들을 뒤져본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정신에서 비롯하는 상상하는 힘(imagination)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축 위에서 전개하는데, 하나는 새로움 앞에서 비약을 모색하도록 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즐김이요, 다른 하나는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원초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동시에 찾아 나서게 한다고. 그런데, 이름하여 형식적 상상력이라 하는 전자와 물질적 상상력이라 일컫는 후자는 피차 분리할 수 없이 엉겨있다. 그래서, 상상을 잉태하는 이미지(image)는, 하늘과 땅 곧 형식과 물질을 먹고 자라는 하나의 식물일 수밖에. '서미 …' 의 생뚱같음 또한 그럴지 모른다. 거기에는 예기치 않은 즐거운 사건이 발생하고, 무언지 모를 근원에 대한 향수가 일어난다.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은 성문(城門). 성문 위에 올라선 살림집. 집은 하나의 성(城)이라 했다. 그렇다면, 성문, 그 안에 자리잡은 것은 추상(抽象) 혹은 부재(不在)의 성인가? 그래도 우리는 눈의 지각을 좀체 탈각할 수 없다. 허니, 집 어디에선들 우리는 그 성문을 은유하는 기표로부터, 아니 성의 육체를 이루는 한옥의 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있는 이곳은, 저곳으로 인해 비로소 성이 된다. 그것이 굳건한 대문이든, 혹은 단단한 성문이든, 혹은 전통의 카리스마든, 철저한 보호와 안식을 우리의 마음이 보증하는 것은 그 경계 덕이다. 바깥에 가장 가까이 있되, 집 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 (집밖에서 단번에 거기에 이르려면, 거기를 점하는 사람이

finding a primitive, perpetual value. They are respectively named formal imagination and physical imagination, but in fact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beyond division. Hence the image that gives birth to imagination is like a plant that feeds on heaven and earth, or form and substance. The unexpectedness one feels from Seomi Gallery may be similar, as it provides us with happy accidents as well as a nostalgia towards the unknown origin.

There is a castle gate in the middle of this village, and a residence tops that gate. A house is often compared to a castle. Therefore, one that sits inside the castle gate may be a castle of abstraction or that of non-existence. Our eyes and the vision it provides, however, discourage us from such exuviations. We are bound, in every inch of the house, with the signifier that symbolizes the castle gate, the image of traditional housing that forms the body of the castle. 'Here' - the very spot I stand on - becomes the castle only because 'there' is not. Whether it is a strong door, a firm gate, or the charisma of tradition, it is because of the border that our heart may ensures us of security and rest. It is a place that is closest to the outside, and is most distanced from the interior of the house. (In order to reach the place directly from outside the house, a person that occupies the place must first open its lock. And to approach the place from inside, one must turn 180 degrees either around one's left arm, or one's right arm but only with going outside once again wearing one's shoes and then enter at another spot.) A place that seems so close can only be reached at such distance! Hence our thoughts cannot step aside from the path that connects this place and the other. One cannot neglect the other for a single moment, and, at the same time, may not leave this place. In its barren mindscape, the traditional housing exists on its own. It protects itself with the air on one side, and with light on the other. Bound within a single body, yet separated at such length, it features a distance that utterly resistant to reduction.

Such may be the true character of a castle. Protective against - or even hostile to - the outside, it also has to have layers of hierarchy in the inside. This is also true of Seomi Gallery, which displays all the features of this world. As we open the

먼저 빗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집안에 들어서서 거기에 가려면, 왼팔을 축으로 삼아 한 바퀴 빙 돌든지, 혹은 오른팔을 축으로 하되 벗었던 신발을 다시 챙겨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야 한다). 막 손에 잡을 듯 한 그곳이 이리도 먼 곳에 있다니! 그러므로 사유는 반드시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길목을 비켜설 수 없다. 잠시도 저곳을 망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시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 황망함! 마음이 그러하듯, 한옥은 오직 홀로 떨어져 있다. 한쪽으로는 공기로, 또 한쪽으로는 빛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 한 몸을 이루되, 저리도 떨어져 있는, 범접을 물리치는 힘! 도무지 줄일 수 없는 거리!

성이란 본디 그런 것이던가. 바깥세상에는 철저히 방어적(혹은 적대적)이면서, 안으로는 여러 단계(혹은 위계)를 두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서미 …'도 그러한가? 여기서 세상을 보기는 그만이다. 이 문, 저 문을 열어제치면, 집 바깥의 풍광이 서스럼없이 들어온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흐르되, 남는 것은 오직 그 흐름을 담는 이곳 허체뿐. 바람이여 빛이여, 그리고 모든 주변 것들이여. 소리없이 나의 몸을 관통하라. 그러므로 나의 몸 또한 허체. 그러나, 어찌 하랴. 이 둘레에 머무는 이들이여, 그대 눈에는 삭막하디 삭막한, 회색 덩어리들뿐이니. 이곳이 바로 성이므로. 성은 자신을 홀로 지키되, 더불어 교직하지 않는 법이므로. 공간의 깊이는 권력의 지표. 보고 보이는 것 또한 그 얼굴. 이 힘들을 어찌 할꼬.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은닉된 철저한 위계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가. '전시'된 공간에는 거래가 오가고, 드러내는 장식에는 과시가 꽈리를 튼다. 성은 그래서 하나의 장소가 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상징이 되었던가. 그것은 갤러리와 집의 습합으로부터 출몰했을 것이 분명하다. 완벽에 가까운 디테일의 기예와 조각같은 장치들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을 마냥 살림집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집을 갤러리로, 갤러리를 집으로? 무수한 인식의 머뭇거림을 요청한다. 이 난삽함!

집은 모든 의미에서 고향이다. 설령 노마돌러지의 세계에서도, 그것은 단지 존재의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고향이다.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모든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집을 짓고 산다. 그런데, 고향은, 다시 바슐라르의 언어를 빌자면, 공간의 넓이라기보다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돌이나 흙이나 바람이나 건조함, 물이나 빛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우리의 몽상을 물질화 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꿈에 적합한 실체를 얻으며,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의 근원적인 색깔을 발견하는 것이다. '서미 …'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우리 고향의 어두운 빛이나 밝은 어둠이 있는가? 울퉁불퉁함과 부

windows of this house so many beautiful sceneries catch out eyes, and as everything flows what is left in this container of the flow is the body of the void. Let all the lights, the winds, and everything that surrounds us penetrate me with impunity. My body then also becomes a void. But to those that dwell on the borders, they can only see the bodies of harsh grays. This is the castle, and the castle by itself and only by itself protects it. The depth of space is the criterion for power, and what we see time after time are the faces of those. What should we do with these powers? Are we only left with the choice of following the strict order disclosed from here to there? Space exhibited is contained with exchanges, while visible decorations are signs of false empowerment. Therefore a castle is our symbol even before it is a place, and it is certain that it has arisen from the dark shades of the gallery and the house. This will also be true of near-perfect details and sculpture-like devices. Therefore we must not view this work as a regular residence. Is it a gallery-like home, or a home-like gallery? It does not permit an easy solution to this obscurity.

A house is our hometown in every respect. Even in the world of nomads, it is still our hometown - it simply has a different way of existence. In movement, in the flow, we still build a house for ourselves. In the words of Bachelard, a hometown is more of a material than an area of space - i.e. it is stone, soil, wind, dryness, water or light. Within them we materialize our dreams and only through them do we gain a substance that suits our dream. Only through our way towards it can we find our true colors. What materials are there that forms Seomi Gallery? Does it have the dark or bright lights from our hometown? Does it have the irregularity, the broken curves, the swinging lines? The sound and the warmth? The risk that manages to protect us from the rain and the wind? The soil that supports the root of a tree whose branches sustain the heaven? Are the rocks solid? Is the wind whirling? Alas, I have been beating the bushes. The secret of this unexpectedness is not to be found in the sphere of forms. Because of the structural freshness produced from the crash between two different worlds, I have been in a state of dreaminess. The invitation to forms has been so strong that I have

러진 곡선들과 휘어진 직선들이 있는가? 바삭거림과 양지가 깃들어 있는가? 한낮 졸음을 받아주는 한가로움이 있는가? 비와 바람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는 위태로움이 있는가? 하늘을 받치는 가냘픈 나무의 뿌리를 묻어줄 한 줌 흙이 있는가? 돌은 단단하고, 또 바람은 우는가? 아뿔사, 나는 생뚱스러움의 비밀을 온통 형식 안에서 더듬거렸구나. 두 이질계의 부딪힘이 생산하는 구조적 새로움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예기치 않은 몽상에 젖게하는 사건에 빠져 있었구나. 여기저기에서 형식의 욕망에 혼미해져, 물질을 파헤칠 정신을 놓치고 말았구나. 도대체 '서미 …' 의 물질은 무엇이던가?

응당 무딘 나의 감성과 거친 나의 사유에 그 탓을 두어야 할 것이나, 이번에는 비평이라는 빌미로, 건축가에게 슬쩍 밀어보자. '서미 …' 의 형식과 물질들의 골구가, 두 다른 세계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閾)이 흐리멍덩하거나 혹은 부재한 까닭이라 탓해보자. 보임으로 존재하는 갤러리와 숨김(은신)으로 성립하는 살림집간의 이질적 습합에서 비롯한다고 해 보자. 그러니까 다시 두 이질적 세계간의 경계 문제를 지목하자는 것이다. 집 바깥과 집 안 사이에 굳게 세운 성문같은 경계를, 정작 집 안에서 벌어지는 수용할 수 없는 타자의 넘나듦에서 무기력하게 한

연유는 왠가? 섞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 때로는 직렬과 병렬 등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듯 싶은 것은 왠가? 혹 형식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닌가? 오직 수평선이라는 모호한 추상만 남긴 채 모든 형상들을 엄정한 산업재료와 기하학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바로 그 성문을 이루는 물질들과 극단적인 대조의 감을 창출하고자 한, 서릿발같은 생각이 여타의 민감한 현상들을 혹 잘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뜰집의 형식 또한 본디 외부에 대한 방어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들, 그것이 바깥세계에 대해 취한 형국은 무척 따뜻하지 않은가? 거기에는 이미 물질성이 풍만하므로, '서미 …' 가 드러내는 생뚱같은 돌연한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품고있는 거의 흠없는 디테일과 살벌한 조형기예가, 물질의 상상, 그래 우리가 호흡하고 부딪히고 만지고 앉는 모든 몸의 움직임들과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냘픈 영혼을 더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어찌 우리 존재의 근원인 고향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도, '서미 …' 는 참 좋은 작품이다. ▣

lost my spirit to look into the materials. Then, what are the materials of Seomi Gallery?

Such failure to come up with any answers is most of all a result of my harsh sensibility and thinking. But abusing the title of a critic, I would like to lay some of the blame on the architect. Lets accuse the builder that the Gallery's obscurity of form and material results from the absence of a medium that connects these two different worlds. A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gallery as visible solid and the house as a void-like hermitage is never resolved, our attention returns once more to the problem of border between the worlds. Why is the firm border of the gate that forcefully disconnects the inside from the outside all of a sudden castrated in the interaction of the other, the uncontainable happenings inside the house? Why is there no concern for what can and cannot be mixed, for the physical and chemical connections, and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rial connection and juxtaposition? Could it be a consequence of the architect's formal obsessions? With only a slightest hi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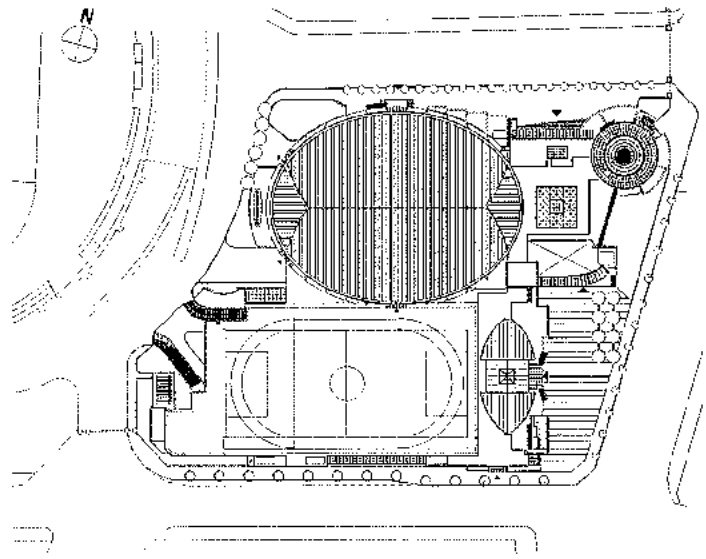
abstraction with the horizontal line, every figures are dealt as strict industrial materials and geometry, as if to create a startling contrast with the materials that construct the castle gate. This may have made irrelevant all the other crucial phenomena. Even when we consider that the form of this house started out as a protective shelter against the outer world, we come to a realization that its stance towards the outside is actually one of warmth - it is filled with materiality. Only when all the happiness of unexpectedness it provides, all the flawless details and precise formal sensibility, and its imagination of materials fail to touch the breathing, caressing movements of our bodies, and the subtle spirit that sits inside them, we finally conclude that it never helped to bring up our hometowns. Nevertheless, Seomi Gallery deserves a praise as a recommendable work.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Anyang Gymnasium & Ice R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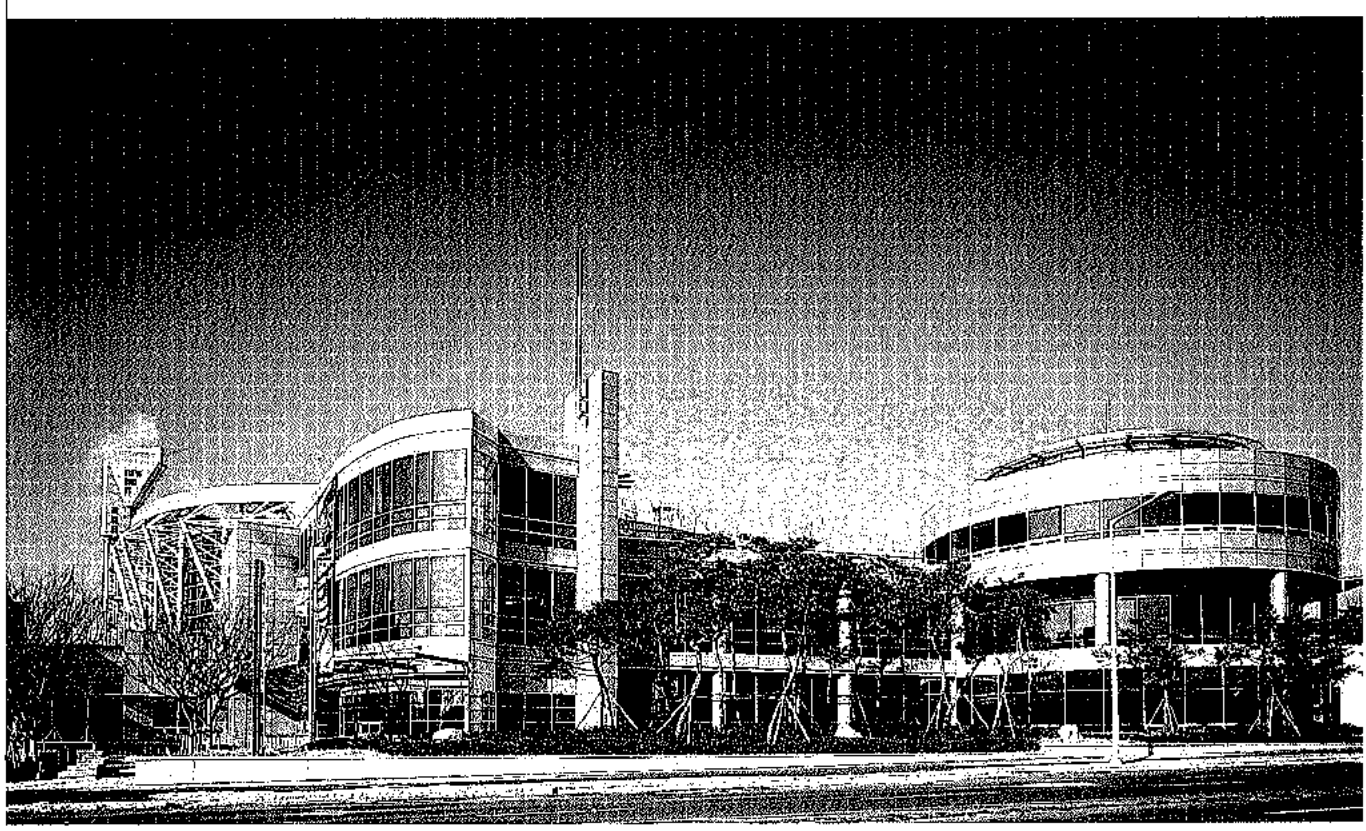
이용호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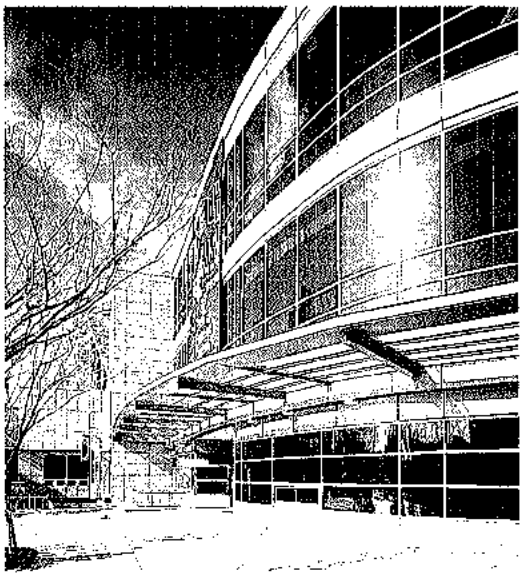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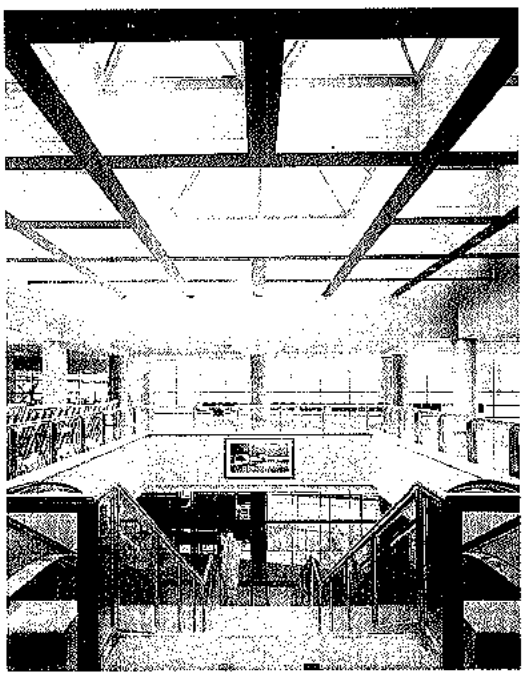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3외 7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운동장)
규모	지하3층, 지상4층
건물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3,360.00㎡
건축면적	13,939.64㎡
연면적	45,231.43㎡
건폐율	59.67 %
용적률	97.38 %
주차대수	692대
조경면적	2,393.94㎡
최고높이	24.43m
외장재	지붕 - A.L유공흡음패널, THK0.9 A.L SHEET
	외벽 - THK3.0 A.L SHEET
사진	채수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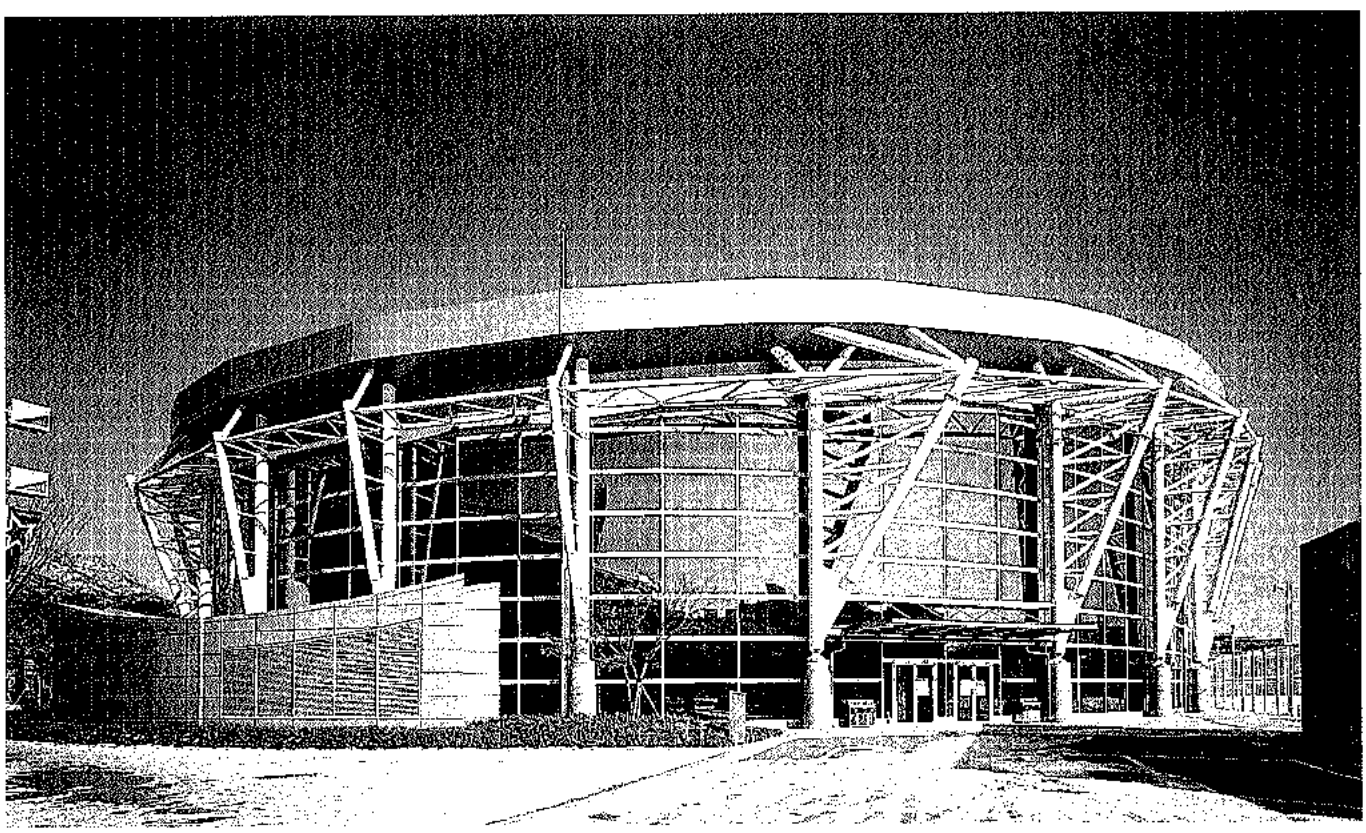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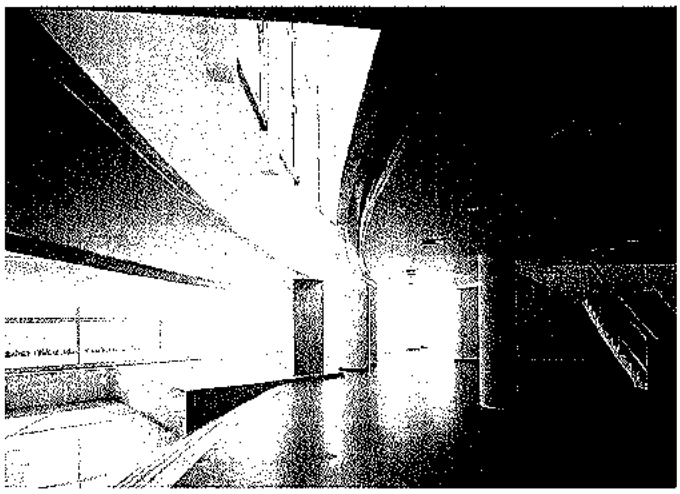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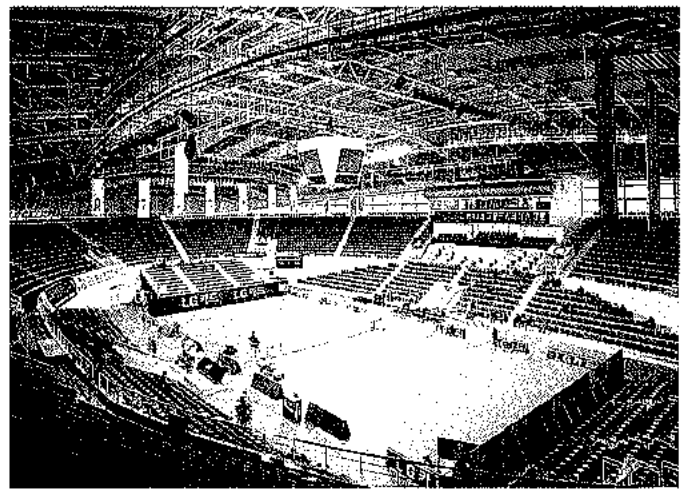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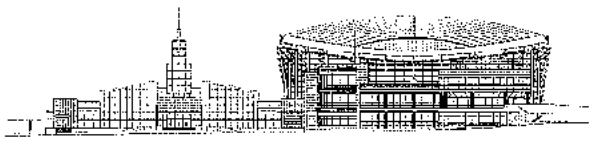
사면이 유리로 마감된 이 인상적인 체육관은 6,690석의 국제규격의 다목적 체육관과 1,284석의 빙상경기장의 기능을 수용한다. 한국전통의 초가집을 형상화시킨 3개의 매스는 외부의 빛과 내부의 빛을 상호관입시켜 도시와 건축과 관중을 일체화시킨다. 평면은 매혹적인 타원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출된 파이프 트러스(Pipe Truss)는 압축과 인장의 미학을 표현한다. 종래의 단조롭고 평이한 체육관 개념을 벗어나 최근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4차원적 빛의 구조물이다.

또한 주경기장, 실내수영장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안양시의 시민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국제 · 국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실내체육관 및 빙상경기장으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위성도시의 특징을 살려 지역사회에 체육공간, 문화공간 및 축제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양시에 대한 시민의 긍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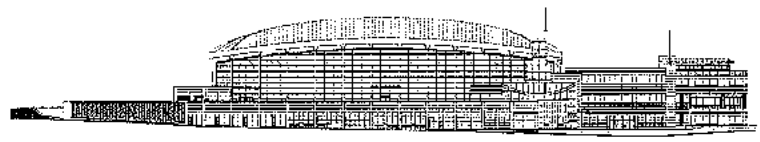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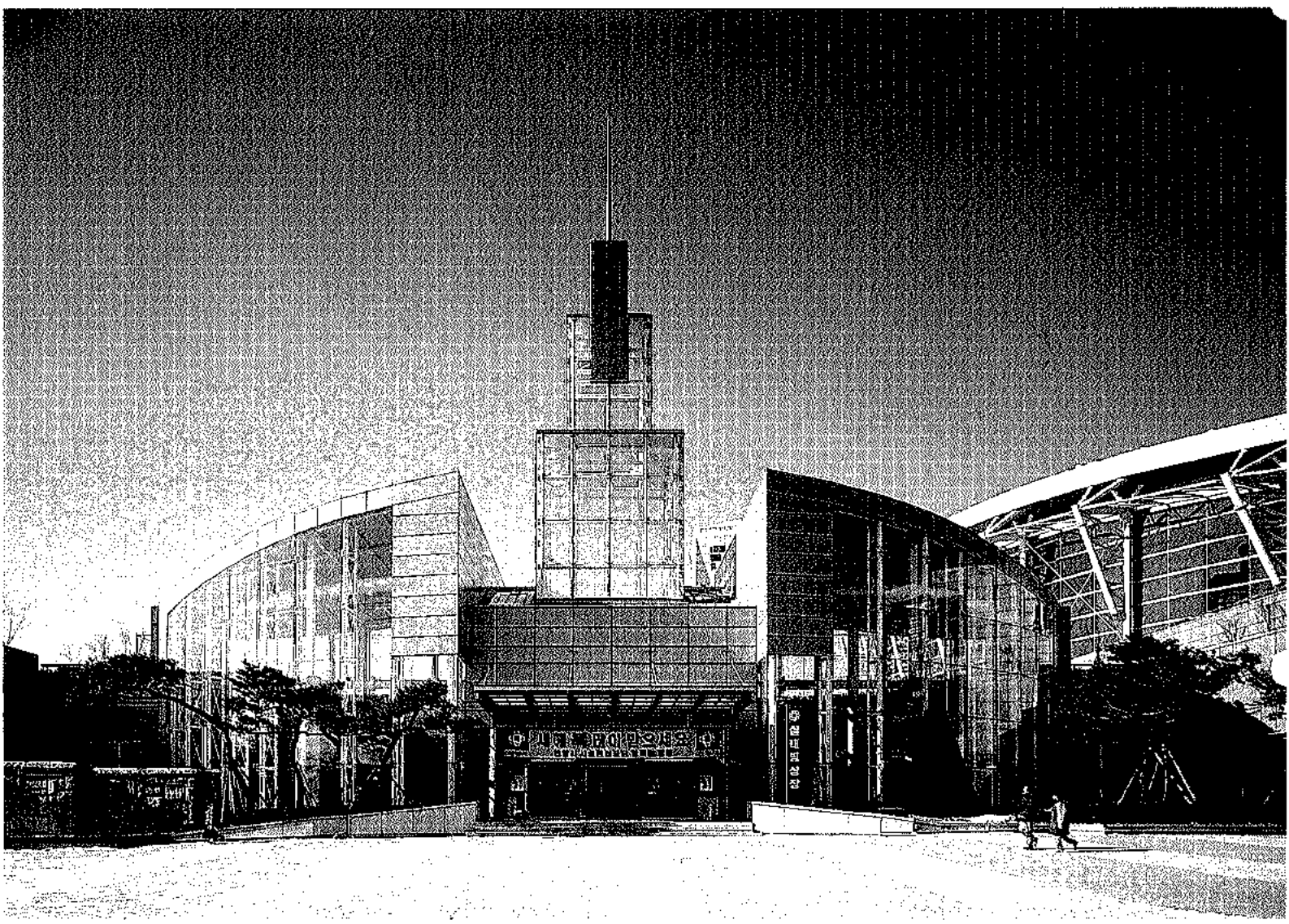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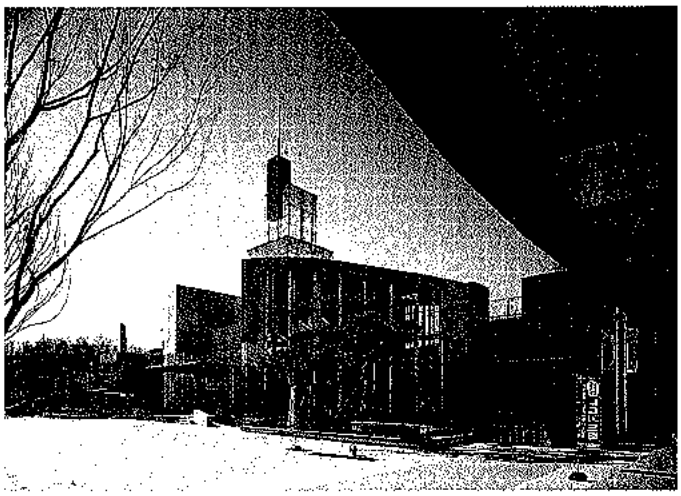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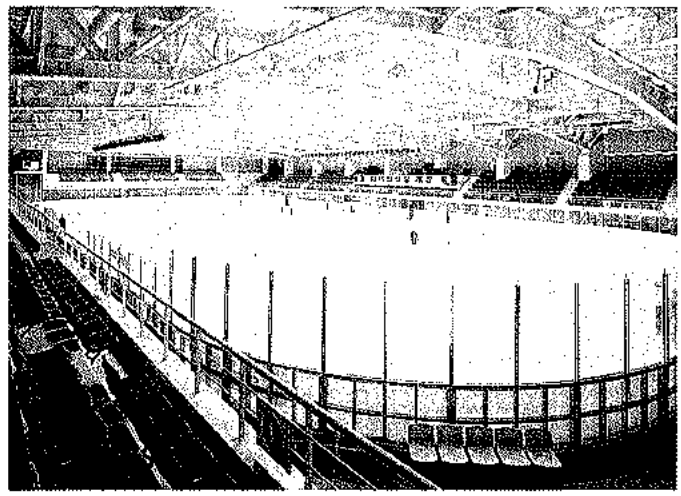
입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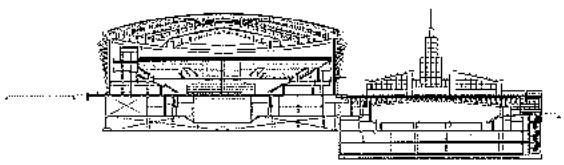


입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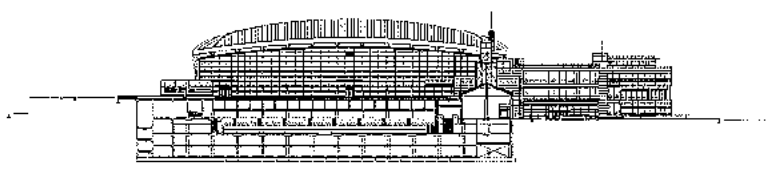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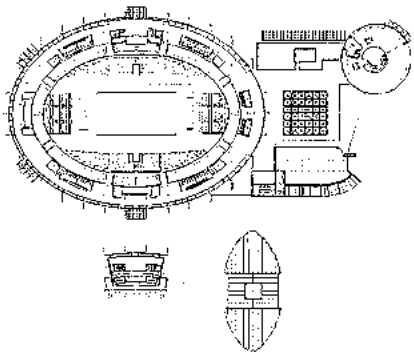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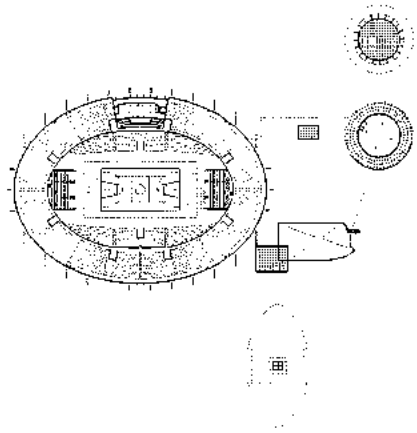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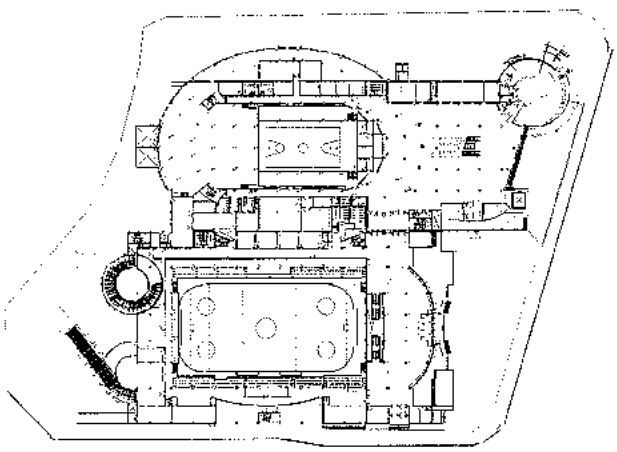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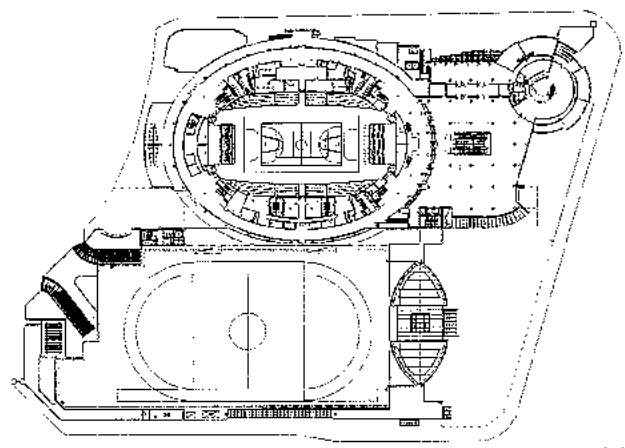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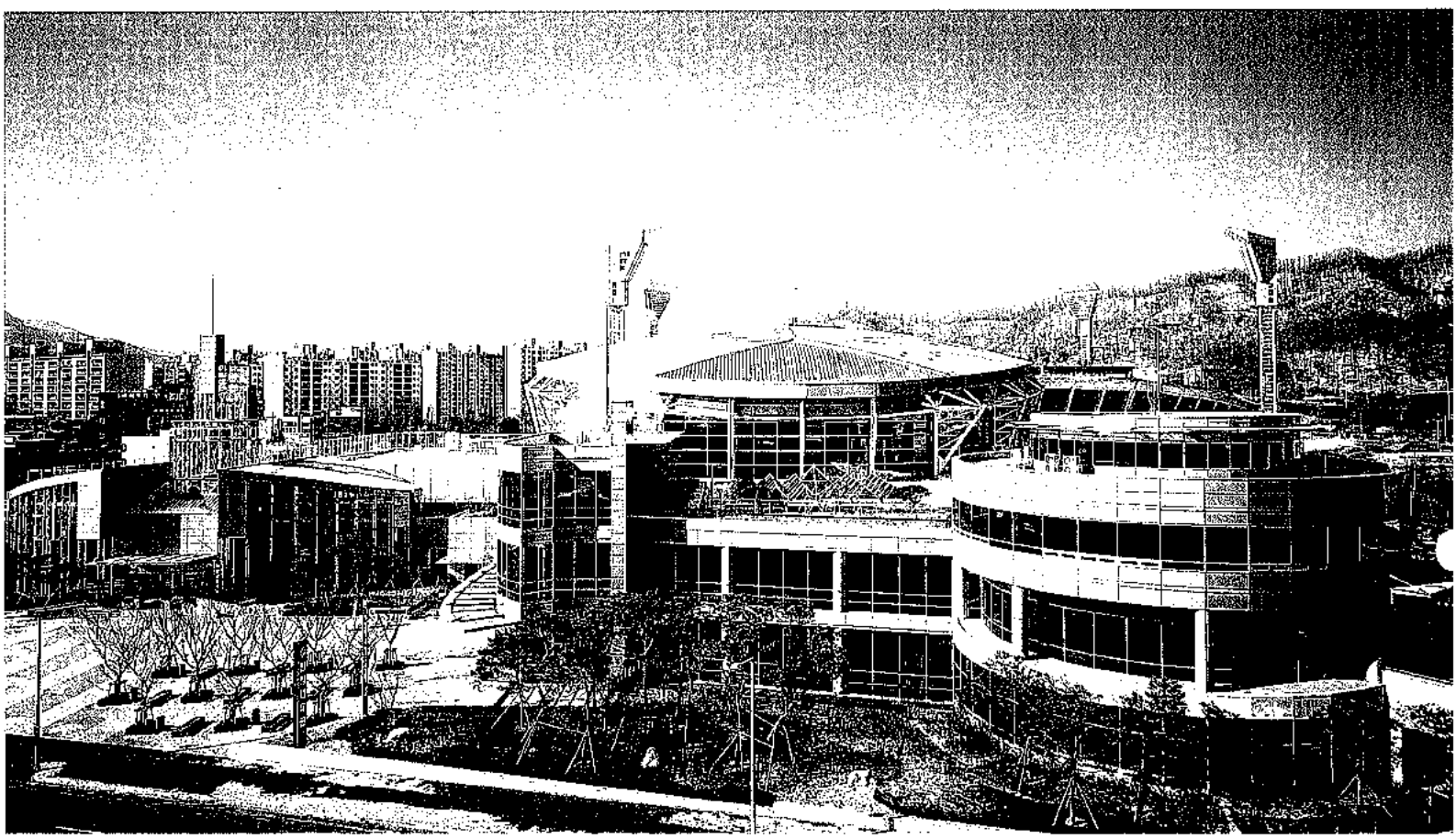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인천광역시 종합관광안내소

Incheon Metropolitan City Tourist Information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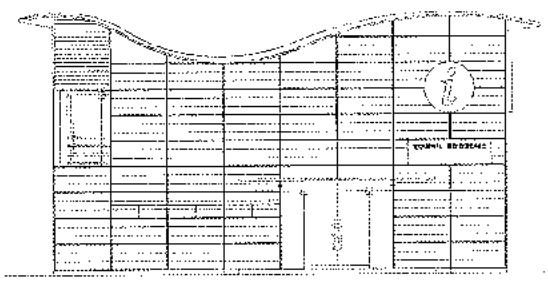
김경택 / 다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Kyung- Tai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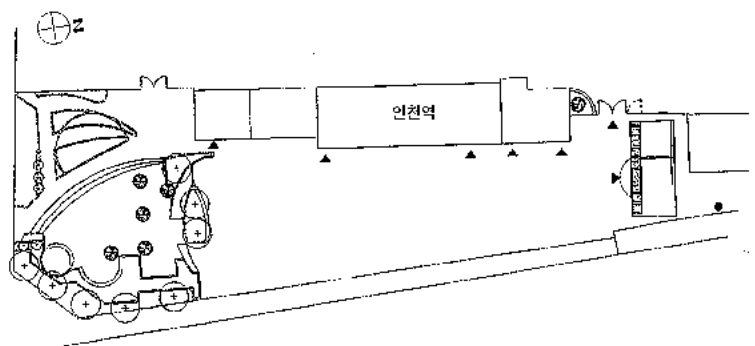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3-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광장
대지면적	1,600㎡
건축면적	81.92㎡
연면적	143.54㎡
건폐율	5.12%
용적률	8.97%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 1층 - 압출성형시멘트판 2층 - 원목마루판(호도나무) 벽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노출콘크리트 천정 1층 - AL천정타일 2층 - 철판 위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폴리메탈패널, 노출콘크리트, THK24 투명복층유리, 지붕 - THK1.2 철판 위 불소수지도장
설계기간	1999. 12. 1 ~ 1999. 1. 20
공사기간	2000. 3. 1 ~ 2000. 8. 31
사진	채수옥

인천역은 1899년 북성동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인철도의 재기공식을 가진 후, 인천 - 노량진간 33.2km 구간의 개통을 봄으로써 우리나라 철도 개통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또한 역 광장에는 수령 80여년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역 광장 한편에 관광안내소가 자리하고 있다. 인천 역에 내려 인천 앞바다 일대의 도서지역인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백령도, 덕적도 등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연안부두, 월미도, 송도, 소래포구 등의 바닷가와 자유공원, 화도진 공원 등 인천시내 각지의 관광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처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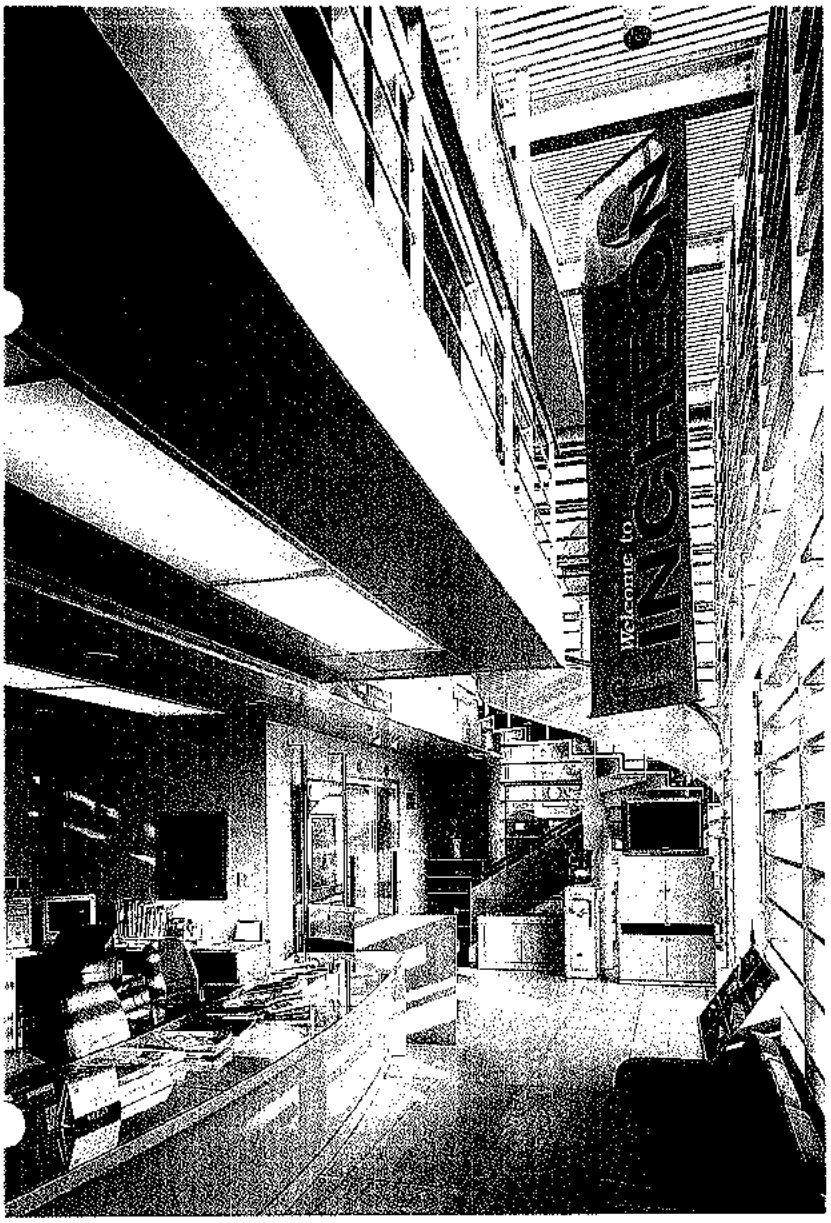
어김없는 관청의 요구사항인 상징성(파도, 갈매기)… 그리고 인천시에서 철도청 소유의 땅을 빌려서 짓는 만큼 언제든지 철도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철거할 수 있도록 조립식 철골조로 지을 것, 기존 인천역사보다 높으면 안될 것, 40평을 넘지말 것 등등, 다소 맥빠지는 조건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약조건들을 적극 수용, 단순한 관광 안내소가 아닌 다소 쇠락해있는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계획하여, 1층은 관광안내소, 2층은 인천광역시 홍보관을 꾸며 관광객과 시민들이 관광안내도 받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약 43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만들게 되었다. 건물의 성격상 개방적일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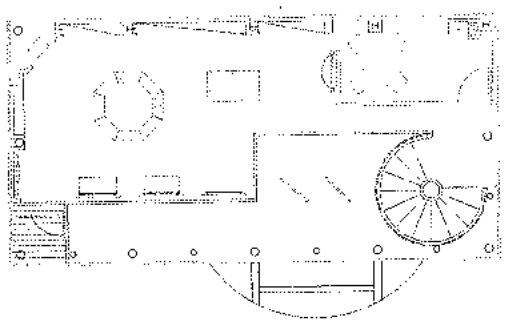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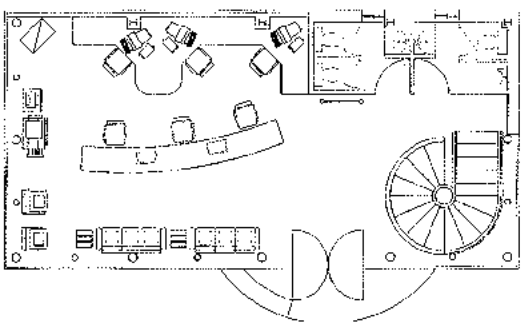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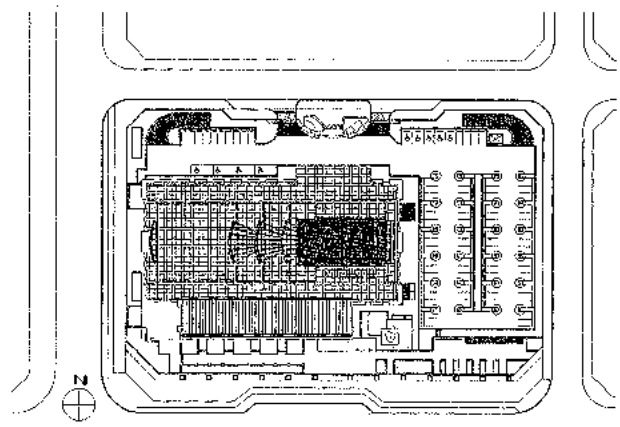
있는 만큼 전면을 투명유리 커튼월로 처리하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작지만 답답하지 않도록 1,2층 오픈 공간을 만들어 배너식 전시물을 매달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자연채광을 유입시켰다. 지나친 직사광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면의 목재 루버는 철골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1층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다보니 화장실은 대단히 컴팩트하게 처리되었다. 2층에는 통풍과 유리로 인한 내, 외부의 지나친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역 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외부 발코니를 만들었으며, 천정은 지붕의 곡선을 그대로 살렸다. 좁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형계단 역시 하나의 조형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2층 바닥은 건물 가운데를 가둥없이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형 보 위에 캔틸레버로 얹혀져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샛기둥은 하중을 지탱하지 않으면서 목재 루버와 알루미늄 커튼 월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층 바닥 슬라부, 화장실, 2층 다용도실과 발코니 바닥을 제외하고는 건물 외벽과 바닥이 모두 건식공법으로 처리되었다. 창호는 자붕 하단부를 제외하고 모두 750×1650으로 균일화되어있다. 당연히 바깥기둥은 30cm안으로 셋백되게 된다. 벽체 안에 감추어지는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기둥들은 모두 원형으로 처리되어 장방형의 커튼월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2중 브라켓으로 연결되는 디테일을 필요로 했다. 기둥과 보 그리고 바닥의 X자 Bracing등 구조부재는 가급적 그대로 노출시키려고 했다. 정면 간판의 'i'자는 information의 약자로서 바탕색깔과 함께 세계 공용 관광안내소 로고이다. 다소 Overscale화 되어 있는 듯 하지만 멀리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관광안내소로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 남기 위해서는 2층 상설 홍보관을 기획전시관으로 바꾸어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김경택)

캐피탈타워
Capital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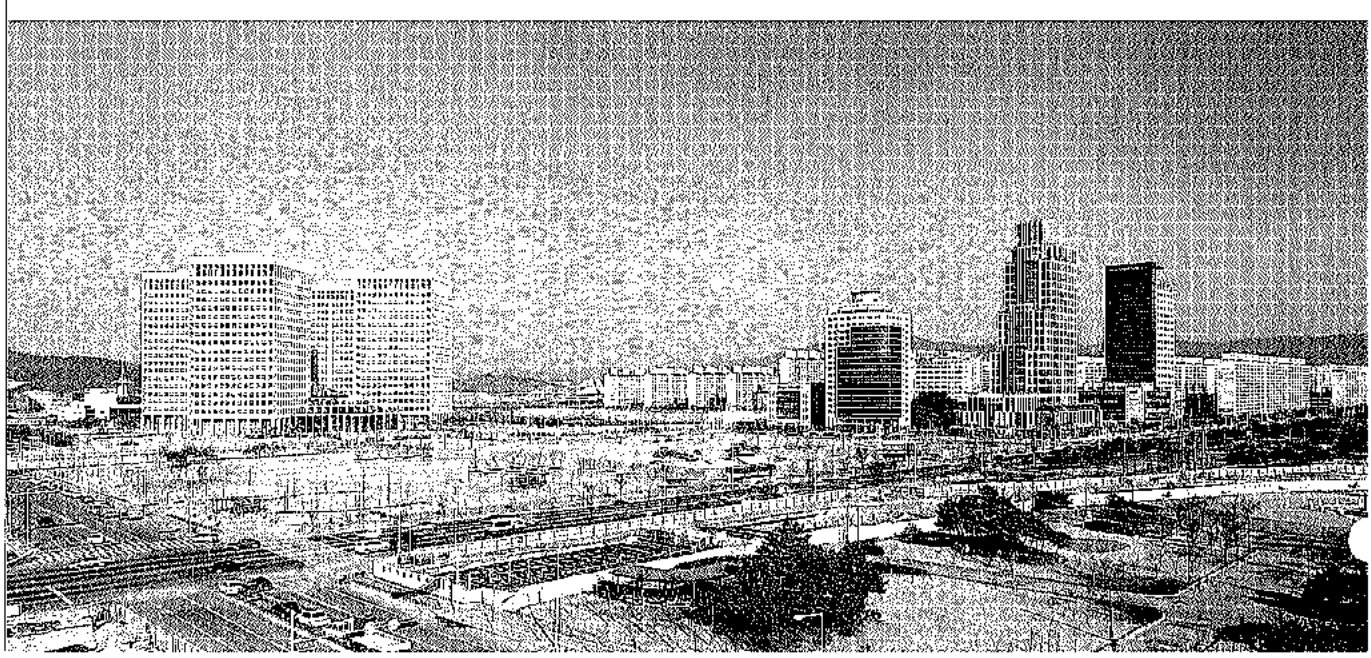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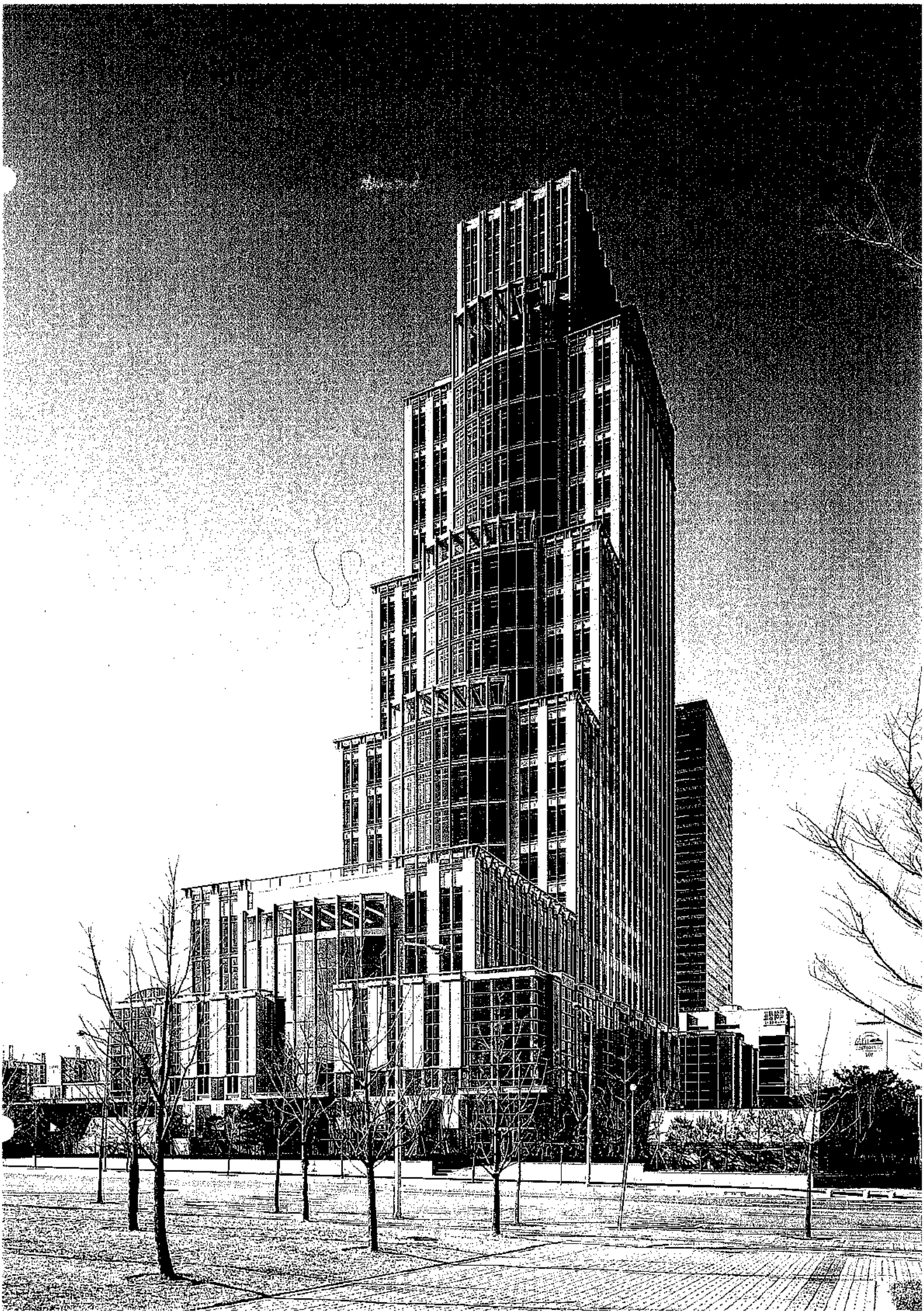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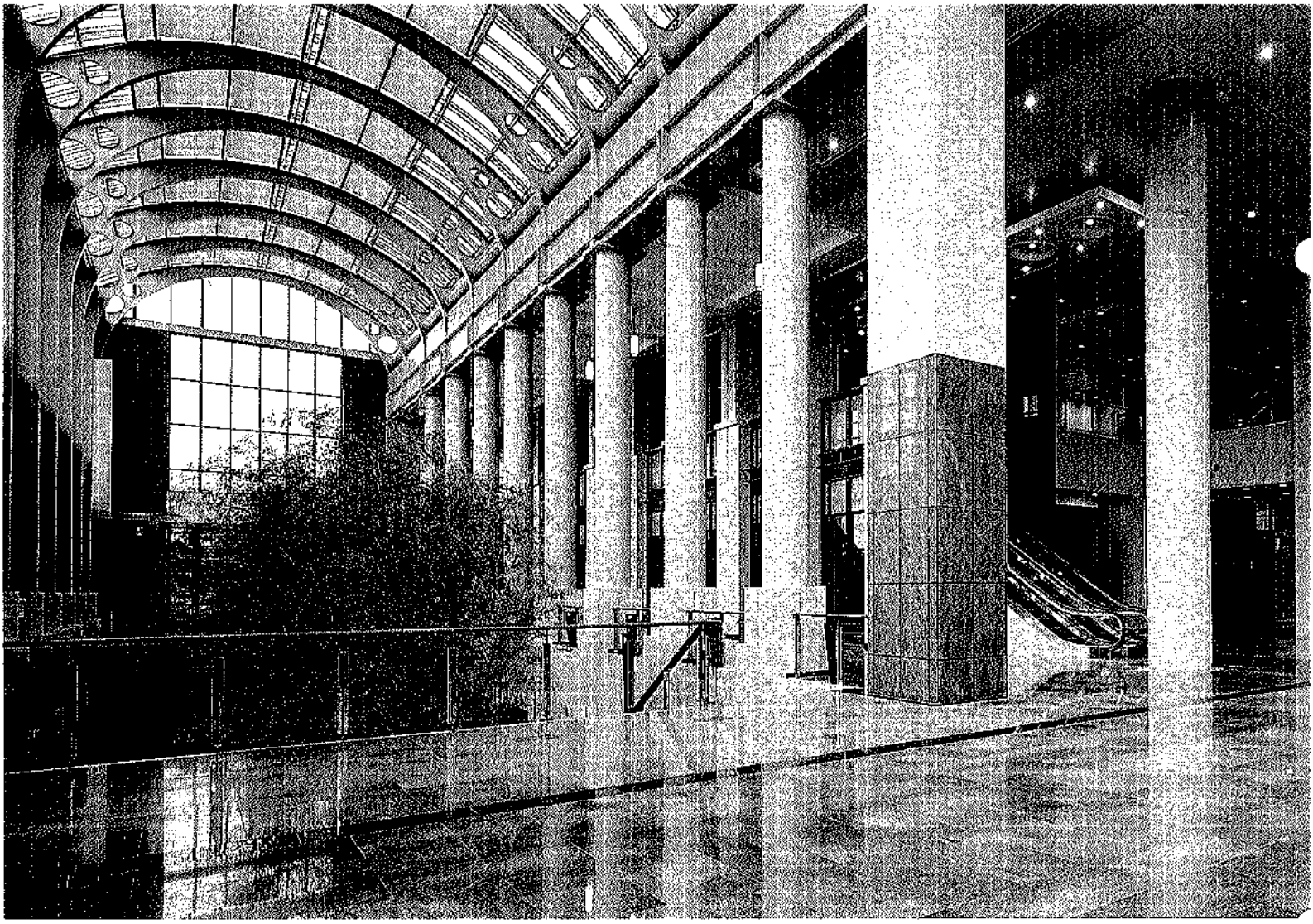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1, 932
대지면적	10,434.20㎡
건축면적	3,639.97㎡
연면적	42,292.76㎡
건폐율	34.88%
용적률	223.72%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물갈기 창호 - 컬러알루미늄섀시+파스텔복층유리 지붕 - 철근콘크리트위 도막방수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3층, 지상 20층, 옥탑 4층
구조설계	센구조
기계설비	미래설계
시공	한신공영
인테리어	(주)정림건축
조경	이수성
설계담당	박종남, 김종대, 박기호, 이종훈, 어석구, 주정호, 이병철, 정용교, 김남식, 정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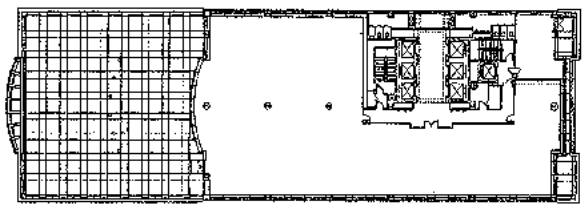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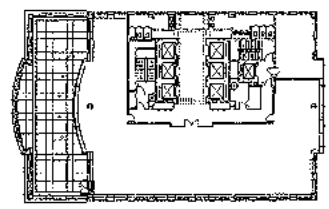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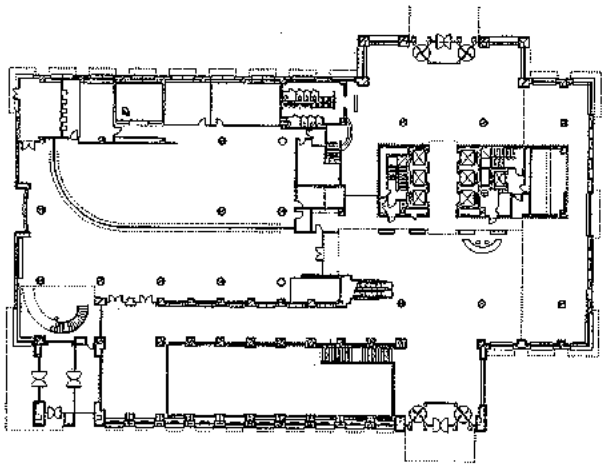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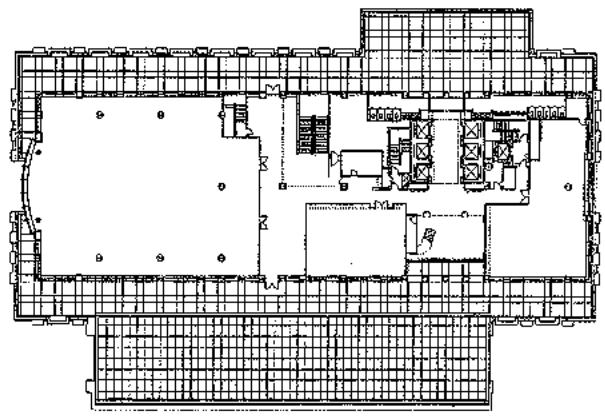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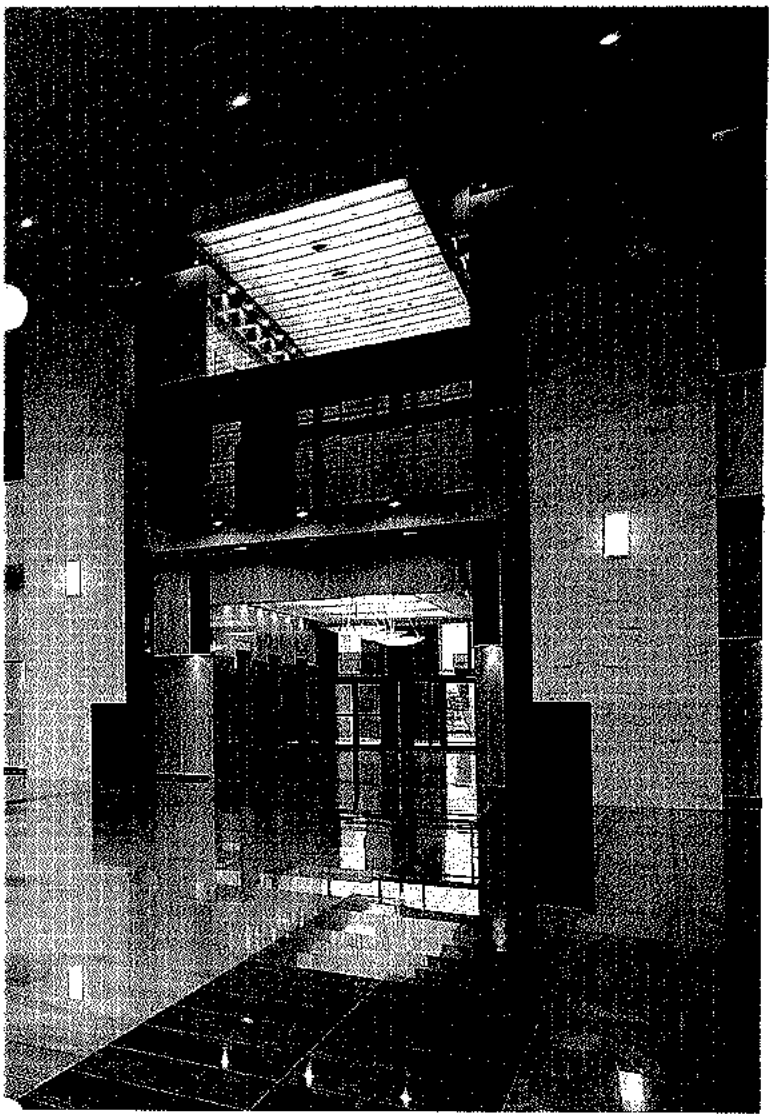
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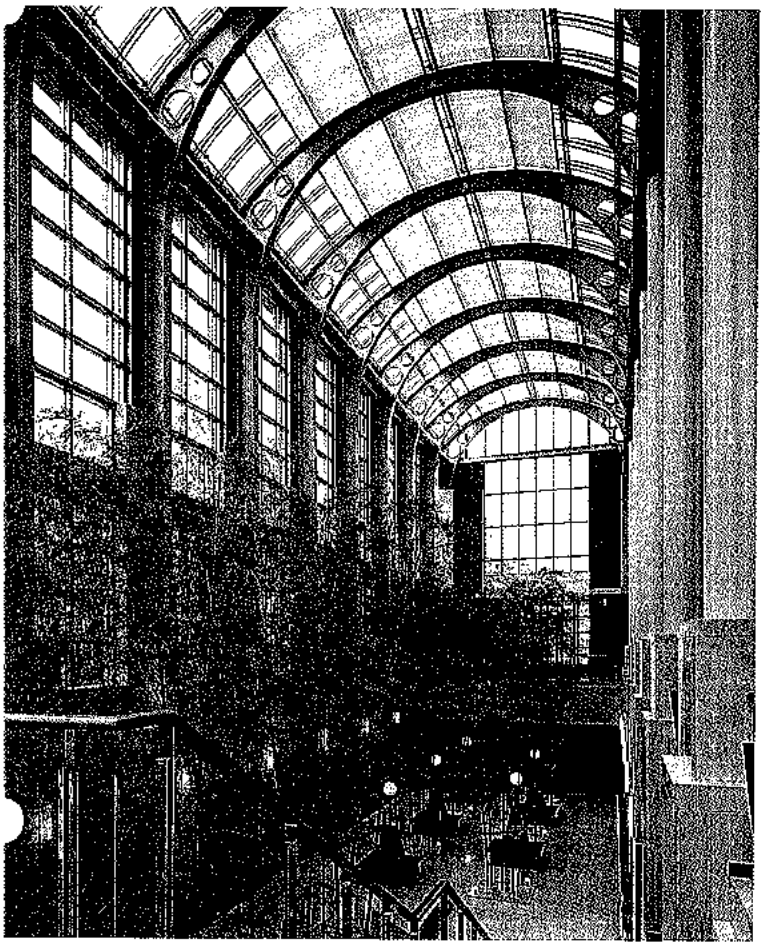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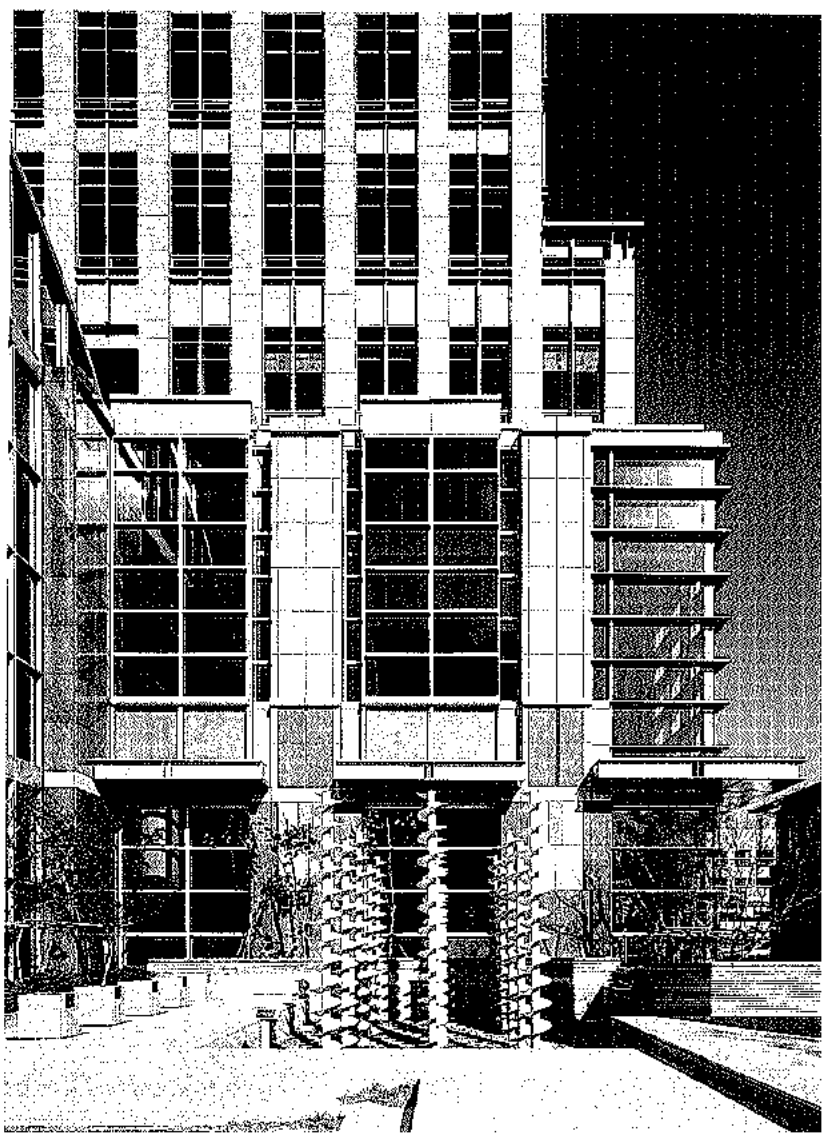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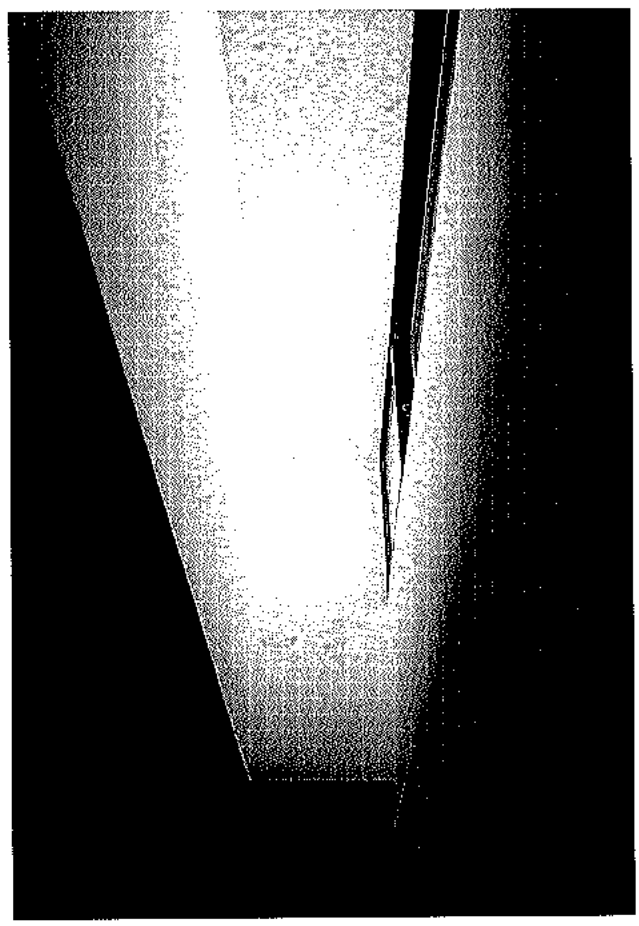


분당 J씨 주택
Bundang J'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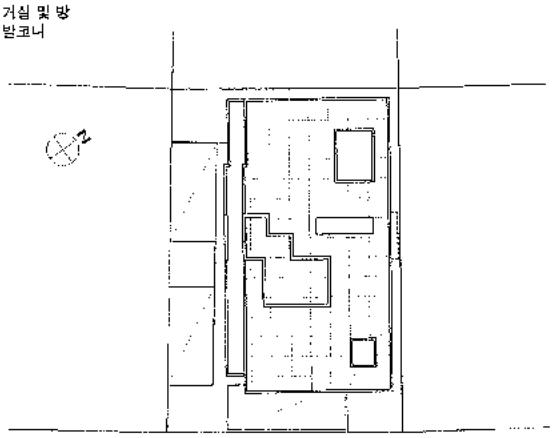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 · 울
Designed by Kim Seok-Hwa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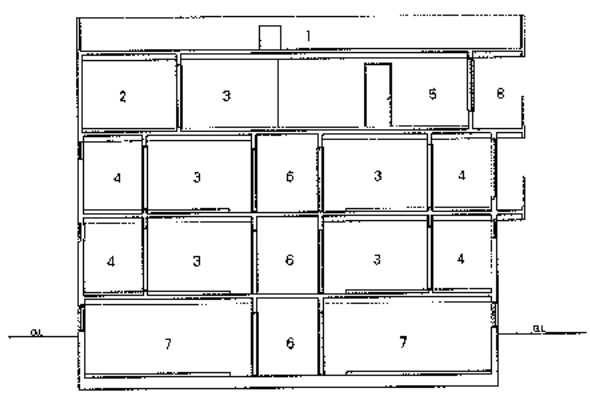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38-12
지역지구	도시설계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04.60㎡
건축면적	102.05㎡
건폐율	49.88%
연면적	406.11㎡
용적률	148.18%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11.23㎡
최고높이	10.55m
규모	지상 3층
구조방식	R.C조
설비방식	개별난방식 가스보이라
주요내장재	시멘트몰탈위 벽지, 락카페인트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 시스템
설계기간	'00. 5 ~ '00. 6
시공기간	'00. 6 ~ '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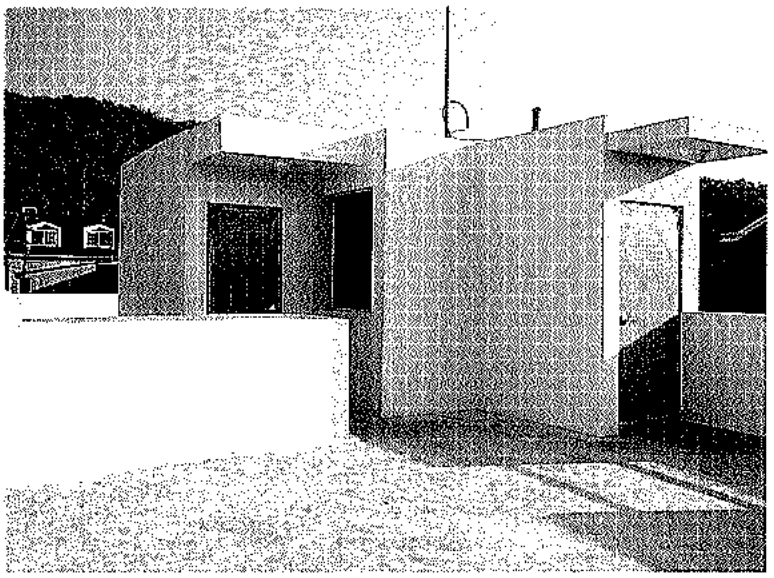
1. 옥상정원
2. 자녀방
3. 주방 및 식당
4. 탕
5. 거실
6. 계단실
7. 거실 및 방
8.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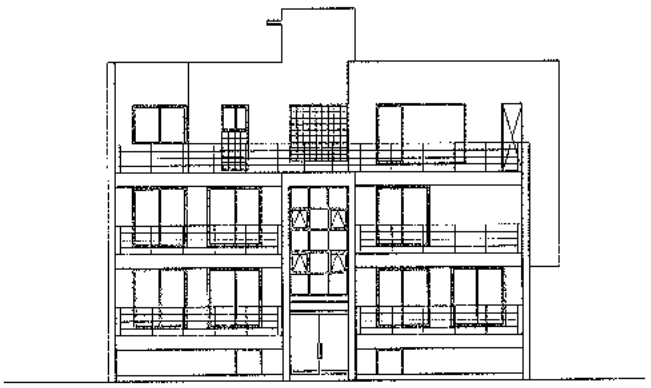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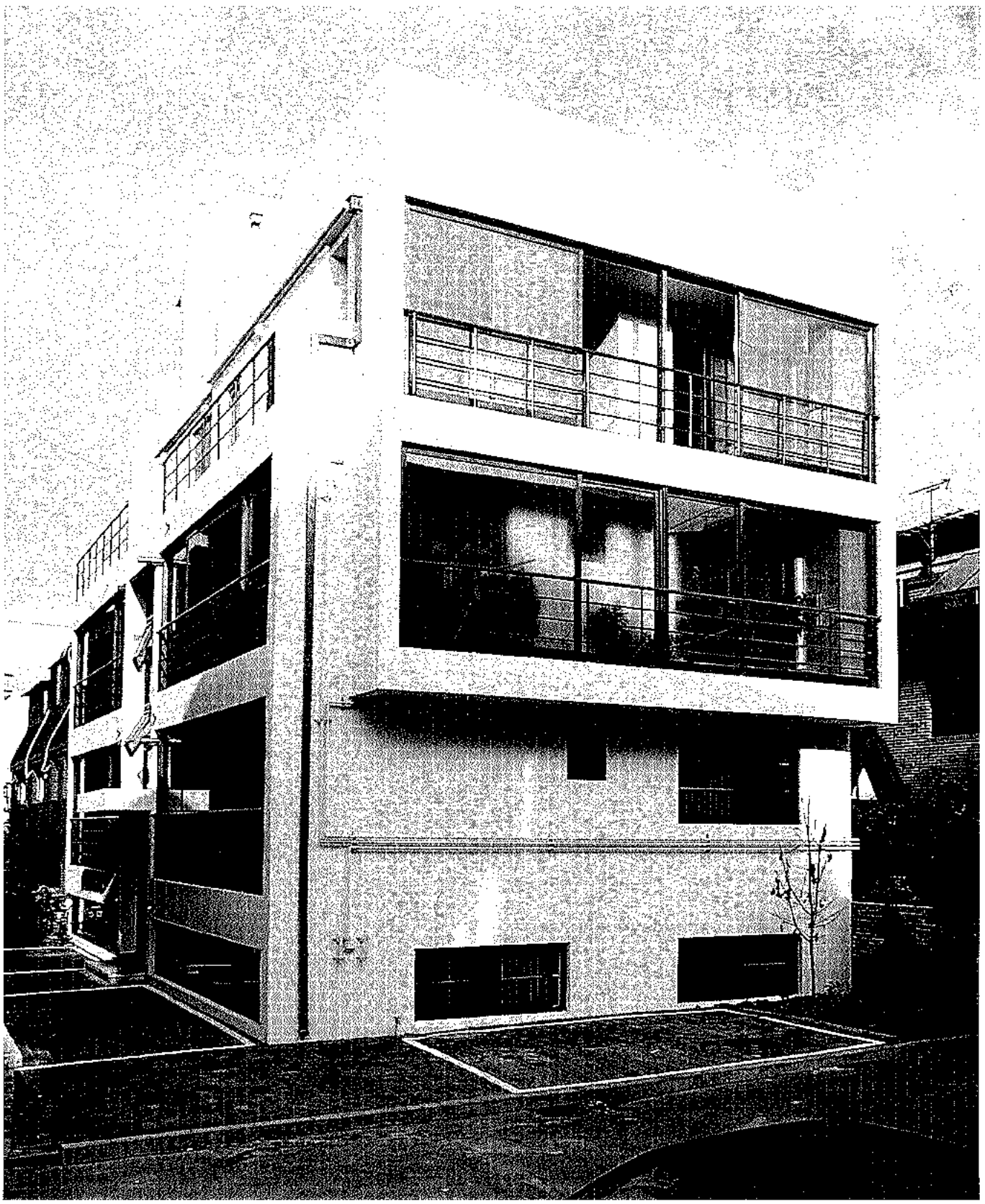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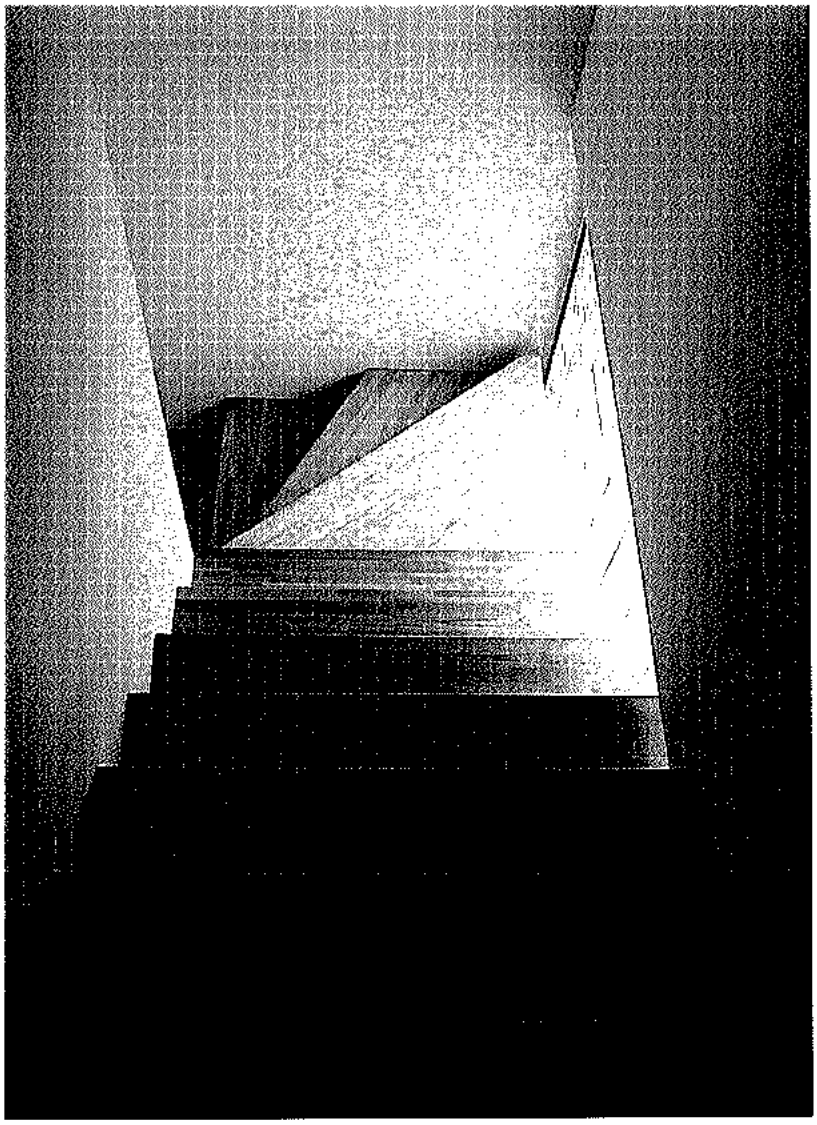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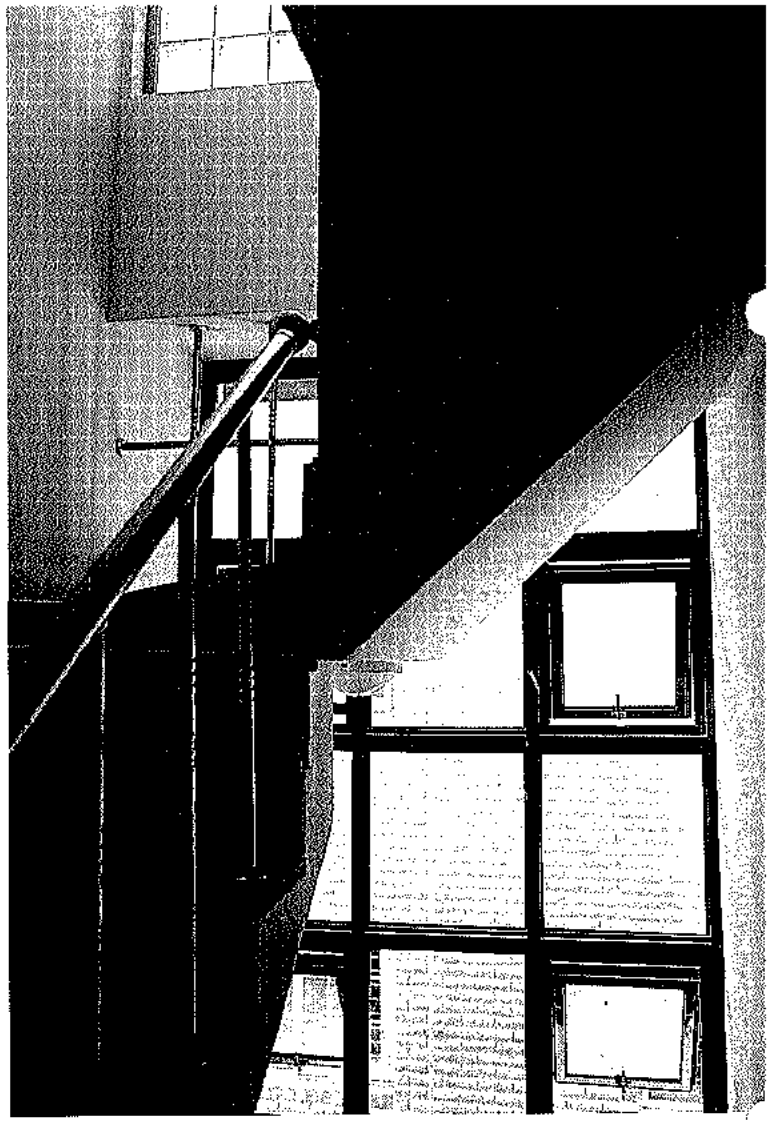




좌측면도







친척이 집을 짓겠다고 했다. 살던 집을 팔아 땅을 샀고, 지은 후 얻어지는 임대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임대료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 줄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공사단가도 낮아, 그 혐편이 그대로 공사에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앞섰다. 그리고 전세입주금 확보에 유리하도록 가구 구성을 하게 되었다. 지하에 원룸형 4세대, 1층과 2층에는 방 3개를 갖춘 2세대씩을 꾸몄다. 그리고 3층은 주인이 살 단독 세대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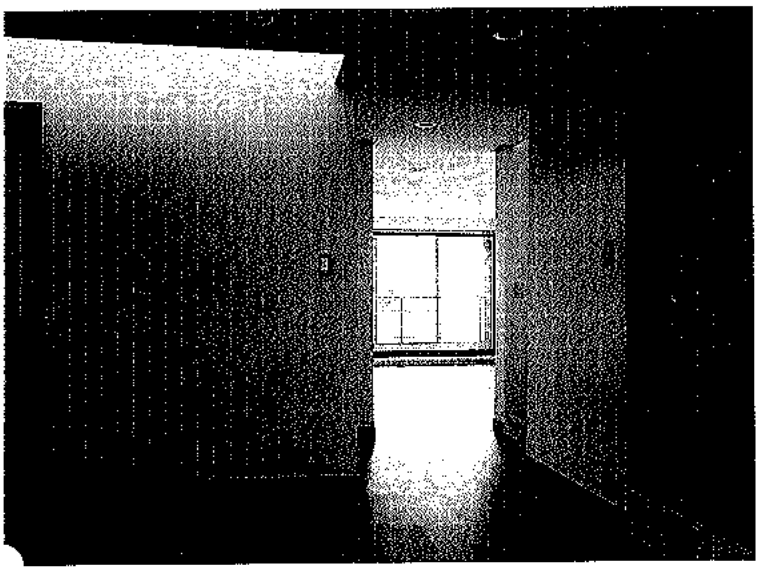
가운데 둔 계단실은 좁지만 이웃과 접촉하며 공동체적 삶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전면을 모두 창으로 개방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골목길처럼 되도록 했다. 그리고 3층은 꺾음계단으로 하여 내부 공간 구성에 알맞게 했다. 지하층의 원룸 주거는 욕실과 주방부분을 독립시켜 쾌적한 방의 분위기가 유지되게 했다. 그리고 1,2층 세대는 규모는 작지만 방을 3개 갖추어, 자녀가 둘 있는 세대가 쓸 수 있게 했다. 3층은 주인 세대이다. 현관을 들어가면 먼저 식당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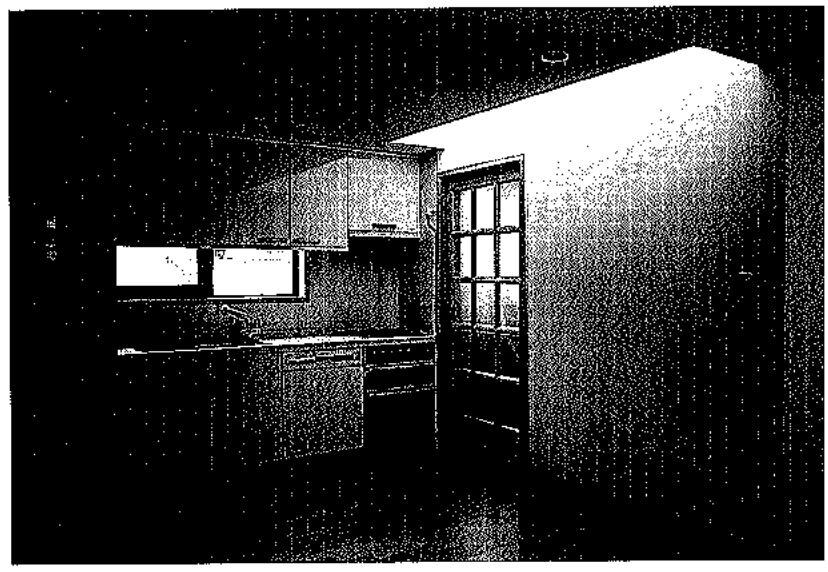
그 곳은 홀 성격의 공간으로서 천창에 의해 채광이 된다.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은 인식되지 않는 공간이며, 빛이 비추는 공간은 삶이 찾아들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실내 볼륨안으로 빛이 어둠을 밀쳐내고 밝혀 들어와 생명 활동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홀 기능에 의해 거실과 방들이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거실 앞 발코니 폭은 1.7M이다. 그 곳에 야외용 탁자와 의자를 두면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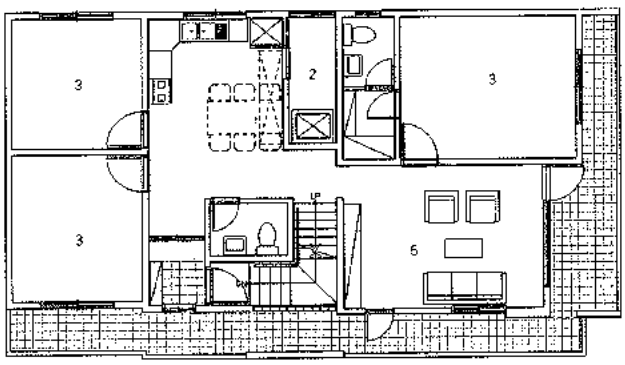
식당에서 거실과 연결되는 통로부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계단실은 옥상정원으로 오르는 내부의 길이다. 꺾인 계단은 좁은 골목길처럼 되어 있고 유리블럭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 온다. 그 좁은 계단을 빠져 나가면 옥상정원에서 파란 하늘과 앞산 능선이 보인다. 닫힌 공간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나가 다시 자연과 만날 수 있다.

건물의 외부 형태는 두개의 상자가 어긋나게 얹혀 있는 꼴이다. 각층 외벽의 위치는 같지만 발코니에 의해 그러한 형태가 생겨났다. 전면 1층은 주차장 설치 때문에 도로측 발코니를 둘 수 없고, 좌측은 일조권 규정 때문에 3층지붕이 후퇴되었다. 엇갈린 그 상자는 기하학적 질서와 중력의 힘을 느끼게 한다. 전체적으로 정형의 입방체 매스 안에 조건이 다른 각 층 주호가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매스를 백색으로 마감했다. 전체를 단색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 조형 행위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과거 고전건축이거나 고딕건축이 갖고 있는 지음의 규칙처럼 이 시대에 건축이 지닐 수 있는 지음의 규칙이 순수히 질서로 표상되기를 바람이다. 나는 대중의 감성을 충족하려는 패션과 같은 유행의 발명을 꿈꾸지 않는다. 건축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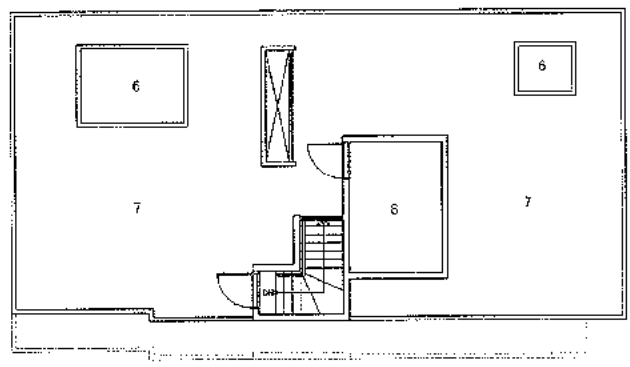
1. 거실 및 방
2. 다용도실
3. 방
4. 주방 및 식당
5. 거실
6. 화단
7. 옥상정원
8. 올텔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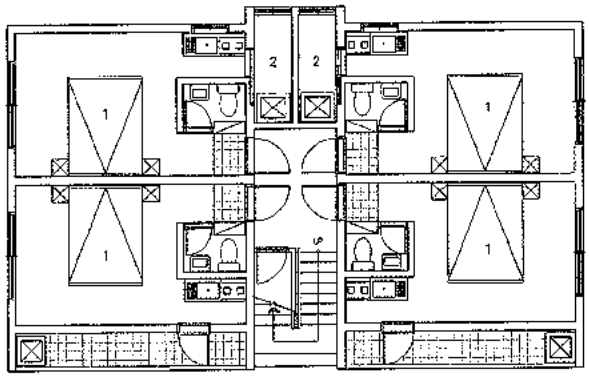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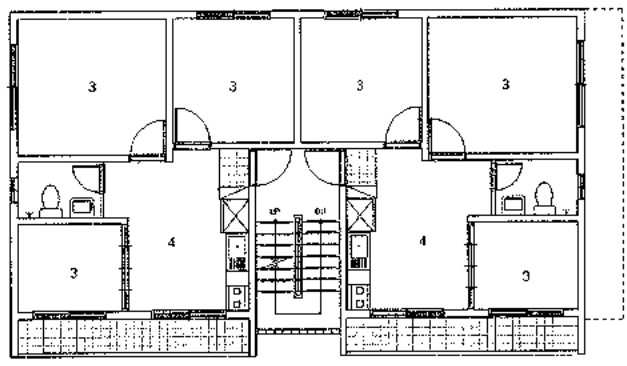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옥탑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 2 5m

청주 인터넷 데이터 센터
Cheongju Internet Data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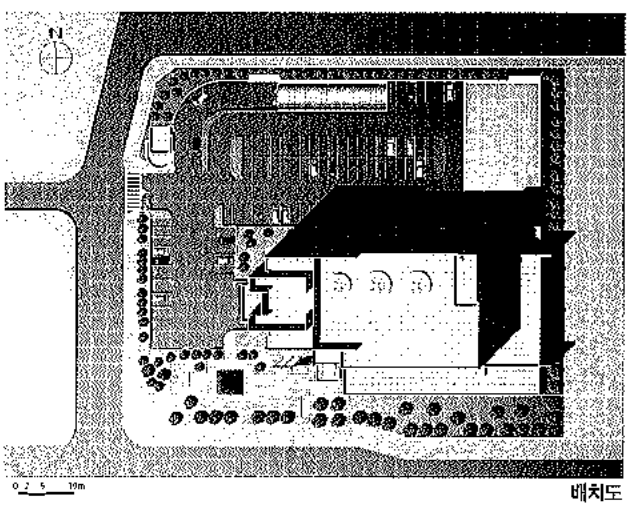
김병년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ung-Nyu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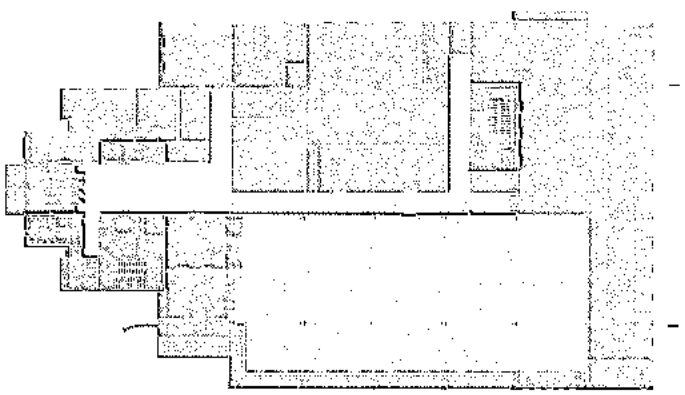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9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994.87㎡
건축면적	2,466.85㎡
연면적	26,742.06㎡
건폐율	27.43%
용적률	186.99%
용도	방송통신시설
규모	지하2층, 지상11층
최고높이	62.2m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승강기	승용3대(17인승 2대, 10인승 1대), 비상용 1대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마감 복층유리
도로관계	남측35m도로, 서측15m도로, 북측12m도로
주차대수	법정 141대
	계획 260대
조경면적	법정 1,349.23㎡
	계획 2,170.23㎡
사진	채수옥

첨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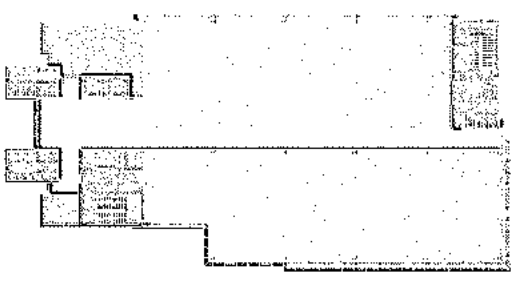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의 통합수용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확산과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첨단 종합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지향적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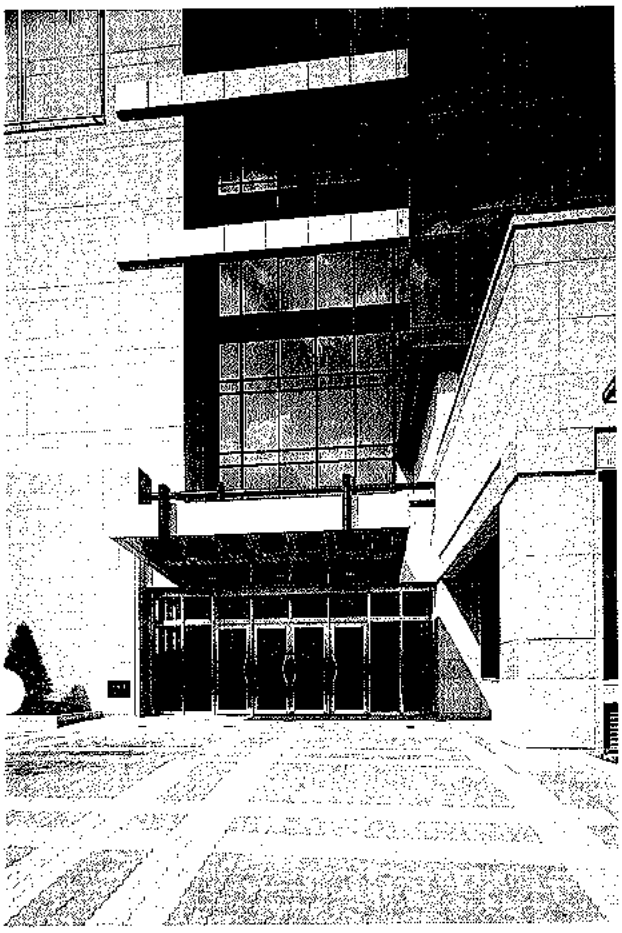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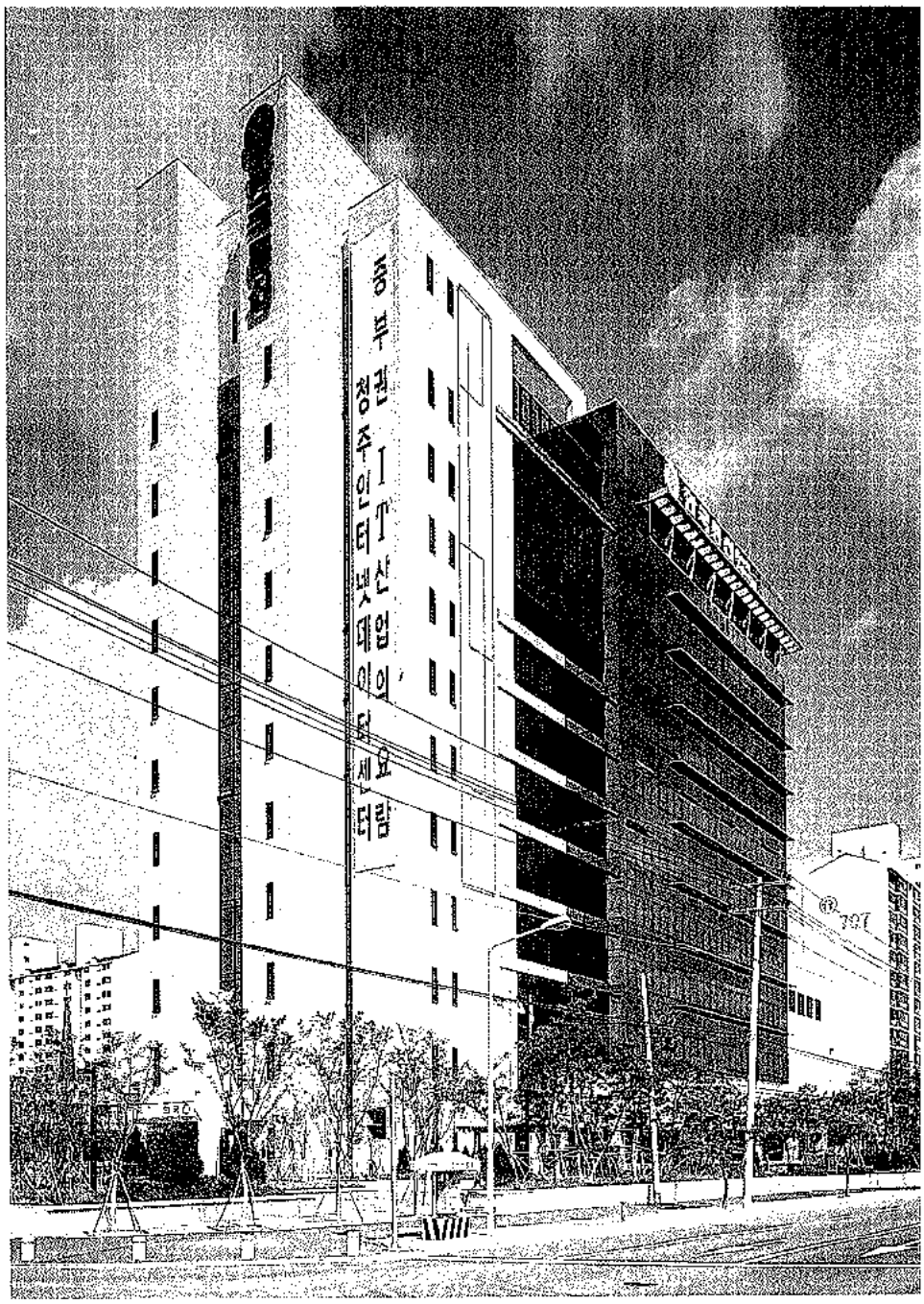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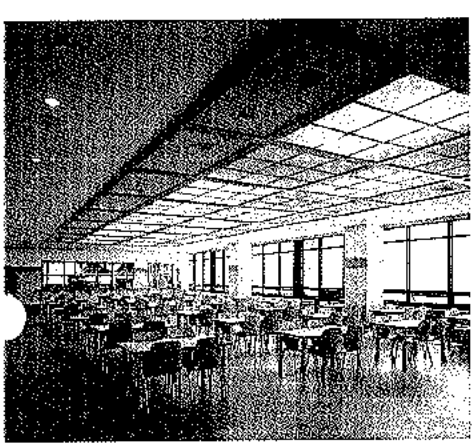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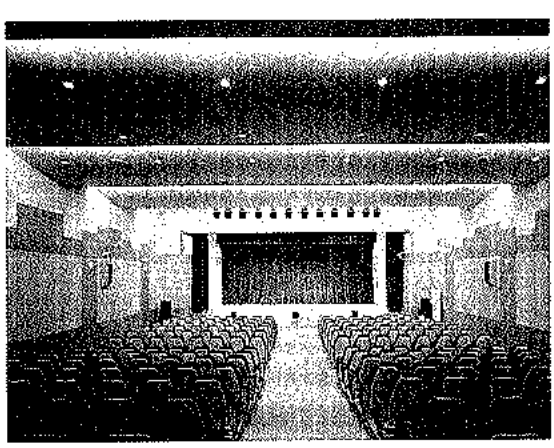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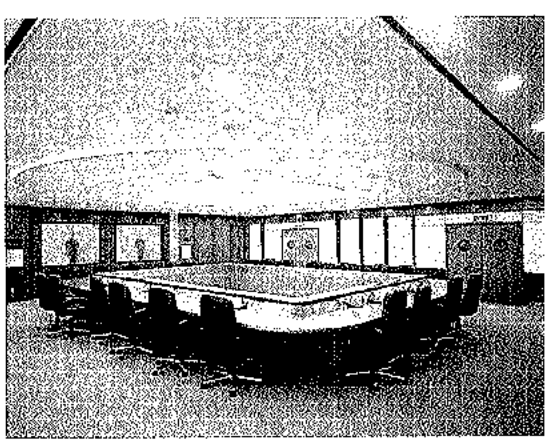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중부권 IT산업의
청주인터넷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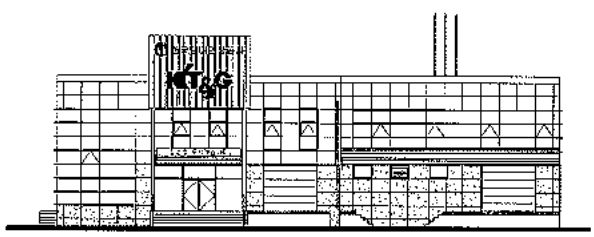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점
Korean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Taegu Branch Office

이영욱 / 탑건축사사무소(대구)
Designed by Lee Yo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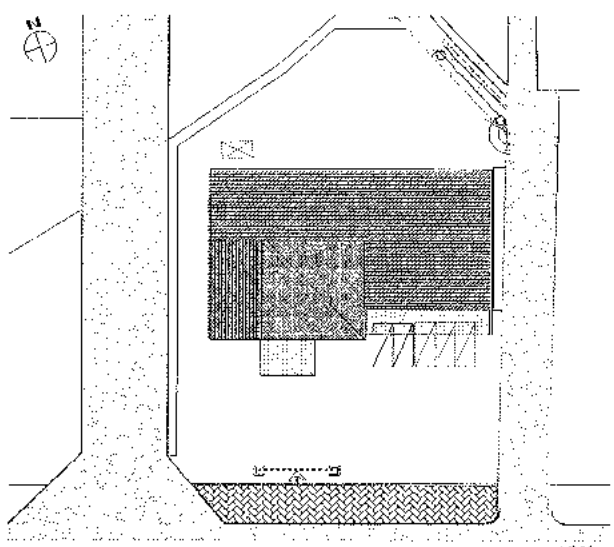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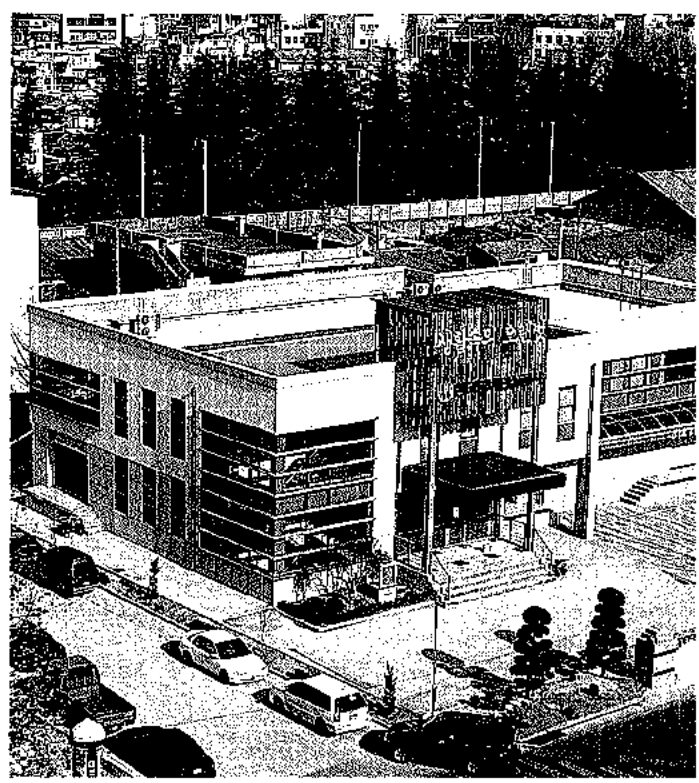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188-9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미관1종
대지면적	1,851.30㎡
건축면적	651.03㎡
연면적	1,235.00㎡
건폐율	35.59%
용적률	63.7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플라스터 및 석재스프레이 마감
설계담당	이영진, 류재성, 황세영
전기설계	동영엔지니어링(최화중)
설비설계	무무설비설계사무소(이진열)
공사기간	2000. 9. 25 ~ 2000.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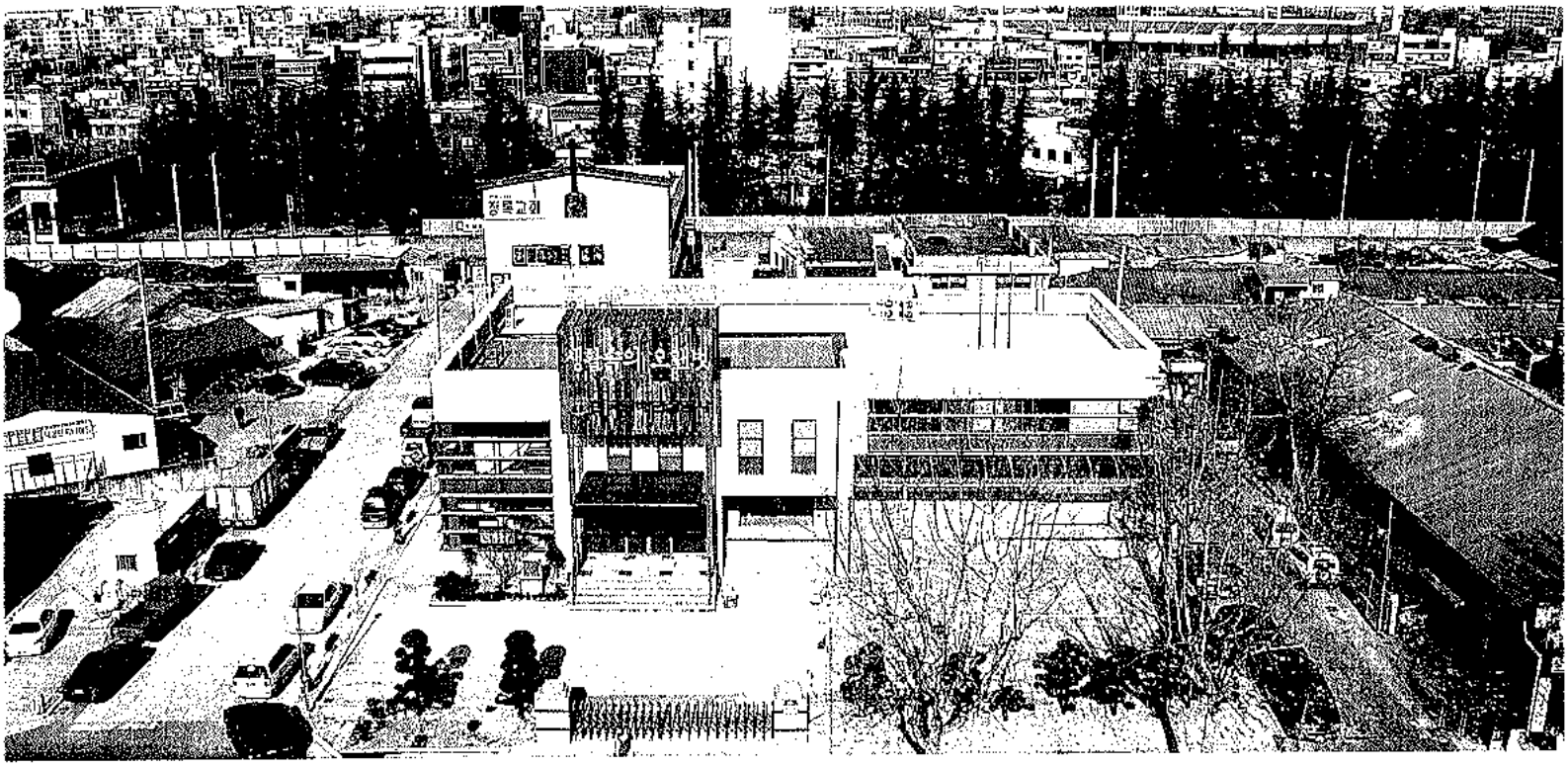
이 건물은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대구지점으로써 지은 지 20년이 넘어 대부분의 설비, 전기 시스템과 마감의 사용연한이 한계에 달하여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처에서는 대구지역 처음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시도하기로 하여, 신축 건물의 20~50%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의 가치 및 사용연한을 증가시키고,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에 착수하였다. 기존의 단조로운 입면을 mass분할 및 수직적 조형성 강조로써 인지성을 높임과 동시에 통일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평면은 기능에 따라 동선을 집약시킴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량칸막이를 사용하여 용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외부동선은 차량, 방문객, 화물차량으로 분리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존 담장을 없애고 조경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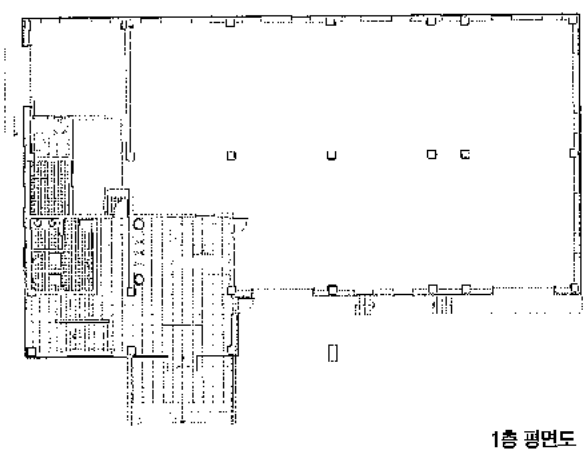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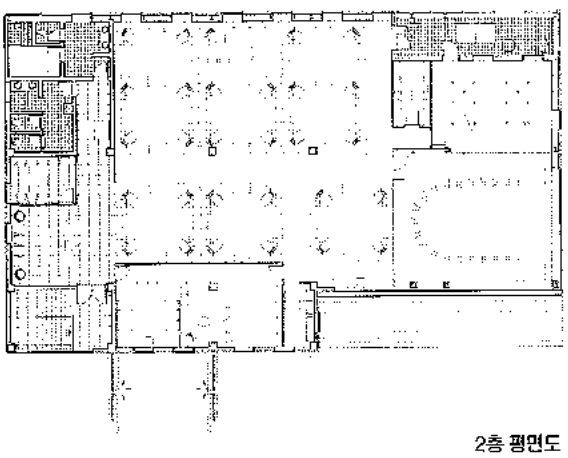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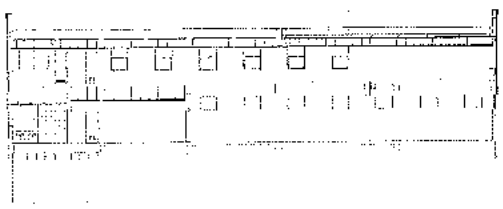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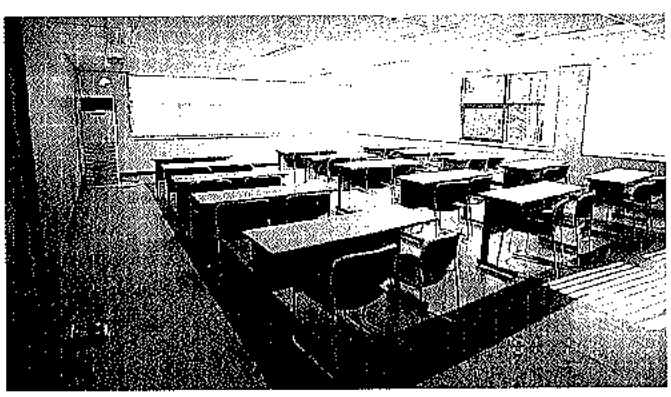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



리노베이션 전 모습

도시의 입지; 명당과 강물

Sites in the City : Propitious Spots and the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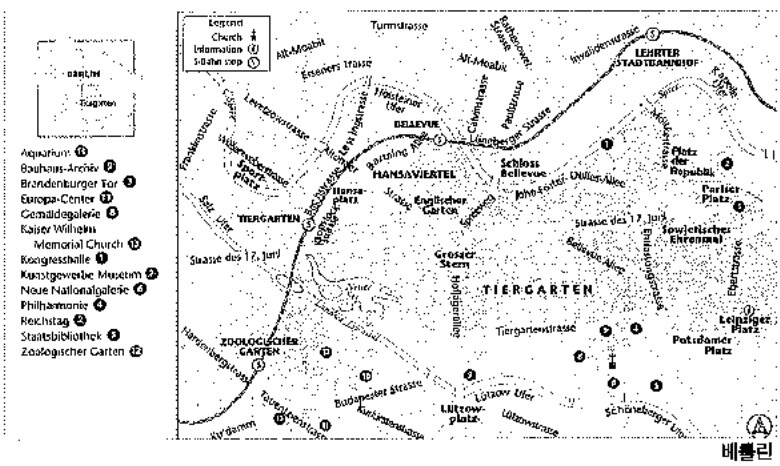
박시익 / 명당건축사사무소
by Park Si-Ik

해외사업 성공의 지름길은 대도시 중심부에 사업장 또는 숙소(주택)를 자리잡는 일이다.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에도 외국의 벽촌으로 들어가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도심지의 시장에 자리잡는 것이 확실한 성공방법이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의 중심지와 시장바닥이 명당이기 때문이다.

반월성과 명당

세계 여러 도시는 대부분 강이나 바닷가 등 물가에 자리잡고 있다. 물이 사람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가 전역이 골고루 도시가 된 것은 아니다. 수 천 킬로미터를 흐르는 라인강이나 도나휴강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일강 등 여러 강변에도 도시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극히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해안가에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도시가 있는 것은 강가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가나 바닷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조건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대하다. 그러나 강물의 흐르는 형태와 도시의 입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편 풍수지리의 이론에서는 도시는 강과 산의 특별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도시와 강의 형태 관계는 새롭게 연구되어 신도시 선정시 입지의 이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베를린

기록에 의하면 AD 80년에 석탈해는 자신의 집터를 경주의 남쪽 반월성에 정하고 이곳에 살았다. 이곳이 명당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석탈해가 이곳에 살자 행운이 그에게 줄곧 따라왔다. 그는 신라 제 2대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고 말년에는 신라 제4대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집터가 명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월성과 같이 강물이 U자 형으로 돌아가는 지세는 초생달 형태라고도 말한다. 초생달은 한쪽이 우묵하게 패어 있어 점차적으로 커지는 과정 위에 있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름달은 이미 완전히 둥굴게 되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점차 작아지는 과정 위에 있어 앞으로 쇠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생달형은 항해하는 배의 형태를 닮아 행주형이라고도 한다. 배는 물자와 사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행주형이거나 또는 초생달형의 땅은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상징하는 길상의 형태이다.

초생달과 같은 형태의 지역을 지도상에서 찾아보면 반월성 이외에 세계 여러도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로마, 런던, 파리, 베를린 그리고 모스크바 등은 모두 초생달과 같은 U자형 강변의 도시이다. 그 이외에도 인도의 캘커타, 델리, 캄보디아의 프놈펜, 대만의 타이페이,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뒤셀돌프, 함부르크, 암스텔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영국 멘체스터, 글라스고우, 세필드, 항가리의 부다페스트, 폴란드의 바르샤바, 카나다의 몬트리올, 미국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 세계 여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모두 U자 형태의 강 하변에 자리잡은 초생달형의 도시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가 초생달 형태의 U자 형 강변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풍수지리 이론이 세계 여러 도시의 입지 분석이론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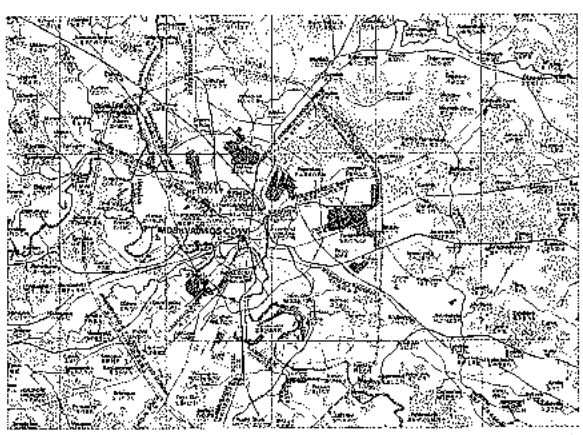
도시의 입지조건과 강물

초생달 형태의 U자 형 강 하변이 명당 즉 행운의 기운이 있는땅 이라는 근거는 조선시대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 찾게 된다. 택리지는 대표적인 풍수지리 이론서이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이상적인 땅을 명당 또는 혈이라고 한다. 명당 또는 혈이란 사람의 건강과 경제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운이 많이 모여있는 땅을 말한다. 명당에서 발생되는 기운을 생기(生氣)라고 한다. 사람이 명당에서 생활하면 생기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게 된다. 개중에는 재벌이 되거나 정치가로 출세하게 사람이 배출되기도 한다. 명당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행운의 기운이기도 하다.

명당은 산이나 강 등 지리적인 기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중 대표적인 기운으로는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말한다. 음양의 이론으로 물과 땅의 성질을 비교하면 땅은 물에 비해 따듯하나 물은 차갑다. 그러므로 땅은 양으로 물은 음으로 구분한다. 명당은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며 결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 명당을 이루지 못하나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어 명당이 된다. 명당은 음기운과 양기운이 겸비되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지세의 기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의 유무, 규모, 흐름의 상태, 수질, 그리고 물의 흐르는 방위 등은 한 지역의 기운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명당은 득수형 명당과 장풍형 명당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득수란 물을 얻는다는 뜻이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물의 흐름에 의하여 지상에 기운이 모인다는 의미이다. 득수형 명당은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기운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초생달 형태의 U 자 형 강변에 이루어진 도시는 득수형 명당이다. 한편 장풍형 명당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주변의 산이 감싸주어 기운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강은 하도(河道)의 형태에 따라 직류하천(直流河川, Straight-Stream) 곡류하천(曲流河川-Meander, Free Meander) 망류하천 (網流河川 Braid-Stream)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강물의 형태는 바람의 속도와 관련된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바람은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곳에는 바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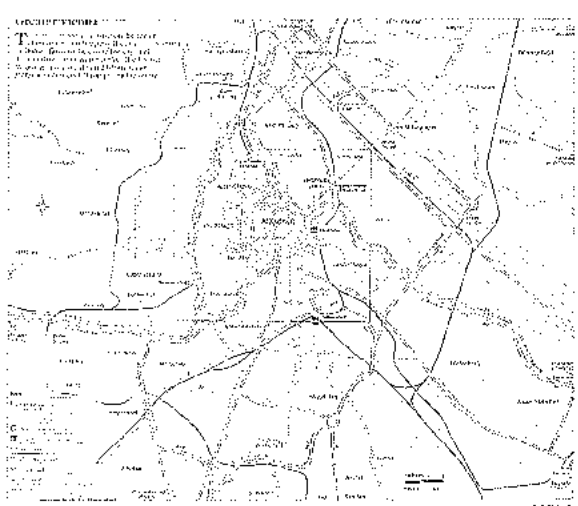
모스크바

직선으로 불어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서 사람의 건강에도 해롭다. 빠르게 부는 바람은 땅의 기운을 분산시켜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 강물이 U자 형의 곡선으로 흐르는 곳에는 물의 유속이 느리며 이곳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약하다. 명당이나 도시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도 약하게 부는 곳에 이루어진다. 초생달 형의 강변은 강물과 바람이 천천히 흐르는 지점이라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유명한 폭포 위에 주택, 일명 낙수장을 설계하였다. 그가 설계한 낙수장의 형태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주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주택의 주인은 이 집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우는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박물관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는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곳 또는 폭포 가까운 지역에서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례가 된다.

물은 규모상 바다, 강, 개천, 그리고 샘물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도시는 바다나 큰 강가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개천가에도 자리잡는다. 샌프란시스코는 넓은 바다가 보이는 서쪽보다 만에 접해있는 동쪽이 더욱 발달하였다. 시카고는 넓은 호수가 있는 동쪽보다는 작은 강이 있는 서쪽에 발달하였다. 이들 도시들은 큰 물 보다는 작은 물에서 도시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도시와 강의 위치 및 방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시의 남쪽에 강을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는 파리, 런던, 멜버른, 시드니, 모스크바, 프랑크프르트, 스톡홀름, 함브르크, 디트로이트, 호치민, 호놀룰루 등이 있다. 도시의 남쪽 이외의 방위에 강을 접하고 있는 도시는 더욱 많다. 도시의 동쪽에 강과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는 델리,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룩셈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상해, 몬트리올, 마닐라 등이 있다. 도시의 서쪽에 강과 접하고 이 있는 도시는 로마, 캘커타, 타이페이, 카이로, 오타와, 듀셀돌프, 하노버, 드레센, 맨체스터, 방콕 등이 있다. 도시의 북쪽에 강과 접하고 있는 도시는 베를린, 비엔나, 짤스브르크, 피츠버그 등이 있다.



비엔나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 있어서 도시는 강은 어느 일정한 방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와 강의 방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구(水口)와 명당

도시 전면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이 하류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수구(水口)라고 한다. 지세에 있어서 수구는 물탱크의 배수 밸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밸브가 열린 곳에는 물이 흘러나가고 밸브가 닫혀 있는 곳에만 물이 고일 수 있다. 수구는 인체의 항문과도 기능이 같다. 항문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서 체내 기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사람의 항문이 열리면 체내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사람은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수구는 지세에서 생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 지역이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구를 통해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생기가 발생하며 행운의 기운이 모이게 된다. 수구에 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 돌아나가게 되어 비록 강물은 산을 돌아 빠져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형태의 수구를 좁은 수구라고 한다.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구는 반드시 좁아야 한다. 좁은 수구는 일명 막힌 수구라고도 말한다. 수구가 좁은 곳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마치 막혀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행운의 기운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동시에 부자나 훌륭한 인물 등 성공

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시킨다. 도시는 수구가 좁은 지역에 발달하게 된다. 초생달 형태의 U자형 지세는 수구가 좁아 강물과 바람의 흐름이 막혀 생기가 모이게 되는 대표적인 명당지세중의 하나이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곳에서는 수구로 물이 흘러 나가는 동시에 바람도 빠져나간다. 수구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기운도 빠져나가 명당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이곳에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된다. 재물이나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서 함께 잃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전면에 흐르는 강의 하부 즉 수구 지점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이 보물섬(Treasure Island)이다. 어떠한 이유로 이 섬의 이름이 보물섬이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물섬은 강물의 흐르는 속도를 격감시킨다. 강물의 흐르는 속도가 저속으로 변화되면 이곳에 흐르는 바람의 속도도 약하게 된다. 바람이 잔잔한 곳에서는 생기를 이룬다. 생기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근면하게 된다. 그 결과 재물과 명예를 갖는 행운도 맞는다. 보물섬과 같이 강 가운데 있는 섬은 도시의 생기를 발생하게 하는 보물과 같은 작용을 한다. 섬의 이름을 보물섬이라고 한 것은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보아 매우 합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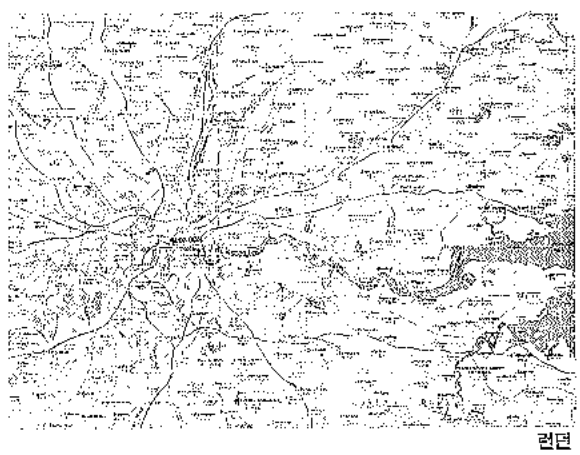
보물섬은 도시 전면의 강이나 수구 지역에 위치하면 기능이 효과적이다. 보물섬은 강물의 유속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물이나 바람이 섬 주위를 통과할 때 마찰음을 발생하기도 한다. 강과 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섬의 기능에 의하여 도시사람들은 즐겁게 살며 동시에 건강과 행운을 받게된다. 보물섬이 있는 도시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외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모스크바, 캐나다 몬트리올, 독일 함부르크, 암스텔담, 파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인도의 델리, 뉴델리, 미국의 보스톤 등이 있다. 보물섬이 있는 도시는 행운이 따르는 도시이다.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변의 하부지역은 자연지리학적 이론으로는 공격면(攻擊面, Cut-Bank) 이라고 한다. 이곳은 흐르는 물이 지면의 흙을 밀어내어 장기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불안한 지역으로 해석한다. 강을 중심으로 하여 공격면의 반대편에 자갈이나 모래가 쌓이는 지역은 'Point Bar' 라고 하여 이 지역이 공격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마, 런던, 파리, 모스크바 등 대부분의 도시가 공격면에 자리잡고있는 반면 포인트 바에 자리잡은 도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초생달형 도시와 접한 U자형 강하변에서는 강물의 유속이 매우 약하여 땅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 못하며, 또한 명당의 지하에는 강한 암반이 받쳐주고 있어 약한 강물에 흘러 내려갈 위험이 전혀 없다. 자연지리학의 이론은 도시의 입지를 분석하고 선정하는 이론으로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땅의 앞뒤 구분

풍수이론에서 땅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땅의 기운이 앞면과 뒷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땅은 위치에 따라 토질이 다르듯이 땅에서 발생되는 기운도 다양하다. 땅의 기운 중에는 사람의 건강에 유익한 기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해로운 기운이 있는 땅도 있다. 땅의 앞면에는 좋은 기운이 많으나 땅의 뒷면에는 좋은 기운이 부족하다. 땅의 앞면과 뒷면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나 나뭇잎 등 생명체에 비유된다. 사람의 배 즉, 앞면에는 젖과 생식기 등 중요한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뒷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엄마 몸의 앞에는 아기가 먹을 젖이 있으나 등에는 먹을 젖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에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감나무 잎의 앞면은 반짝이지만 뒷면은 꺼칠꺼칠하다. 이것은 앞면과 뒷면의 기운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의 형태와 아울러 땅의 형태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땅도 거대한 생명체로서 땅의 앞면에는 생기가 많아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며 마음도 편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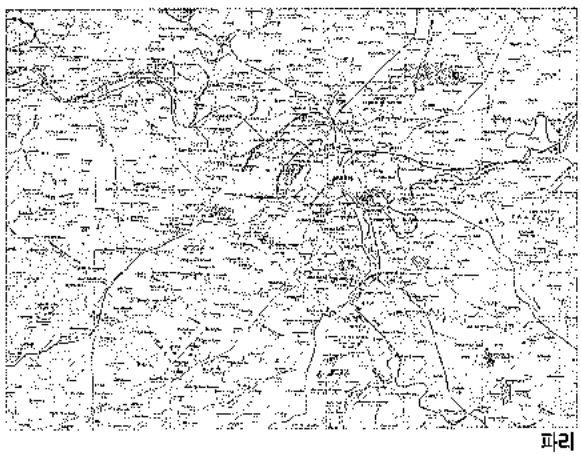


런던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땅의 뒷면에서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한다. 명당은 땅의 앞면에만 있으므로 대부분의 도시는 땅의 앞면에만 자리잡고 있다. 땅의 뒷면에서는 비록 U자 형태의 강과 접해 있어도 도시가 되지 못한다. 초생달형 도시에 U자형의 강물이 땅의 앞면과 만나는 경우에만 명당이 된다. 만약 땅의 뒷면이 초생달 형 지세로서 U자형 강의 연안에 있어도 이 경우에는 명당이 되지 못하고 생기도 발생하지 못한다.

땅의 앞면과 뒷면의 구분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사도, 형태, 밝기, 풍속, 그리고 온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땅의 앞면은 경사가 완만하나 뒷면은 경사가 급하다. 땅의 앞면은 지표면이 균일하고 매끄러우나 뒷면은 거칠며 바위가 중간 중간에 솟아 있다. 토양의 색이 앞면은 밝으나 뒷면은 어둡다. 바람이 흐르는 속도가 앞면에서는 약하나 뒷면에서는 강하다. 공간의 분위기가 앞면은 평화스러우나 뒷면은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땅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는 작업은 지세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자연지리학의 게스타 이론에서 땅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과 급한 지역 2종류로 구분한다. 게스타 이론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풍수이론으로는 땅의 앞면에 해당되며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다. 반면에 좁고 경사가 급한 에스카프먼트는 풍수이론으로는 땅의 뒷면으로 이곳은 거주지로 불리한 곳이다. 파리 시내 동쪽은 경사가 완만한 쪽 즉, 땅의 앞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에스카프만트는 도시의 외부 경계선으로 하였다. 위의 자료는 파리가 땅의 앞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파리와 같이 오늘날의 큰 도시는 물론 작은 취락지도 오래 전부터 땅의 앞면에 자리잡아 이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땅의 좋은 기운에 의하여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리

판구조론으로 보면 지구의 토질은 시루떡 형태의 여러 층의 판상으로 되어 있다. 역단층 이론으로 분석하면 산 또는 능선은 시루떡 같은 판상형 지면의 한 끝 부분이 높이 솟아오른 형태이다. 역단층 이론과 풍수이론을 결합하여 분석하면 지면의 상승 과정에서 평평하던 지표면 한 쪽이 솟아오른 후에 이루어진 완만한 경사면은 땅의 앞면이 된다. 한편 지하에 단층으로 있던 부분이 지상으로 솟아오른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며 지표면에는 날카로운 암석이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은 풍수이론으로 땅의 뒷면에 해당된다.

풍수지리 이론과 자연지리학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면 땅의 앞뒤에 대한 이론을 명확하게 한다. 풍수지리의 땅의 앞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자연지리학의 게스타 이론에서 경사가 완만한 곳, 역단층 구조에서 완만한 경사면, 양배암 이론에서는 표면이 매끈한 곳, 지표 구조지형에서 하곡(Synclinical Valley)등 이다. 이곳은 도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지대로 구분된다. 반면에 땅의 뒷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게스타이론에서 경사가 급한 면, 역단층 이론에서 급경사면으로 거칠은 표면, 양배암 이론에서 거칠거나 급경사면, 지표구조지형으로 산릉(Anticlinical Valley)에 해당되는 곳이다. 땅의 뒷면은 도시가 발달될 수 없는 지역이다.

명당의 기운

초생달형의 U자형 강변 도시는 전면의 강 상부에서 강물 따라 내려가는 바람 즉 산풍(山風; Mountain Wind)과 강의 하부에서 강변을 따라 상승하는 곡풍(谷風; Valley Wind)이 초생달 형태의 땅의 앞면에서 마주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결과적으로 초생달형 도시의 중심지는 산풍과 곡풍 그리고 땅의 기운 등 세가지의 바람이 모이는 지점이다. 이 세 기운이 모이면 땅의 기운과 공기가 음과 양으로 결합하여 회전하며 새로운 기운 즉 생기가 발생된다. 위의 세가지 기운의 교차점을 명당의 중심점이며 도시의 중심점 즉 도심 (Core)이라고 말하게 한다.

도심에서는 미세기후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이한 조건이 형성된다.

(1)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다 ; 일반적으로 바람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 산풍과 곡풍으로 변화된다. 초생달형의 U 자형 강변 명당에서는 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하부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게 된다.

(2) 공기의 압력이 높다 ; 초생달 형의 명당에서는 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2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 도심지의 경사면에 부딪쳐서 공기의 압력을 높게 만든다.

(3) 공기 중에 습도가 높고 일정하다 ; 강물 따라 불어온 습도 높은 바람이 도심지 내부에 머물게 되어 도심지의 습도가 높고 일정하게 만든다.

(4) 바람의 속도는 매우 미약하다 ; 강을 따라 내려온 바람이 도시의 경사면에 부딪치면서 바람의 속도가 미약하게 된다.

(5) 공기중의 온도와 조도가 높다; 도심지에서는 바람이 미약한 관계로 태양 빛에 의한 지면의 온도가 장시간 보유되어 지면과 공기의 온도가 높다.

(6) 조도가 높다 ; 공기중의 습도가 높아 태양 빛에 의한 조도가 높아진다.

(7) 강물에 의하여 아름다운 소리와 진동이 나온다.

(8) 여러 가지의 특이한 기운이 모여 신성한 공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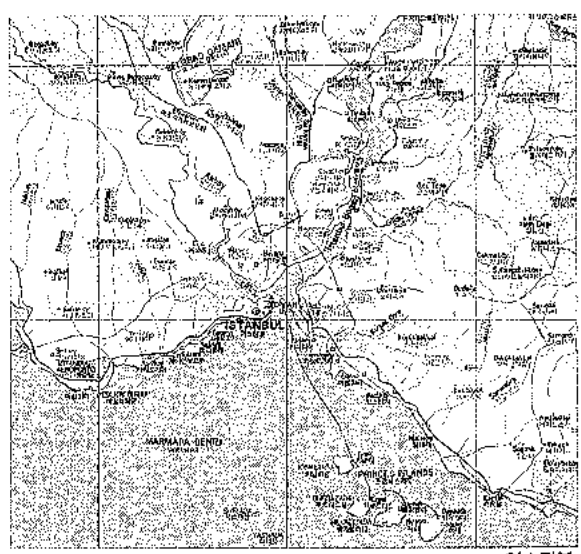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기후상의 특징으로 도심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생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구분하게 된다.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 하부의 특이한 기후는 사람들을 (1)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2)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3)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며 (4) 이웃과 활발한 교류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며 (5) 안정된 생활 위에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전체적으로 행운의 기운이 많은 곳이다. 생기가 많은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시로 발달하게 되었다. 도심은 도시 발생의 시발점이 된다.

대부분의 도심지역에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부자의 생가 그리고 시 청사 교회등 역사적인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푸랑크프르트의 도심에는 시 청사와 괴테의 생가가 바로 이웃하여 있다. 도심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많은 생기가 사람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하며 행운의 기운에 의해 성공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과학이 발달되기 오래 전부터 자연조건에 의하여 발달되어 왔다. 지세 중에는 사람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곳도 있다. 사람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역에 자주 모이게되고 또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연적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다. 도시의 자연적인 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람에게 좋게 느끼게 하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다. 도시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발달된 곳이다. 도심지 중에서도 시장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다. 시장의 위치를 풍수지리로 분석하면 이곳 시장이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은 모두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 상인들은 전국을 상대로 사업하여 비록 점포 면적은 작아도 사업규모는 매우 크다. 시장에는 물자와 사람과 행운이 많이 모인다. 이곳에는 재벌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도 하다. 시장이 명당이라는 증거가 된다.

직선형태의 강 주변이나 U자형 곡선의 강 상부 등의 지역은 바람의 속도가 빠른 곳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공기압력이 낮고, 온도가 낮으며 공기와



이스탄불

땅의 기운도 결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도시화되지 않는다. 강변에 도시가 자리잡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곳은 도시가 이루어진 위치보다 행운의 기운이 부족한 곳이다. 도시가 농촌보다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발전적인 공간인 것도 도시와 농촌과의 기운의 차이에 의한다. U자형 강의 하변이더라도 땅의 뒷면에는 행운의 기운이 모이지 않는다. 명당 이외의 지역에 자리잡은 사람들은 행운의 기운이 부족하여 도시사람들 보다는 발전이 부족하다. 폐허로 남아있는 오래된 도시 예컨대 마추피추와 같은 도시들은 명당이 아니어서 도시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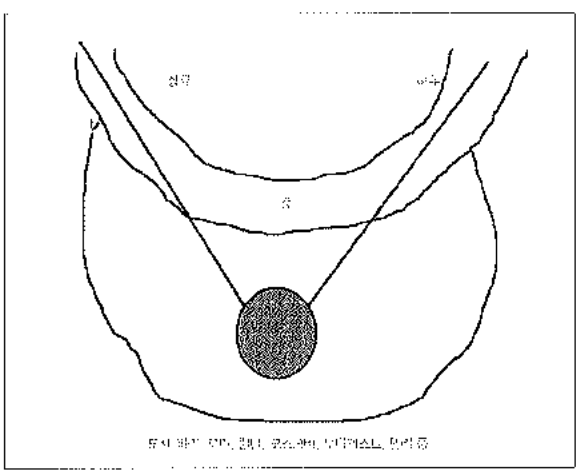
결론

로마 런던 파리 비엔나 모스크바 등 동서양의 여러 도시가 초생달형으로 U자형 강하변에 자리 잡은 것은 이곳이 풍수이론상 명당이기 때문이다. 로마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달하게된 것은 테베르강이 U의 형태로 흘러 명당을 이루고 있으며, 런던은 U자 형태의 테임즈강 덕택이다. 이와 같이 파리, 모스크바, 베를린 등 세계 여러 도시는 U자 형태 강의 기운에 의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초생달형의 U자형 강변의 도시는 전체적으로 명당이다. 도시 내부에서 명당의 중심지는 강 상류 및 하류로부터 직선적으로 불어온 바람이 지상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이곳은 도시 발생의 중심점이다. 중심점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많은 생기와 행운의 기운이 사람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도심의 중심지는 명당이며 행운의 기운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주택을 도시 중심부에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AD 80년에 석탈해가 초생달 형의 명당을 잡았듯이 세계 여러 곳에서도 사람들이 초생달형의 명당을 선택하여 이곳에 모여살아 오늘의 대도시를 이루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온 풍수지리 이론은 현대적 도시입지 분석이론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

도심지 내에서 명당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찾으면 된다. 시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대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외국으로 이민 가더라도 벽촌으로 간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도시의 시장에 자리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방법이다. 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건물의 값이 고가여서 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가장 작은 구멍가게라도 시장에 자리잡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공하게 된다. 시장은 명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U자형 강과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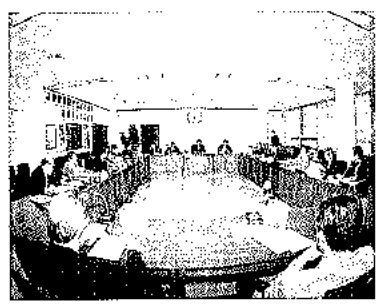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이중환, 택리지
2.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8.9
3.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 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8
4. 풍수지리와 현대건축 기문당, 1991.12
5.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2
6.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8
7. 권혁재, 자연지리학 제2판, 법문사, 1999.8.25
8. 최장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0.5.15
9. 김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 7.15
8. Eleanor Berman, NewYork, A Dorling Kindersley Book, 1999

협회소식 / 84
건축계소식 / 86
해외잡지동향 / 90
현상설계경기 / 96
법령 / 108
회원현황 / 11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4
2000년도 총목차 / 116

이사회

2000년도 14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4회 이사회가 구랍 22일(금)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비품폐기처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협의안건〉

· 제1호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협의
- 정관상에 탈회 또는 탈회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재협의키로 함.
· 제2호 : 경조비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협의
- 퇴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폐업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기로 함.
· 제3호 :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협의
- 예산부속규정으로 총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4호 : 정관개정안에 대한 협의
-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에 위임하되, 이사 약간명을 지원키로 함.

2000년 종무식 및 2001년 시무식

새해 힘찬 출발 다짐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구랍 30일(토) 2000년도 종무식을 갖고 한 해 업무를 마쳤다. 이날 이의구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건축계의 현실속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회원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협회발전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공로직원에 대한 시상으로 본부 김보선대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또 2001년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사무국 출범

국제 업무 창구 단일화, 건축사회관 3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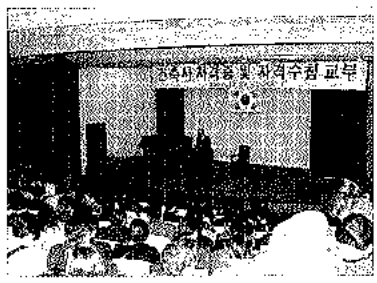
건축계의 국제업무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한국건축단체연합회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의 사무국이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 3층에 마련되어 앞으로 국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UIA한국지부를 겸한 FIKA는.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제전담기구로서 국제화시대에 한국건축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 02-525-8378 • 팩스 : 02-525-8379 • 홈페이지 : www.fika.or.kr • E메일 : fika2000@korea.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FIKA사무국 우)137-877

건축사면허증 교부

구랍 22일 우리 협회에서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에서는 구랍 22일(금)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했다. 협회 대강당에서 있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는 최종합격자 9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양교육도 함께 있었다.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명정도이며,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활용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신청후 3일이내에 처리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료 및 사용가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하신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먼저 Http://www.kira.or.kr로 접속합니다.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을 선택합니다.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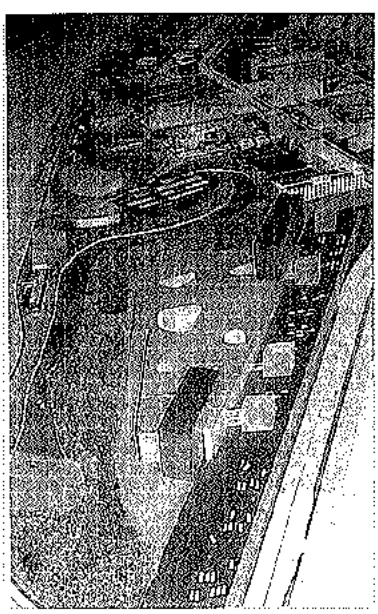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아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회에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바랍니다.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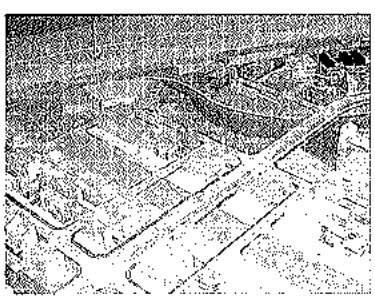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제1단계 설계전시회

공동성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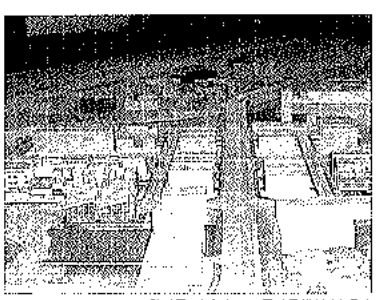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의 1백55만5천9㎡ 대지에 들어설 문화산업단지인 출판도시건설을 위한 제1단계 설계전시회가 지난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1년 1월 15일까지 파주출판조합 인포룸에서 열렸다. 이번에 참여한 건축가는 김광수/팀반건축,김병윤+안희상/시명건축,김병현/장건축,김영섭/건축문화, 김영준/이로재, 김원/광장, 김인철/아르카움, 김헌/에다건축,김종규/m.a.r.u.건축,민현식/기오헌,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에, 스리알렌, 승효상/이로재, 이일훈/후리,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이항배/단우모람건축, 이효추/명승건축, 정기용/기용건축, 정성원/세종대,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욱/스튜디오 최욱,플로리안 베이겔 +필립 크리스투 등이다. 이번 열린 제1단계 설계전시회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2차 지구가 추가된 전시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며, 제2단계인 제11섹터부터 제21섹터에 참여하는 섹터건축가는 김영섭, 방철린, 김승회, 권문성, 김 헌, 최두남, 이성관, 민현식, 우경국, 최문규, 서혜림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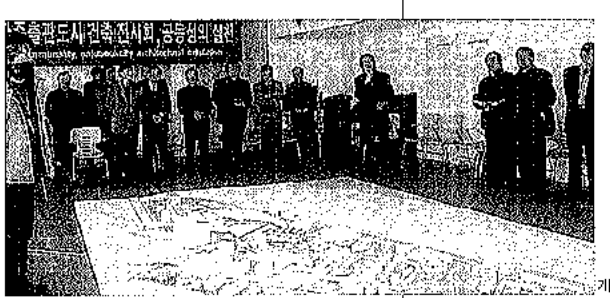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전체 모형



시범지구 상세



단지를 가로지르는 주도로에서 본 모습



개별 섹터건축가의 발표

한국 도시 · 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해 12월 9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문화연대공간환경위원회(위원장 정기용/기용건축 대표)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대학로의 흥사단 강당에서 '난개발, 해법은 없는가: 한국 도시 · 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의 시민생태공원화, 기무사이전 등을 주장하며, 우리 도시 · 건축환경에 있어서 공간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위 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도시 · 건축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 건축공간의 생산방식에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건축가와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 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상헌(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정기용, 박철수(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수석연구원)씨가 참여했다. 이 중 '한국 도시 · 건축의 공공성 비판과 공공 부문에서의 건축가 · 도시계획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상헌교수는 민간 부동산 자본에 의한 자유방임적 도시개발은 과밀과 환경문제, 도시 일관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선진국들은 19세기부터 자유방임적 도시개발을 규제 ·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왔고, 공공성이 강한 주택 및 신도시 개발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사업과 유착되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를 경제적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건축가, 도시계획가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부문 건축가, 도시계획가 및 설계 전문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연대공간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제도개혁을 위한 건축가,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들의 서명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토론회의 성과를 다듬어 올 상반기에 보다 확대되고 조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 컨텐츠 공모전 2001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대한건축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건축 디지털컨텐츠공모전 2001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건축정보화 분야의 개척, 건축정보 인프라 구축의 조기실현, 건축분야의 정보화 저변확대를 주목적으로 한다. 문의: 공모전사이트 www.digitalarchitecture.or.kr

-공모분야: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
-참가신청접수: 2001. 3. 10일까지
-심사기준: 독창성, 디자인 및 표현력, 응용기술력, 실무적 공헌도, 완성도

제5회 건축사진강좌 개최

2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는 제5회 건축사진강좌를 2001년 2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현대건축물촬영, 현상,인화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임정의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실습 지도한다.

-기간 : 2월 13일부터 4월 27일(12주)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8시30분
-장소 : 청암 스튜디오-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7 (청화빌딩303호)
〈뱅뱅사거리 논노빌딩옆 서측건물〉
-참가인원 : 12명
-참 가 비 :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참가문의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 전화 (02) 598-6100

▷강의 내용
1주 - 건축을 보는 눈 (슬라이드 강의)
2주 - 필요한 기자재 선택 (카메라, 렌즈, 필름의 선택)
3주 - 빛과 공간의 조화 (자연광과 인공광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타임,조리개,심도의 이용방법)
5주 - 현대건축물촬영실기-도시 (토요일오후 3시-오후7시)
6주 - 현대건축물의 촬영방법 (현대건축물 스라이드)
7주 - 모형촬영의 표현과 테크닉 I (단지모형과 단일모형촬영실기)
8주 - 모형촬영의 테크닉 II (모형재료에따른 촬영실습)
9주 - 고건축답사 사진기행 (토요일 출발-일요일까지/1박2일)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

미국임산물협회, 미국 목재산업 참관단 모집 및 2001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2001 주택빌더즈 박람회 참관 등

미국임산물협회 (AF & PA) 한국사무소는 2001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2001 주택 빌더즈 박람회 및 목조 주택 관련 산업체 참관단을 후원하고, 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에서 2001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 57회 Builders Show를 참관에 이어 목재산업 및 다양한 목조 주택의 건축 및 개발 현장을 관계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시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목조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미 주 택 박 람 회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는 미국주택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100여 개의 분야에 관련된 각종 건축 자재 및 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하여 1,000여 개 이상의 업체

가 참가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택 및 건설 관련 박람회이다. 박람회 참관 인원은 30여 개국의 국제 방문객을 포함한 약 70,000 여명에 이른다. 동 참관단 모집에 관한 주관은 인터컨티넨탈 여행사가 진행하며, 전시회 참가 등록비 및 현지 4일간의 방문 일정 및 이에 따른 교통비 일체를 미국임산물협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1인당 예상 참가 비용은 1, 898,000원이다.

한편, 미국임산물협회는 오는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종합주택박람회인 2001 경향하우징페어에 전시관을 개설하고, 미국목재 및 목구조 건축과 목조 인테리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김보영 부장 (722-3685/6), 인터컨티넨탈 여행사 이복영 이사(717-6687)

연세건축 2001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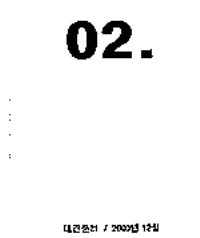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동문들이 학과 설립 40년을 조망하는 '작은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Suku Gallery에서 단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연세대 건축과 총동창회(회장 이중명)가 주최하고, 졸업생 50여 명이 참가하여 저간의 건축작품 및 건축활동 사례를 패널로 작업하여 전시장에 걸게 된다. 25cm 각 두 장의 약식 패널에 표현하는 이들의 작품은 퍼블리케이션을 위한 북퍼포먼스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전시는 단 3일의 외부 공개가 끝나면 연이어 1개월여 동문들간의 이메일링 교환을 통한 상호 작품정보가 지속된다. 그 결과물은 오는 4월 3일을 기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행사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강철구(동우건축그룹 회장)씨는 이번 전시와 책작업을 통해서 연세대 건축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Suku Gallery 큐레이터 정유경 (02-512-8990), 연세대 건축과 총동창회 사무국: 김문회 총무(02-544-5879), 홍보대행: (주)이석미디어/월간 건축인 poar (02-519-6520)

대 · 건 · 준 02 발간



대구의 젊은 건축가들이 뜻을 모아 「21세기의 대구건축을 준비하는 젊은 건축인의 모임」(약칭 대 · 건 · 준 21)을 지난 1996년 최초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건축, 대구건축에서의 문제제기, 이해, 그리고 해결방안의 모색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 결과를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 · 건 · 준 02」를 발간하였다.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40대 전후의 대 · 건 · 준 회원들은 아름다운 도시와 발전된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의: 권종욱 053-810-2438

신간안내

교회건축의 이해
현대미술관 연구 제11집

▷교회건축의 이해

"오늘날 한국 교회건축의 모습들이 세속의 잡다한 건축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데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충족시키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생각하였으나, '건축'으로서의 교회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함이며, 또한 교회건축이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대내외적인 영향을 간과한 때문이다."

한국교회건축에 대한 진단이다. 저자는 이러한 진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과 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조목조목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다.

제1부 성격의 "교회건축의 이해와 미래의 방향"에서는 교회와 건축을 본질에서부터 다시 논의함으로써 교회건축에서 추구해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건축의 역사 속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미래교회가 건축가와 함께 지향해야할 교회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2부 "교회건축의 실제"에서는 교회당건축을 시작하는 교회가 교회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하여 건축주로서 알아두어야 할 건축의 기본적인 실무과정과 교회건축과정에서 흔히 부딪

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한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교회와 교회건축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들을 위해 교회 기능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공간설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책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교회건축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실제 설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를 비롯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고있어 교회건축에 관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비롯하여 일반인도 교회건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역사를 한눈에 알람하고 음미할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시춘 지음/357쪽/2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현대미술관연구 제11집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모은 논문집, 「현대미술관연구 제11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제11집에는 특히 '특집: 고 김희대연구관 유고원고' 에서는 1999년말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만 41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국내외 미술계의 아쉬움을 자아낸 김희대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주요 논문 중 3편을 수록하였다. 또한 기획전시연구에서는 정준모 학예연구실장을 필두로 지난 1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이 수행한 주요 기획전시의 진행 및 구성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와 방향이 각 담당 큐레이터에 의해 제시된다. 그리고 최은주 덕수궁 분관장의 국립기관으로서의 근대미술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와 강승완 학예연구관의 현대미술관과 디스플레이 등의 논문을 통해 예술행정의 측면에서 현대미술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등이 소개되고 있다.

284쪽/국립현대미술관 발행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모집

정부 기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 향상훈련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주)한국 오토데스크 공인교육원에서는 오랜 경험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산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효과적인 실무교육의 뒷받침이 되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도록 컴퓨터 설계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개설하였다.
디자인 분야(설계, 인테리어, 3D모델링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차원 높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1.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

2. 노동부 지원 규모
※정부지원 직장인 능력개발 과정(60 ~ 80 %지원)
※교육비 산정 기준 :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험 규모에 따라 산정

3.교육비 산정
※컴퓨터 설계(CAD)과정 교육비:1인당 94,320원(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75,450원, 대규모:66,020원
※모델링 과정 교육비:1인당 99,320원(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79,450원, 대규모:69,520원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험 규모에 따라 지원

4. 교육 과목
※컴퓨터 설계(CAD)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2차원 명령어 습득
-캐드 사용자들을 위한 캐드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도면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모 델 링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3차원 명령어 습득
-AutoCAD 2000을 활용한 Surface 모델링 교육
-AutoCAD 2000을 활용한 Solid 모델링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3차원 모델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5. 교육 기간
- 2001년 1월 8일(월)~1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1월 15일(월)~19일(금) '모델링 과정'
- 2001년 1월 29일(월)~2월 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2월 5일(월)~2월 9일(금) '모델링 과정'

6. 문의
-교육문의 : 02-555-0163 담당:주문선 대리
-인터넷 사이트:
http://www.atck.co.kr
-E-mail:webmaster@atck.co.kr

Architectural Record
Techniques & architecture
Domus
건축문화
신건축
a+u

Architectural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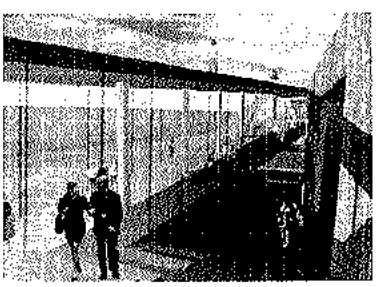
2000년 12월호

건축계의 새로운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특집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의미를 미국과 새로운 경제 체제라는 배경 속에서 재고해보고 있다. 아울러 건물 타입별 연구에서는 흔히 정치적 영향에 의해 이끌린다고 여겨지는 공동 주택을 다루었다.

■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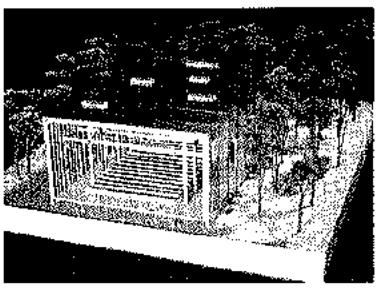
미래 건축계의 동향을 주도할 젊은 건축가/건축사무소 10선을 뽑아보았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 지역적 특성, 재료, 내외부 문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세계 건축계 속에서 다양한 경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 뉴욕의 Cho Slade Architecture



한국 파주 아시아 출판 문화 정보 단지는 전시관, 회의장, 호텔, 레스토랑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거대 시설로, Cho Slade Architecture는 랜드스케이프, 하부 시설, 건축을 융합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의 단계별 증축, 계절 변화, 그리고 하루 24시간 속의 이용 형태 변화 등 건축에 적용될 시간성에 대한 중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미국 시카고의 John Ronan



미국 일리노이 주 교외에 지어질 교회 작품은 목재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구조 조작과 바깥 패널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공간의 본질을 구조와 재료에서 찾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 외에 ▶미국 시카고의 Garofalo Architects, ▶일본 센다이의 Atelier Hitoshi Abe,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Design Office,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Kuth/Ranieri Architects, ▶핀란드 헬싱키의 Sanaksenaho Architects, ▶미국 뉴욕의 Lewis.Tsurumaki.Lewis, ▶영국 런던의 Birds Portchmouth Russum Architects, ▶미국 뉴욕의 ShoP-Sharples Holden Pasaquarelli의 작품 세계와 특성들이 소개되어 있다.

■ 신경제가 건축 실무와 이론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모더니즘 건축은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이데올로기가 삭제된 채 그 형태적 특성만이 수용되었다. 건축 이론은 역사적으로 철학과 맞물려 있어 최근 급부상한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건물 타입별 연구 - 공동 주택

공동 주택 부문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건축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축주와 정부 측에서도 이들 계획에서

디자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간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주택 사업 분야의 국가 보조금 지급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에세이와 아울러 최근 주거 단지의 모범적인 사례로 ▶David Baker Associates의 미국 산호세 Pensione Esperanza, ▶Sergio Guardia Architects의 미국 뉴저지 Hoboken Ballpark, ▶Weinstein Associates의 미국 워싱턴 DC Capital Hill Townhomes, ▶Sienna Architecture Company의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Irvinton Place 등이 소개되었다.

■ 2000년도 제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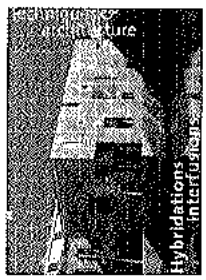
건축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콘크리트, 석재, 목재, 철재, 플라스틱 제품, 마감재 등을 간략한 설명, 제조사 연락처와 함께 다루었다.

■ 기타

▶Rem Koolhaas의 미국 라스베가스 Venetian Resort-Hotel-Casino 갤러리 계획, ▶Richard Meier의 미국 롱아일랜드 법원 개관 소식, ▶도시 이론가 Jane Jacobs의 Scully Prize 수상 소식, ▶Koolhaas, Peter Eisenman, Cornel West, Richard Rorty, Stan Allen 등이 참석했던 지난 11월의 미국 뉴욕 MoMA 세미나 " Things in the Mak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the Pragmatist Imagination" 소개, ▶도시 교통 도로망 계획에 대한 비평, ▶2001년도 건축 경기 전망, ▶Bruce Mau의 Life Style, Isamu Noguchi의 작품집, American Contemporary Furniture 등 최신 서적에 대한 평가, ▶건축 설계에 있어 디지털 도구가 미치고 있는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Techniques & architecture

200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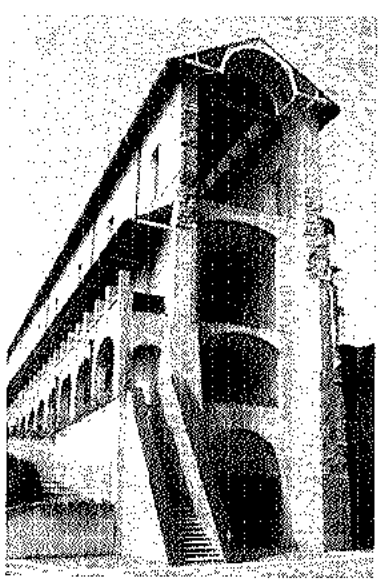


옛 건축에 대한 증축, 개축, 보존 작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서는 Andrea Bruno, Herzog & de Meuron, Steven Holl 등의 작품을 다룸과 동시에 이러한 리노베이션이 담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 들도 짚어보았다.

■ 작품 소개 -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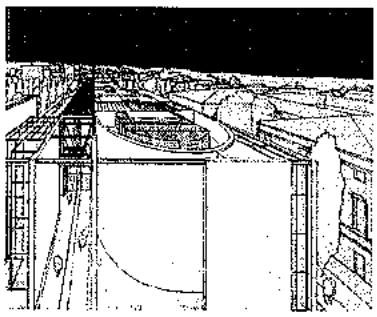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개축,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미술에서의 복원 문제가 시간의 보존인지, 아니면 시간이 남긴 변화의 제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과거 작품이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미학적,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Andrea Bruno의 이탈리아 투린 지방 Castello Rivoli



고건축이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원형대로의 복원을 주장하는 측과 증축 나름대로의 작품성을 주장하는 측 사이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중 후자의 입장으로 지난 30년간 활동해온 Bruno는 대지가 가진 영속적인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건축을 통해 기억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번 고성 증축안에서는 기존 건물과 명확하게 대립되는 철골재와 유리로 증축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두 부분이 서로의 특성을 유지한 채 대비의 미를 통해 전체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Guido Canali, Mimma Caldarola의 이탈리아 Sassuolo 시청



1985년 이곳 감옥을 지역 시설로 개조했던 Canali가 이번에는 시청 증축 계획에 착수하였다. 시청 건물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시실과 회의실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을 기존 주택들 사이에 삽입해야만 했다. Canali는 기존 학교 건물의 벽면 일부를 보존하면서 내부에 일반 보행로를 갖는 아케이드 형식의 시설군을 계획하였다.

그 외의 증축 작품들로 ▶Herzog & de Meuron Partners의 영국 런던 Tate British, ▶Sol Madridejos, Juan Carlos Sancho의 스페인 San Fernando de Henares 시청, ▶Jean Guervilly의 Le Havre 다목적 공간, ▶Stephan Beel, Lieven Achtergael의 벨기에 Courtrai 아트 센터, ▶Jacques Ferrier의 프랑스 니스 상점, ▶Valerio Olgiati의 스위스 Flims 문화 센터, ▶Steven Holl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세기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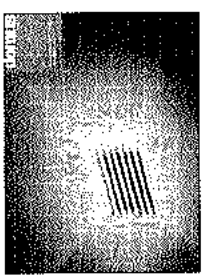
증축, ▶Antoine F lix-Faure, Philippe Macary의 프랑스 Grenoble 건축학교, ▶Antoinette Robain, Claire Guieysse의 Rennes 대학 의학 도서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Gigon et Guyer, Laurent Hodebert, Moussafir/Paillard & Jumeau/Marin-Trottin & Trottin 등이 참가한 프랑스 Mouans-Sartoux의 Honegger-Albers 미술관 설계 경기 결과, ▶해변가에 위치한 Sandra Barclay, Jean-Pierre Crousse의 페루 Canete 저택, ▶독일 하노버 엑스포 방문기, ▶최신 형광등 디자인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서편에서는 철학과 건축 시리즈 중 '장 보드리야르와 장 누벨' 편, 미술과 건축: 새로운 공통성, 안도 다다오 작품집, 건축과 영화 II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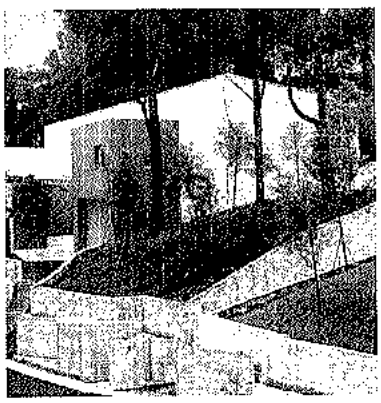
2000년 12월호



최근 작품으로는 Ettore Sottsass, Herman Hertzberger의 건축이 소개되었으며, 도시별 특집에서는 그 역사성 위에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로마의 사례를 다루었다. 아울러 인테리어 부문에서는 비슷한 경향으로 묶을 수 있는 세 명의 이탈리아 실내 건축가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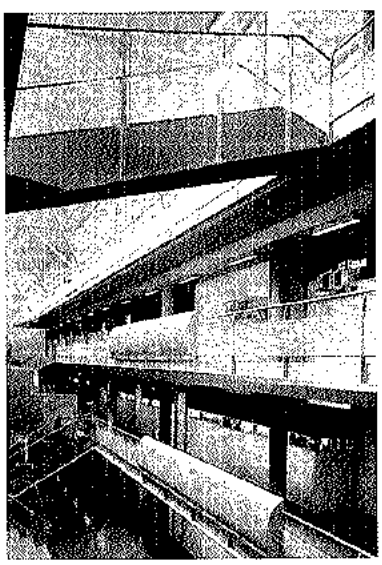
■ 근작소개

▶Ettore Sottsass의 싱가폴 주택 단지



홍콩 재력가의 의뢰로 계획된 이 싱가폴 Jasmine Hill의 이 단지는 Sottsass 특유의 원색과 유희적인 형태들이 부각되는 6개의 저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각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독특한 풍경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세세하고 제한적인 건축법에 의해 그 기본적인 형태가 도출된 이 단지는 대규모의 고밀도 주거가 발달해 있는 싱가폴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Herman Hertzberger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고등학교



학교를 도시의 축소라고 여기는 Herman Hertzberger의 16번째 학교 프로젝트로서 Montessory College가 소개되었다. 그는 매 학교 프로젝트마다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교 내부를 어슬렁 거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 건물중앙에 큰 홀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이유이며 계단도 또한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 되도록 유도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계단과 복도로 이뤄지는 "Learning Street"은 두 개의 교실매스가 반층 차이를 두고 연결되어 입체적으로 계획되었다.

▶Future Systems의 Marni 부띠크

밀라노에 본부를 둔 패션 회사인 Marni의 부띠크 기본형을 제시한 Future Systems의 이 디자인은 푸른색과 은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곡선 형태가 강조되어 있다.

■ 로마

역사성 깊은 도시인 로마가 현대의 도시성에 대응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해 가기 위해 시장 Rutelli의 지휘 하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Richard Meier의 교회와 Ara Pacis Museum, Massimiliano Fuksas의 새 컨벤션 홀, Zaha Hadid의 현대미술관 등 전위적인 형태가 부각된 계획들이 현재 건축되고 있으며, 전후 로마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Termini 역도 최근 보수되었다. 지금까지 도시 계획적 측면에 대한 계획 부재로 방치되었던 여러 광장들도 새 디자인이 가미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 인테리어

롬바르도 풍의 실내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인테리어 건축가 Manolo De Giorgi, Massimo Curzi, Bruno Vaerini의 작품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공간은 일반 디자인과 무대 장식보다는 건축을 지향

하고 있으며, 형태, 물질 등이 제공하는 기억을 잘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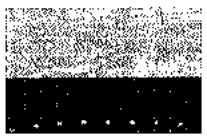
■ 기타

▶Frank Gehry 등의 작품이 관여된 시카고 랜드마크 건축 사업, ▶Diesel의 혁신적인 광고 전략, ▶미국 텍사스 주 Marfa에 위치한 Donald Judd와 Dan Flavin의 공동 작업, ▶Bilbao 미술관의 성공 이후 뉴욕에도 Gehry의 새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는 Guggenheim 재단의 고문 Thomas Krens와의 인터뷰, ▶Words and Build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Art and Its Shadow, Fosse Ardeatine Roma 등의 저서 소개, ▶쮜리히 Museum f r Gestaltung, 런던 Victoria and Albert Museum, 베를린 Vitra Design Museum, 뉴 욕 Guggenheim Museum 등의 최신 전시회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건축문화

2000년 11월호

이번 호에서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80년대 이후로 완성된 랜드스케이프 작품 20개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랜드스케이프들은 빌딩 앞 작은 정원에서부터 공원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개념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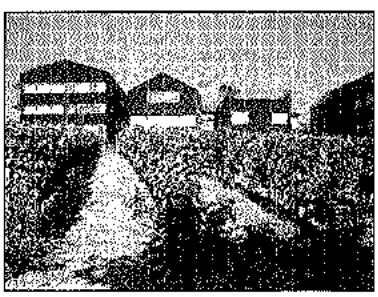


■특집: 랜드스케이프

▶1980년대 이후 현대랜드스케이프의 실험

랜드스케이프는 이제까지 '에콜로지'나 '커뮤니티' 등의 관점에서 언급되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80년대 이후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류로 묶어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연 혹은 도시에 대한 태도에서 종래의 것들과는 다른 연을 보이거나 미술분야와의 협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 중에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의 본질을 흔드는 듯한 작품들도 포함되어있다. 이번 특집은 이러한 현재의 랜드스케이프가 갖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봄과 동시에 '풍경'이라는 시점으로 돌아가 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집에서 선정된 20개의 작품들은 각각 'Part1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선', 'Part2 도시에의 제안', 'Part3 미술과의 사이에서'라는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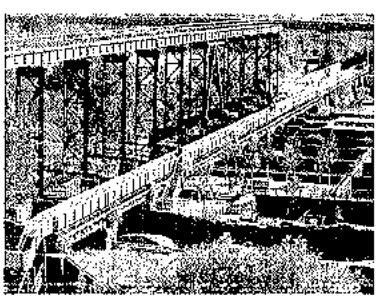
▶Part1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선



셍 제임스(Saint-James) 호텔 · 식당의 정원

Part1에서 소개된 8개의 작품들은, 경작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셍 제임스(Saint-James) 호텔 · 식당의 정원」(1989): 이브 브리니에(Yves Brunier), 「레끌레르(Leclerc)장군광장」(1992): 이브 브리니에 & 이사벨 오리코스뜨(Isabelle Auricoste), 렘 콜하스가 설계한 쿤스탈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뮤지엄파크」(1993): 이브 브리니에, 두 가지 색의 조개들로 대지의 패턴을 만든「이스턴 슈켈트(Eastern Scheldt)방파제환경계획」(1992): West 8, 랜드스케이프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구성을 보여준 「하노버만국박람회 네덜란드관」(2000): MVRDV, 건물내에 구칙적으로 반복되며 배열되어있는 20여개의 중정을 디자인한 「스위스컴(Swisscom)빌딩의 정원(1998)」: 디터 키나스트(Dieter Kienast), 빌딩과 도로가 면한 좁은 공간을 작은 연못과 식재로 구성한 「에렌스터 바슬러(Ernst Basler) 앤드 파트너社의 빌딩」(1996): 디터 키나스트, 「리콜라(Ricola)社 공장의 외부공간계획」(1994): 디터 키나스트 등이다.

▶Part2 도시에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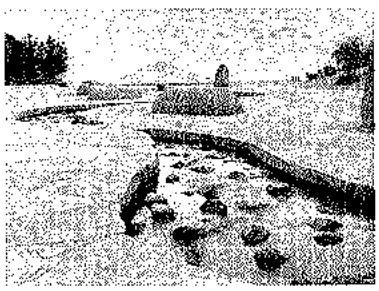


듀스부르그 노흐트(Duisburg-Nort) 경관공원

Part2에서 소개된 6개의 작품들은 주로 도심속에 만들어진 공원들이다. 「베를린미술관지구 집합주택의 랜드스케이프」(1986): 디터 프로빈(Dieter Frowein)外, 「라빌레트 공원」(1991):베르나르 츄미, 「라빌레트 공원 콤페안」(1982): 렘 콜하스, 「앙드레 시트로엥(Andr -Citro n)공원」(1992): 질 클레망+패트릭 베르제(Gilles Cl ment+Patrick Berger), 「듀스부르그 노흐트(Duisburg-Nort) 경관공원」(1991~): 라츠(Latz) 앤드 파트너, 「베르시(Bercy)공원」(1995): 필립 라갱(Philipp Raguin) 등이 소개되었는데 이 중에서 듀스부르그 노흐트 경관공원은 독일 럴 공업지대의 옛 망간정재소를 경관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공장의 벽체와 운반용 철로 등을 재활용하여 작은 포켓정원이나 관람로 등으로 만듦으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Part3 미술과의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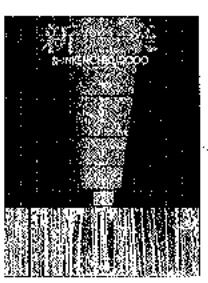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시나리오

조각가 로버트 모리스나 로버트 스미슨등이 1970년대에 펼친 대지미술은 건축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Part3에서는 조각가와 건축가들의 랜드스케이프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작품들은 「스토니패스(Stonypath)」(1967~): 이안 해밀턴 핀레이(Ian Hamilton Finlay), 「로덴(Roden) 클레이터 계획」(1977~): 제임스 튜렐(James Turrell), 「캘리포니아 시나리오」(1982): 이사무 노구찌, 「낭트(Nantes)를 위한 미로」(1994):단 그래햄(Dan Graham), 「히마와리 舞臺」(2000): 오카자키 케이이치로+엔가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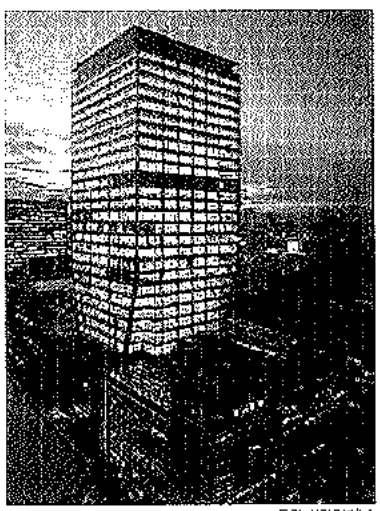
신건축

2000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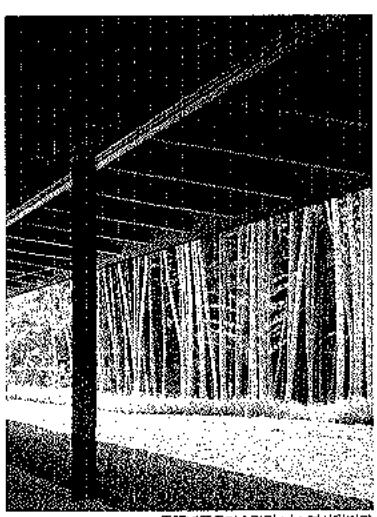
이번 호는 타케나가(竹中)工務店의 동경 산케이빌딩과 오카다 신이치(岡田新一)설계사무소의 톳판 코이시카와(小石川)빌딩 등 사무소건축과 쿠마 겐고(隈研吾)의 2개의 미술관, 그리고 야마구치 타카시(山口隆)의 位牌堂을 비롯 모두 3개의 불교건축물이 소개되었다. 또한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최근작 3개가 소개되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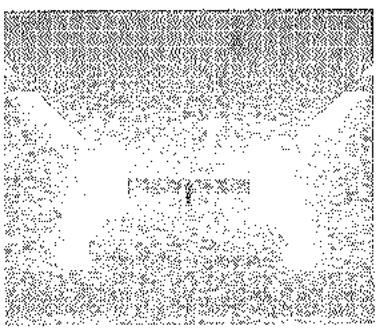
동경 산케이빌딩

▶타케나가工務店의 동경 산케이빌딩은 본관, 별관, 신관 3개동으로 구성되어있던 산케이빌딩들중, 별관과 신관을 먼저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지은 건물이다. 본관은 현재 해체중이며, 본관의 자리는 공개공지로 남게된다. 신축건물은 저층부와 사무실로 쓰이는 고층부분을 V자형 구조물로 분리시켜 저층부에 자유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고층부를 기존 건물을 피해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었다.



馬頭町廣重미술관과 나스역사탐방관

▶쿠마 겐고의 馬頭町廣重미술관과 나스역사탐방관은 단아하고 절제되어있으면서 일본적 색체가 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긴 장방형의 평면에 박공지붕을 얹은 단순한 형태를 취하면서도 목재와 유리의 사용, 또한 새로운 재료의 실험이 돋보인다.



야마구치 타카시의 위패당

▶야마구치 타카시의 위패당은 흰 색의 단순한 상자모양을 한 미니멀한 디자인이다. 내부도 모두 흰 색으로 도장되었으며, 단순한 공간에 조명에 의한 공간연출로 종교건물이 요구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후루이치(古市) 도시건축연구소의 쿠효지(九品寺)山門과 納骨堂은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엄격한 형태에 목재의 격자무늬 창살을 가미하여 기존건물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아이다 타케후미(相田武文)설계연구소의 西園寺本堂은 기하학적인 형태에 기와들을 첨가하여 복합적인 형태어휘를 취하고 있다.

▶세지마 카즈요의 주택, 청소년시설, 상업시설 등 최근작 3작품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작은 주택'은 서로 크기를 조금씩 달리하는 3개 층이 약간씩 뒤틀리며 쌓아올려지고 외벽은 서로 연속되게 연결된 형태.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형태도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 공간구성은 일본의 여타 소규모 주택과 별다른 점은 없다. 단순한 공간구성은 다양한 재료사용으로 보완하였다. '江山閣'는 동경에서 전차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 합숙소로, 여기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단순한 평면속에 필요한 기능들을 참

신하게 담아내는 세지마 카즈요 건축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외관은 그의 작품에서 흔히 그렇듯이 의도된 듯한 무심함이 느껴지나 절제된 재료와 형태의 사용은 각 재료와 공간사이의 대비감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정방형의 평면은 세면 · 탈의 · 욕실, 타다미로된 침실, 주방이 딸린 미팅스페이스에 의해 3등분되어 매우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이면서도 매우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상업시설인 'hhstyle.com'도 내부공간의 슬로프를 외벽을 이루는 유리 커튼월에 나타나게한 것 외에는 건물의 외관을 특별히 치장하지 않고 있다. 이 건물에서도 재료 사용에 의한 공간연출과 시설물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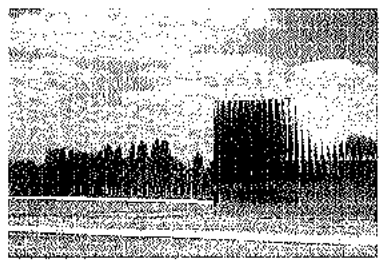
2000년 11월호

이번 호는 특별히 꾸며진 특집은 없으나 장 누벨(Jean Nouvel)과 안 라카톤(Anne Lacaton) & 장 필립 바설(Jean Philippe Vassal) 그리고 도미니끄 뻬로(Dominique Perrault)의 작품이 주로 소개되었다. 여기에 평론가 쟈끄 뤼깡(Jacques Lucan)이 쓴 장 누벨의 에세이가 덧붙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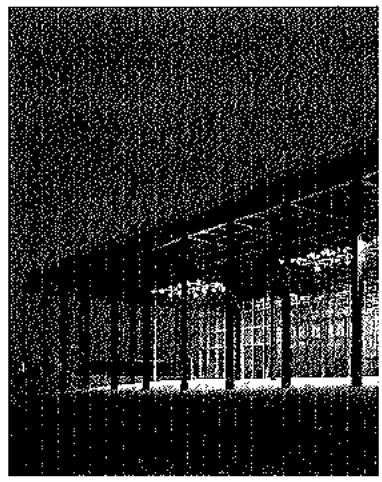
■ 작품

▶프랑스와 스위스의 건축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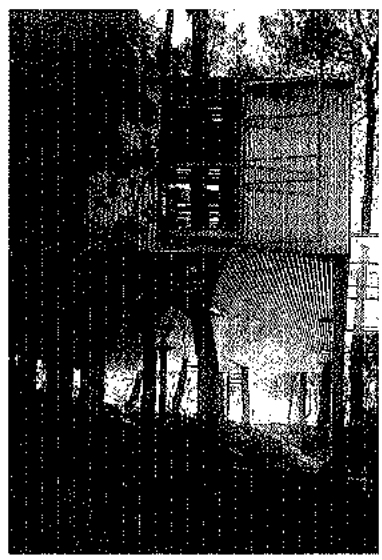
소개된 건축가와 작품들을 살펴보면,



어플릭스(Aplix)공장



낭트(Nanies) 법원



리저 캅 퍼렉(L ge Cap-Ferret)의 주택

프랑스와 스위스 건축가들이 주류를 이룬다. 도미니끄 뻬로의 작품으로는 「어플릭스(Aplix)공장」 한 작품만 소개되었으나,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장 건물 전체는 접혀진 스테인레스 스틸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져 있고, 이들로 구성된 외벽은 주변 경관을 비추어내기에 충분한 반사도를 지니고 있다. 장 누벨의 작품은 모두 4작품이 소개되었는데, 「낭트(Nantes) 법원」, 「뤼세른(Lucerne)의 호텔」, 「호텔과 메인 스트리트 피어(계획안)」, 「세느 강변의 미술관 계획안」등이다. 안 라카톤 & 장 필립 바설의 작품은 「레제캅 페레(Lège Cap-Ferret)의 주택」, 「라타피(Latapie) 저택」, 「모짓리아(Morsiglia)의 주택(계획안)」등 3작품이다. 이 외에도 쟈콥 & 맥퍼랜(Jakob & Macfarlane)의 「퐁피두센터의 레스토랑 인테리어」, 리슈테 & 달 로샤(Richter & Dahl Rocha)의 「네슬레(Nesté) 본사 리노베이션」등이 소개되었다.

▶도미니끄 뻬로와 장 누벨의 메탈

도미니끄 뻬로가 메탈(metal)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의 감각에 호소하는 소재로서이며, 또한 건물의 피복이 되어 그 주위의 모습을 반사하는 직물(fabric)로서이다. 어플릭스공장의 피복도 마찬가지이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수천 번이 접혀있으며 주변의 경관을 반사하고 있다. 장 누벨이 司法의 이미지를 표출하려고 할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몇 겹씩 겹쳐있는 딱딱하고도 엄격한 메탈 그리드는 그 안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변환경을 투영하는 작품들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모두 소재와 그 성질에 대한 알기 쉽고 적절한 이해를 통해, 그것의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 작품들이 제안하고 있는 건축은 어떠한 情景을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주변 환경이 건물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정경은 차차 무수한 정지된 이미지가로 싸여 서로를 비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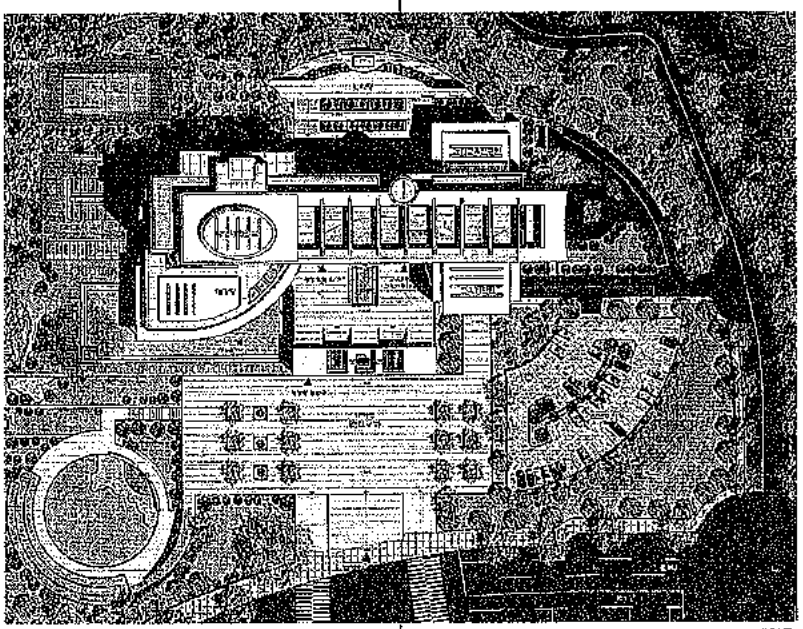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교육청사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작년 2000년 12월 4일 심사를 거쳐 원룽건축사사무소(김원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울산대 김선범 교수 등 17명이 맡았다. 당선작외에 우수작으로 (주)부명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유진두)안을, 가작으로 (주)원도시건축(변용)안을 각각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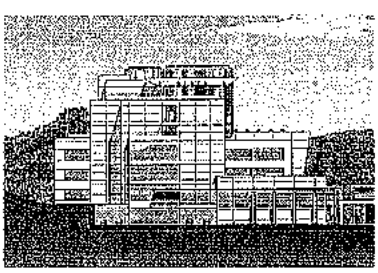
▶ 당선작 / 원룽건축(김원효)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49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지
대지면적	33,900.00m²
건축면적	3,836.21m²
연면적	19,795.93m²
건폐율	11.32%
용적률	37.98%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조경면적	11,881.04m²
주차대수	244대(장애인주차 8대포함)
구조	SRC조
외부마감	알루미늄쉬트, 화강석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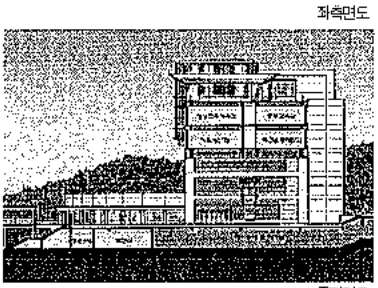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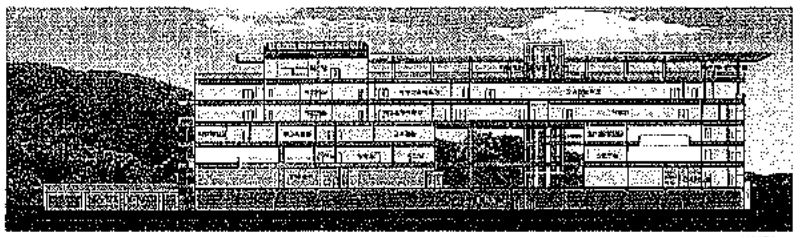
계획안의 목표는 울산광역시 교육의 중심시설로서 적절한 위상을 부여하면서 시민을 위한 열린 마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의미를 주고자 하였다.
지역적 맥락과 전통적인 건축공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통성을 계승하고 울산시민을 위한 건축적공간의 배려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청사의 새로운 이미지 창조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대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속에 새로운 동적요소로써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여러형태의 행위들을 수용하고자 했다.
진입부의 앞다당에서부터 진입광장을 거쳐 안마당 그리고 뒷마당으로 연계되는 외부공간이 설계의 큰 줄기가 된다. 흐름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매개공간을 배치시켜 풍부한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흐름들은 자연스러운 위계를 형성하며 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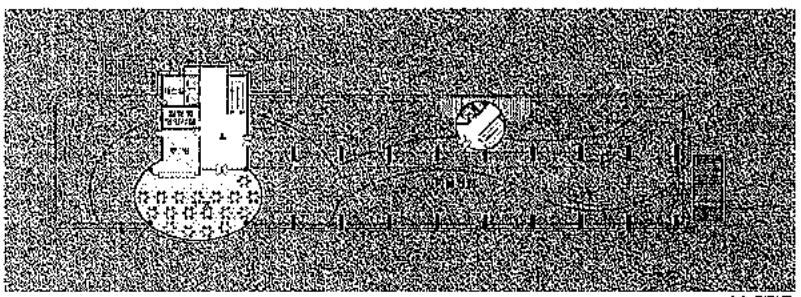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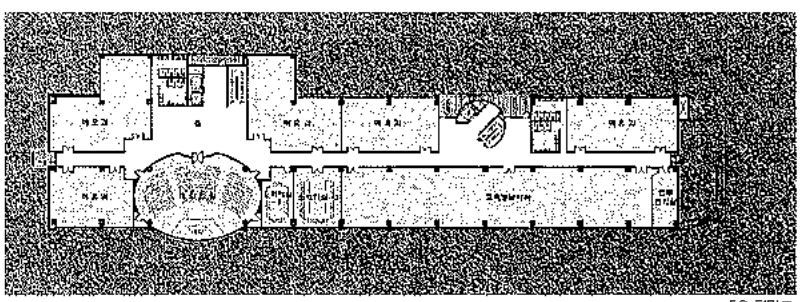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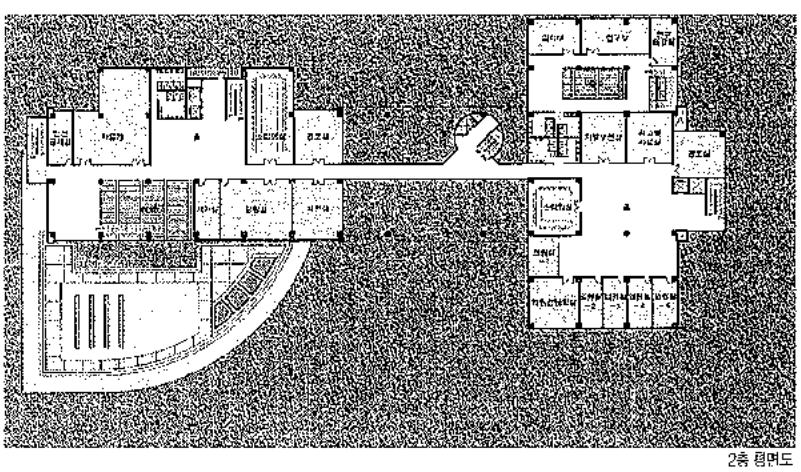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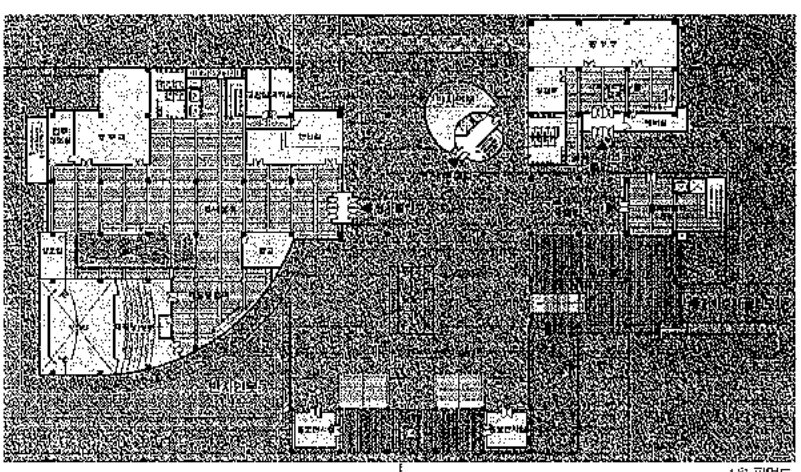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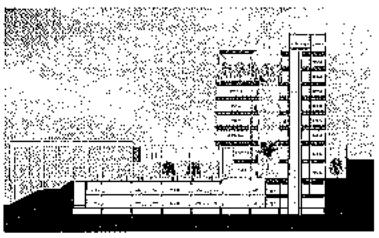
▶ 우수작 / (주)부명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유진두)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49번지 일원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공용의 청사)
주용도	공공업무시설
도로	남측 35m, 동측 6m도로시설
대지면적	33,900.00m²
건축면적	3,516.50m²
연면적	19,824.45m²
건폐율	10.37%
용적률	37.47%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조경면적	18,260m²
주차대수	232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THK30화강석, t=24칼라복층유리, t=2알미늄쉬트(물소수지도장)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청사 성역화의 구도를 탈피하고 「열린공간」으로서의 형식적, 내용적 의미를 심화시킨다. 실내공간뿐 아니라 옥외공간의 문맥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으로 각 공간의 구성은 양적인 수용과 단순편리주의 구습을 극복하고 장소성, 영역성, 조망 등으로부터 사작되는 땅의 이해와 더불어서 녹지대 경사지인점을 감안, 최대한의 친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또한 새로운 가치의 지향으로 비대칭적 구성으로 권위주의적 형식을 극복하며, 현대적이고 동시에 친자연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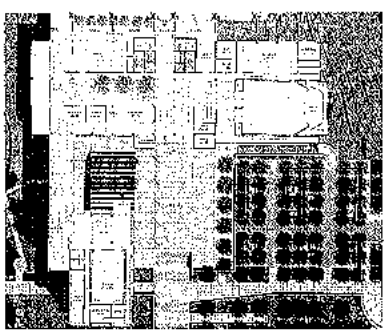
또, 다양성의 존중으로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층별 실구성 및 배치에 중점을 두어 동시에 일관된 교육행정을 위한 전체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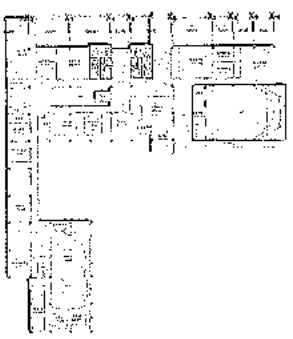
종단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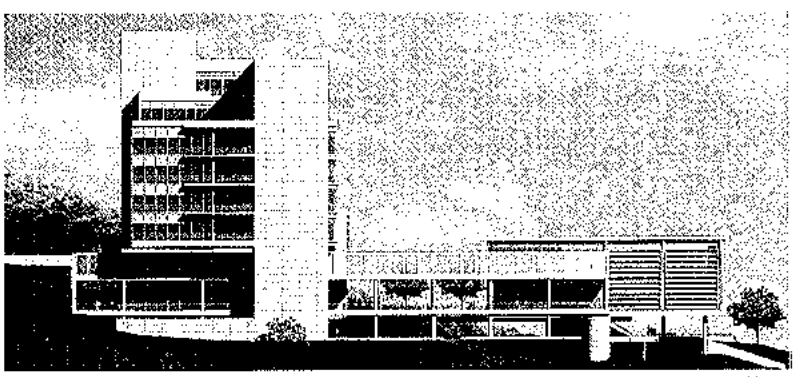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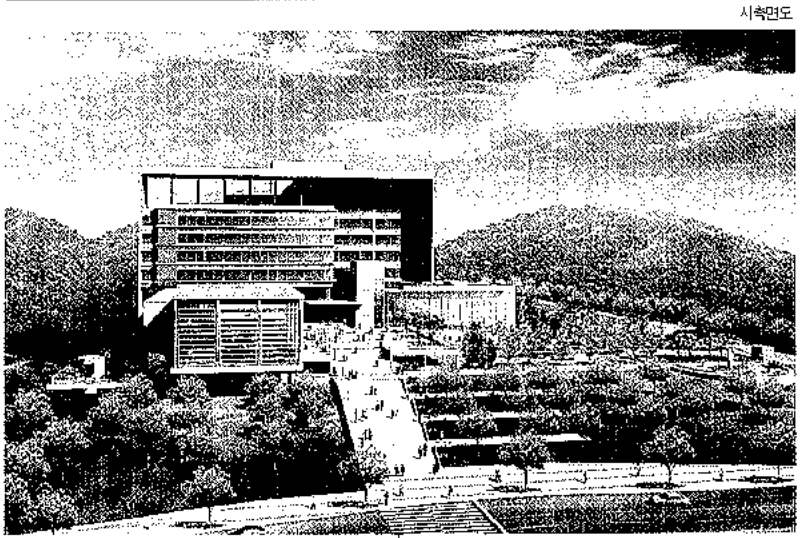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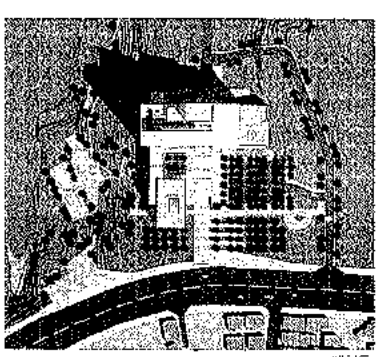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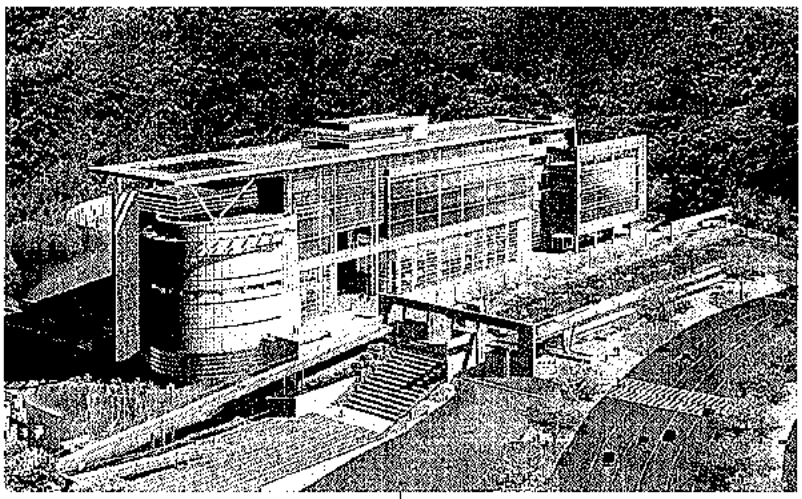




배치도

▶ 가작 / (주)원도시건축(변용)

대지면적	33,226m²
건축면적	4,508.33m²
연면적	20,685.78m²
건폐율	13.57%
용적률	41.94%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대수	지하 - 207대, 옥외 - 32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공간

열린마당(새천년)

열린사고, 열린교육, 열린 행정의 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출발점을 상징한다.

수목마당(새사람)

새천년의 주역인 청소년과 끊임없는 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인격체의 조화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22그루의 은행나무 마당을 조성한다.

원형마당(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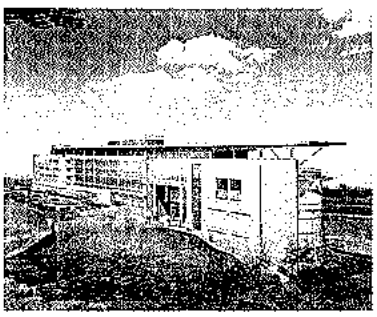
참다운 교육환경의 시작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신뢰의 회복임을 상징하는 마당을 조성한다.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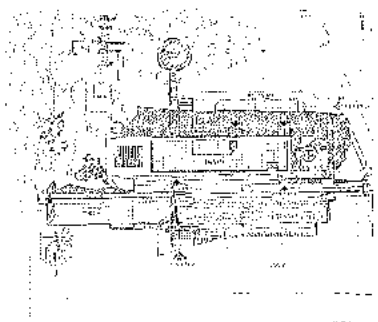
교육청이 갖는 개개의 기능간의 특성에 맞도록 Zonning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확장된 로비와 공용공간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내부공간의 구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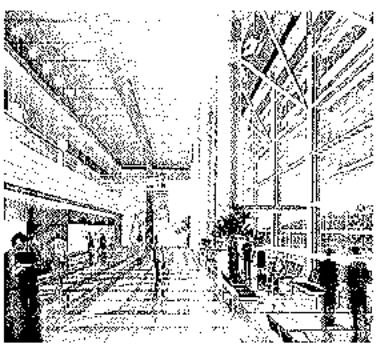
아름다운 건축적 요소를 절제속에서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서 다양한 개성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울산광역시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동해바다 수평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개개의 형태요소들을 통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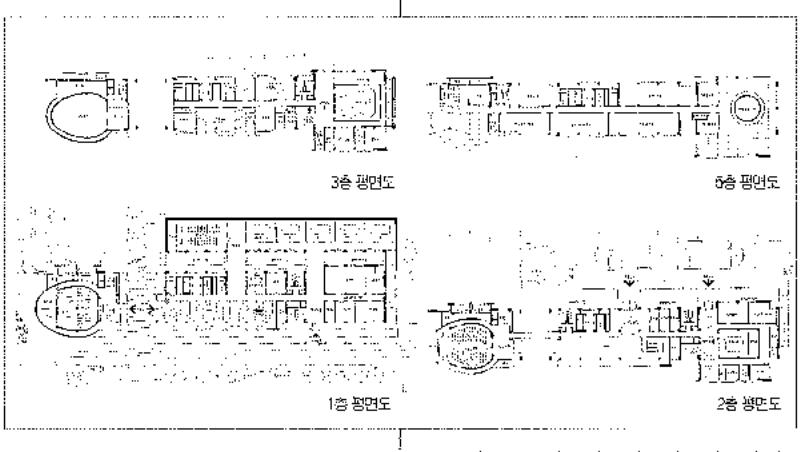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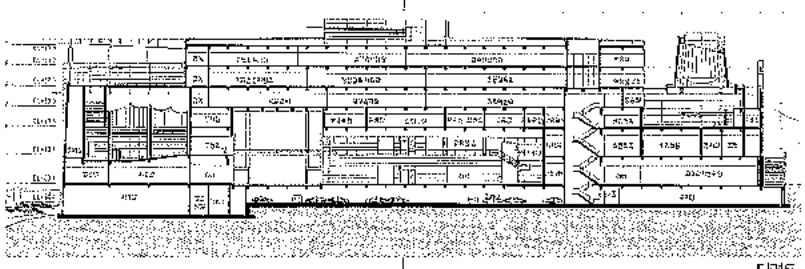
기능적 요구에 의하여 Grouping된 내부기능을 평면상에 묶어두지 않고 외부로 표출시켜 단일한 건물의 이미지가 아닌 분절적 이미지를 가지도록 함으로서 주변의 자연적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배치도







단면도

한라대 기숙사

HalLa Unversity Dorm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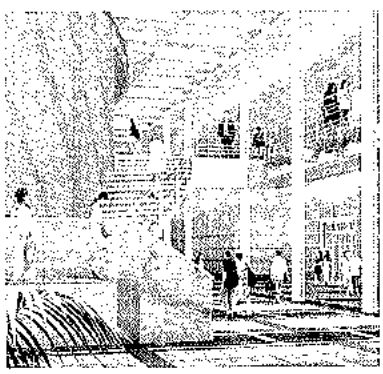
▶ 당선작 / (주)그룹 원 (박찬정 , 김영국, 구만엽 + 서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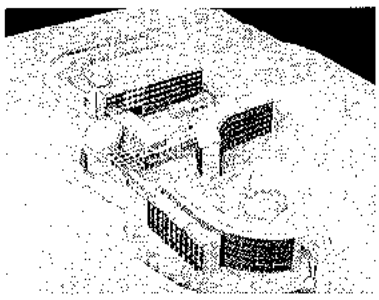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868-3
대지면적	5,030.00m²
건축면적	2,240.64m²
연면적	8,218.12m²
건폐율	14.91%
용적률	49.74%
조경면적	3,231.45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철골조
주요마감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H-Beam, 화강석 버너구이
주차대수	45대(장애인주차 5대포함)
부대시설	중앙광장, 야외학습장, 수변무대, 농구장, 생태연못 등
설계팀	민범기, 이종배, 이용재, 맹희재, 전성진, 강봉수, 최종림, 김보현, 김인구, 장호익

학교부지와 다소 떨어진 별도의 부지에 마련된 대지 조건은 학교와 기숙사간의 연계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였으며 좁고 긴 대지형상과 완만한 경사, 대지를 둘러싼 구릉의 자연 수림대, 대지 동측의 주도로, 인접 주거지역 및 초등학교는 대지의 '비움'과 '채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선 기숙사의 주공간은 학교와 산책로로 쉽게 연결되며 자연수림대와 가까워 소음과 Privacy 침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대지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숙소동과 관리동은 이 중심공간을 위요하는 형식으로 배치하였다. 대지의 가장 안쪽인 서측부분은 기존수림대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추후 증축되는 숙소동이 배치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지의 전면부인 동측부분은 도로의 소음과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해 운동장, 주차장 등의 외부공간으로 구성하고 추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 설 수 있는 유보지로 계획하였다. 이는 기숙사라는 학생 주거공간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 밀도있게 배치하여 토지사용의 경제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대학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장에 대비한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기숙사의 개실(Unit)는 전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숙소동 뿐아니라 관





모형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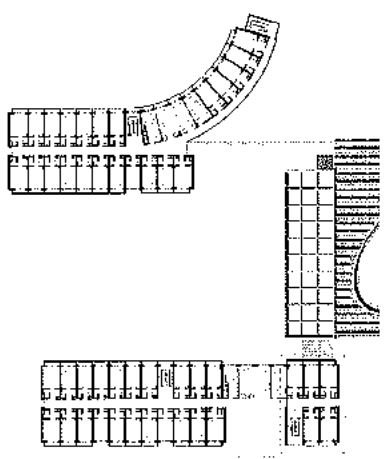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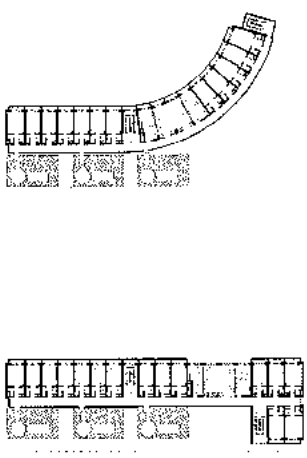
좌측면도

리동, 외부공간 구성의 기본 Module 로 사용되었다. 또한 생활의 최소단위로서 2인 1실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2층침대를 지양하고, 각각 동일한 조건의 침대와 책상을 갖도록 배려하였으며,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침대하부, 천장공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방학기간중에 기업연수 등의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외에 본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점토벽돌의 사용과 중심공간으로의 진입 및 전이를 고려한 Gate의 계획, 통학로(산책로)와 주도로 모두의 정면성을 고려한 배치, Solid 와 Void의 Layer 를 통한 Mass의 분절 등은 기숙사계획의 주요 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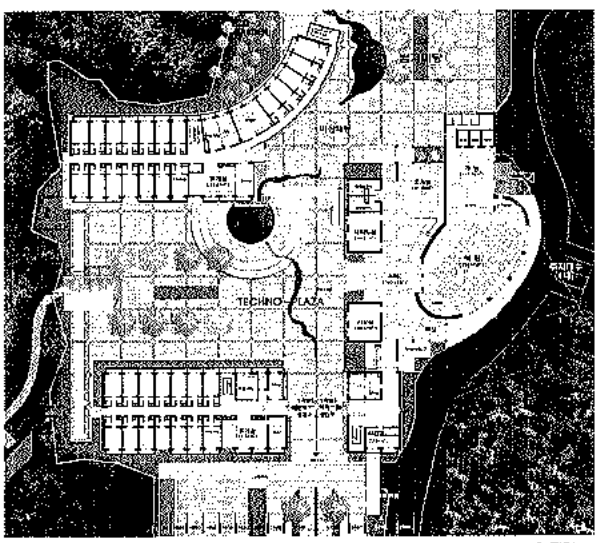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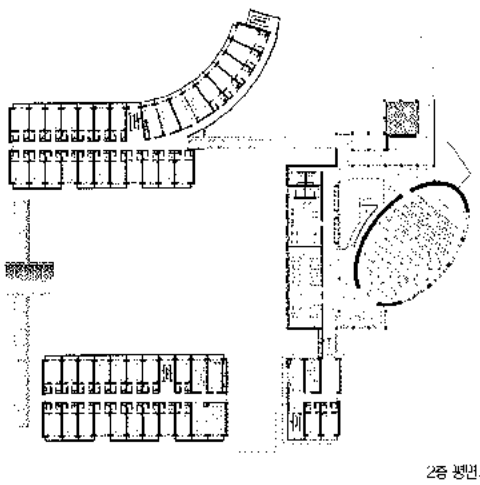


B동 5층 평면도

A동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광진구 중곡2동 문화복지관

Junggok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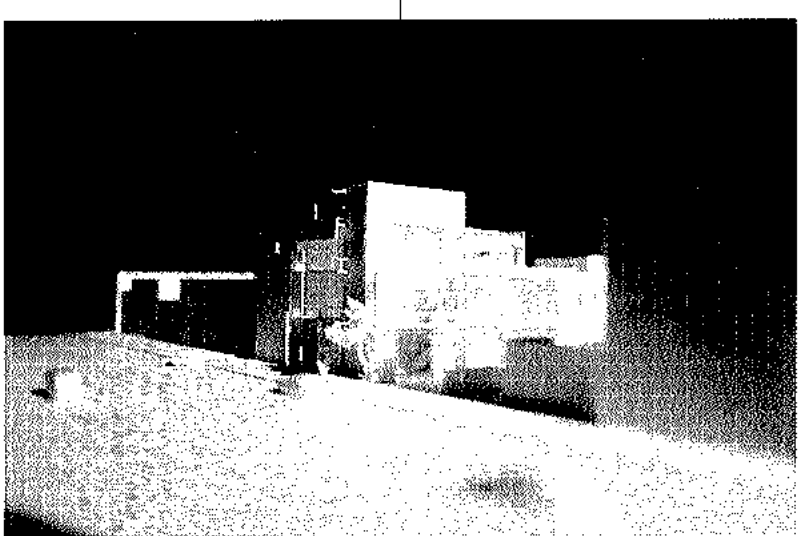
서울 광진구청에서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문화복지관 특유의 기능성이 조화된 중곡2동 문화복지관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고, 서인종합건축(최동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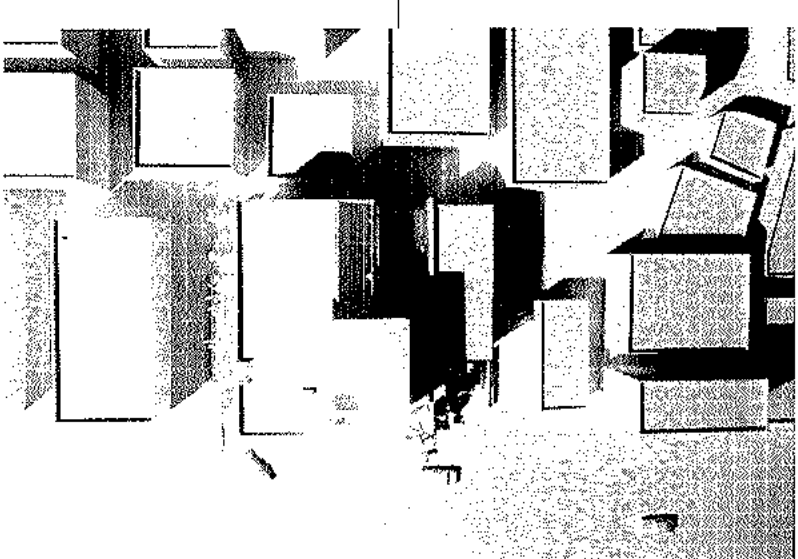
▶당선작/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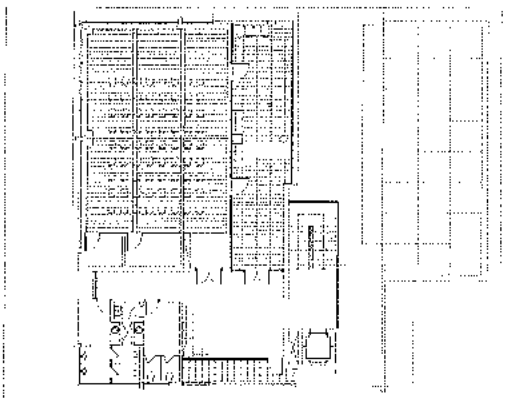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7-33, 3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용도	파출소, 동사무소, 복지관
대지면적	707.1㎡
건축면적	390㎡
연면적	1,330㎡
조경면적	85㎡
건폐율	55.2%
용적률	127.3%
구조	RC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토석벽돌, 노출콘크리트
설계참여	정 협, 김중원, 김현삼

중곡동 문화복지관의 계획목표는 민원인으로서 방문자의 욕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동사무소의 인지성 확보, 명료한 동선체계를 이루어 지루하지 않은 대기공간을 꾀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동사무소, 파출소 직원의 욕구를 고려하여 쾌적한 업무공간 및 휴게공간, 고유한 업무활동 공간의 분리를 꾀했다. 또 복지시설 사용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 탈피, 개방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연출 등의 상의한 욕구들의 조화로운 충족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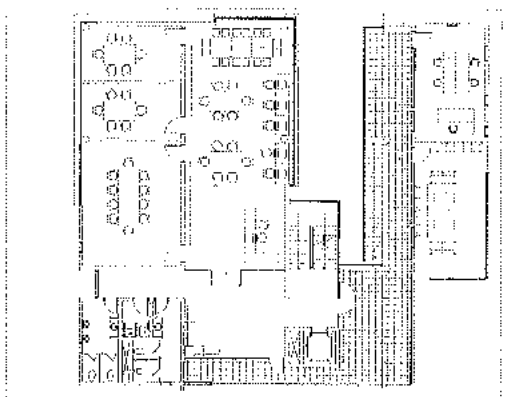
이 계획은 두 채로 나누어진 사이공간인 Open Space를 설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Open Space는 기본적으로 는 도시적 흐름을 받아 들이는 자세를 취하며, 공간을 기능적으로 불리함과 동시에 내 외부 공간을 상호 관입시키는 공유공간으로 풍요로운 내부공간과 쾌적한 휴게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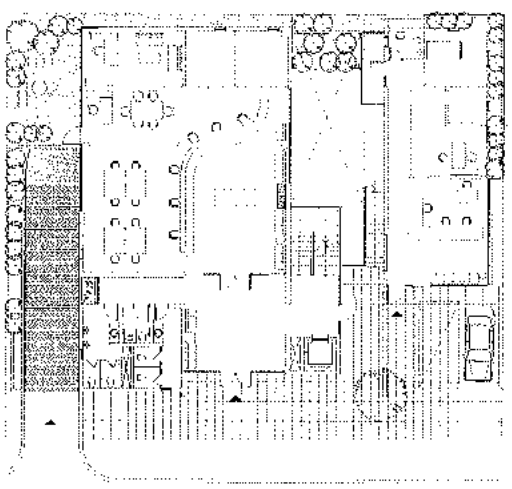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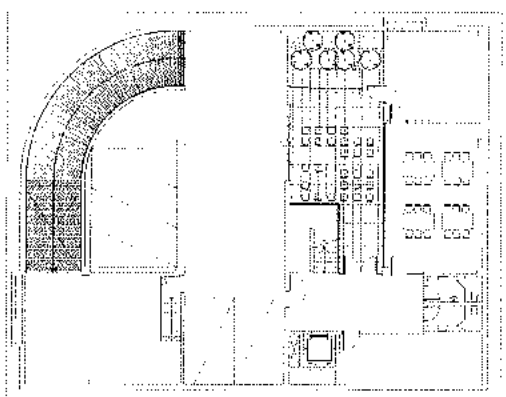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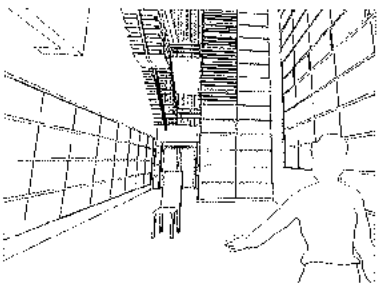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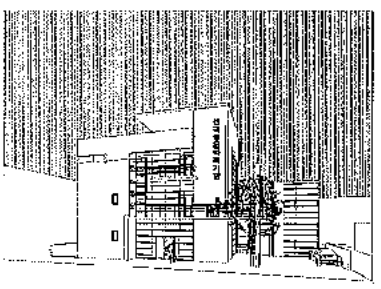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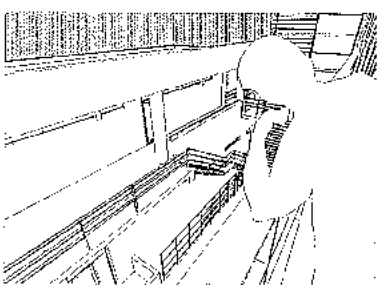
지붕에서 전면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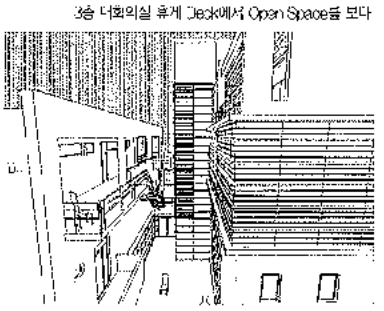
SUNKEN(모임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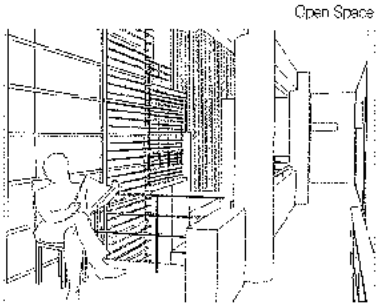
기존에서 진입대문을 보다



3층 다회의실 후게 Deck에서 Open Space를 보다



Open Space



2층후게 Deck 및 화랑

40계단 문화기념관 · 문화의 집 · 동광동 사무소

Culture and Memorial Center of Forty Stairs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평화(이문남)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5가 44-3
대지면적	665.5㎡
건축면적	290.66㎡
연면적	1,431.29㎡
구조	RC 조
규모	지상 6층
설계참여	강기표(계획 총괄) 한광용, 이지연, 장기연, 성찬용, 이재영, 김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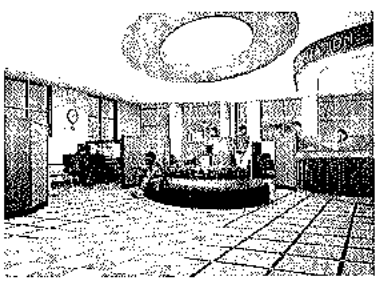
건축은 인간의 삶 - 활동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건축물은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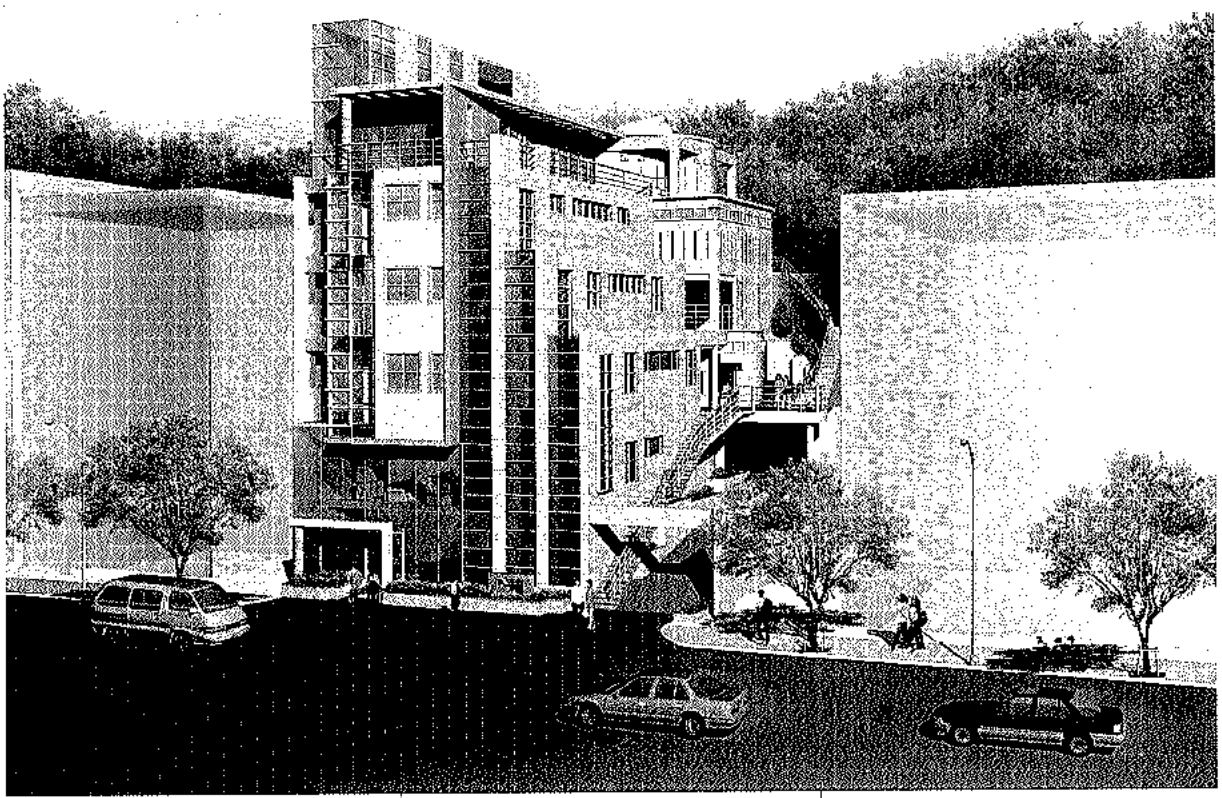
금번 40계단 문화기념관 설계 경기를 준비하면서 부산의 역사와 함께한 중구가 갖고 있고 삶의 이야기를 건축의 그릇속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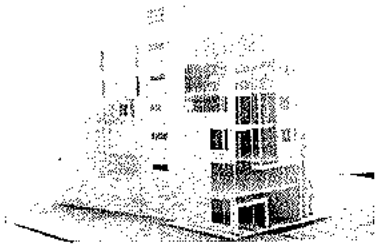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부산의 역사가 한껏 담겨있는 40계단 근처에 있으며 현 건물은 6 · 25 피난시절 동아일보 사옥으로 사용되던 유서깊은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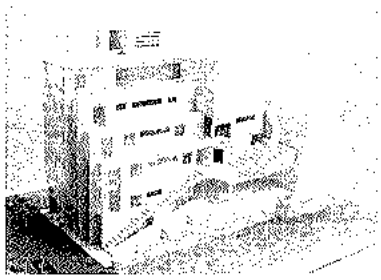
이 현상 설계는 이러한 40계단에 어려있는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보고자하는 문화기념관으로써 계획되어졌으며 아울러 지역민의 문화 사랑방으로써의 문화의집, 자치행정센터로써의 동사무소가 복합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로써 계획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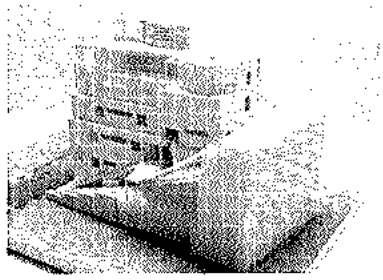
계획의 요건상 세가지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 설계안은 세가지 기능이 서로 융합하면서도 기능이 분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명확한 동선분리를 통하여 개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2 층은 동사무소를 배치하여 지역민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3,4층은 문화의 집으로 계획하여 별도의 동선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써 기능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되도록 계획하였다. 5,6층은 40계단 문화기념관으로써 계획하였으며 테마별, 연도별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50년대 삶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조경과 연계하여 휴식 및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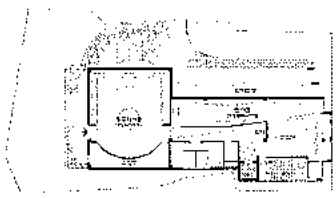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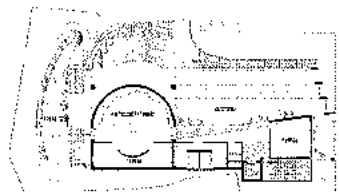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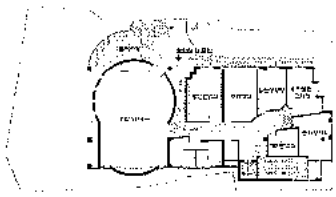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향 대지이며, 오래된 석축이 형성되어 있어 석축을 유지시키는데 배치계획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조권에서 오는 불리한 조건을 매스의 분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면화시킴과 동시에 40계단의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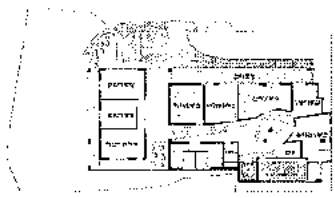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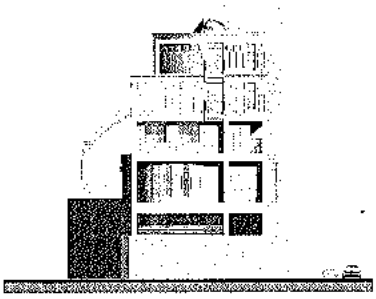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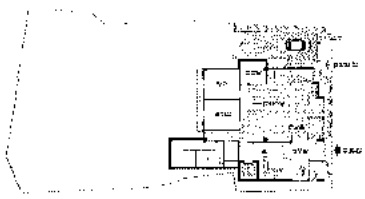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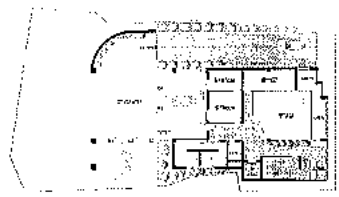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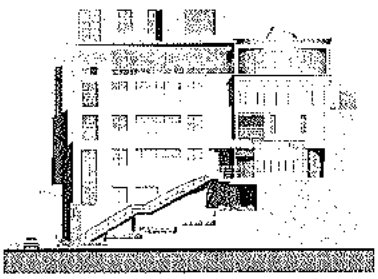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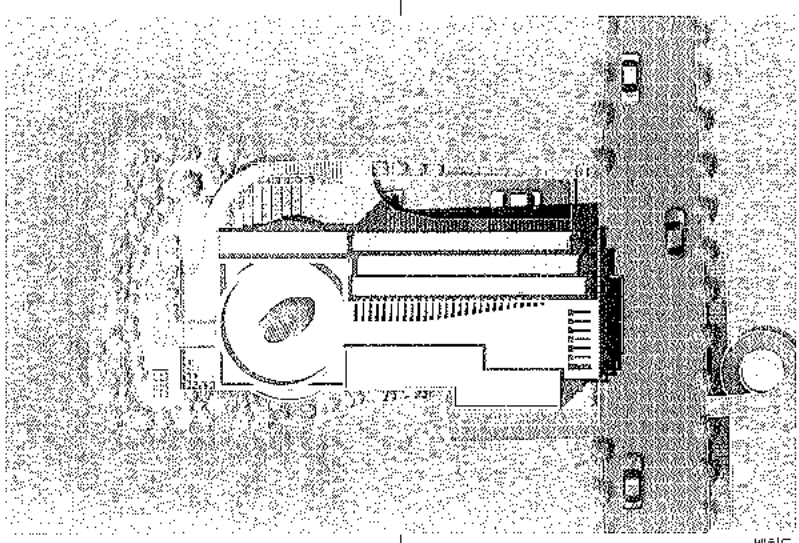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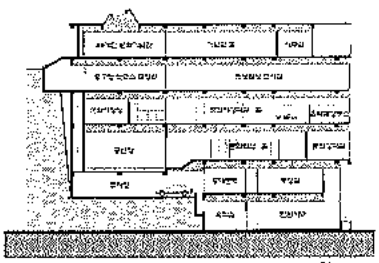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우측면도



배치도



좌대면도

강남대학교 인문사회관

New Liberal Hall for Kangnam University

▶ 당선작 / (주) 건축사사무소 비.에이.엔.케이(권세훈, 김명섭, 백민석, 변호세, 이순석)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6-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대지면적	2,314.05㎡
건축면적	1,528.48㎡
연면적	14,964.25㎡
조경면적	688.28㎡
건폐율	66.05%
용적률	567.30%
주차대수	지상 15대(장애자 주차 5대)
규모	지하1층, 지상 1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THK 1.5 SUS 패널, 일부 화강석 / THK18 컬러복층유리
설계총괄	권세훈
설계담당	이순석, 변호세, 김용민, 김동범

SITE 분석

울창한 산세를 등에 진 분지에 위치한 강남대학교는 학교부지를 둘러싸는 형태의 지형과 노천극장, 대운동장, 호수로 이어지는 Open Space의 두가지 큰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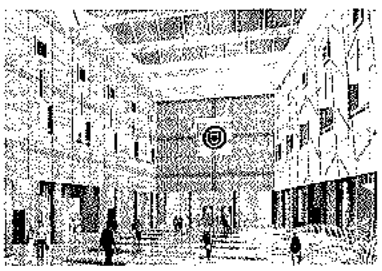
장기적인 비전으로 마련된 학교의 Master Plan은 기존 인문사회관을 철거하고 Open Space의 확장인 광장을 조성하며, 그 왼쪽에 새로운 인문사회관을 건설하는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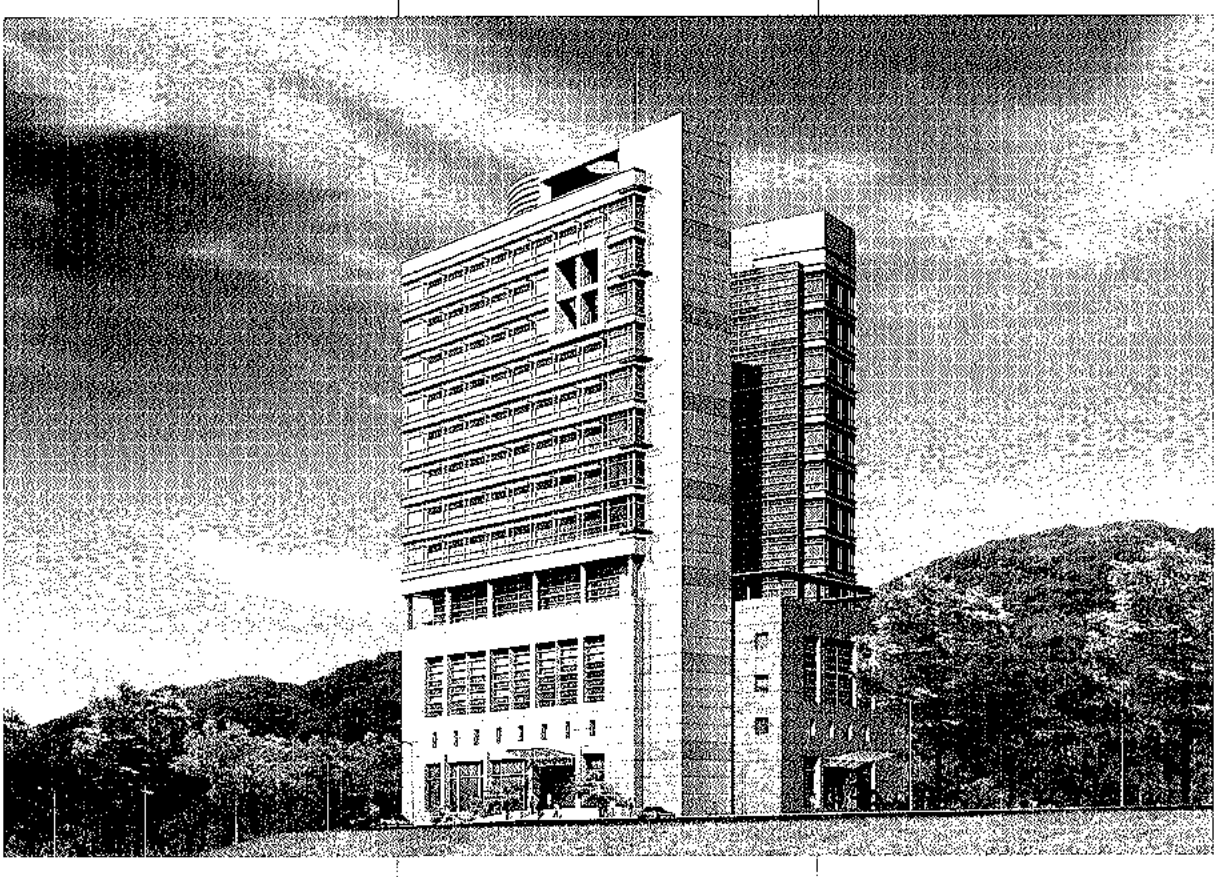
캠퍼스 정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주진입도로에 인접하여 학생관과 함께 캠퍼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진입부를 구성하며, 기존 인문사회관 부지에 조성될 광장과 연계되는 중심축 상에 Site는 위치한다.

배치계획

고저차가 15m에 이르는 약 700평의 SITE에 4,500평의 학교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치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미 프로그램 상으로 요구받고 있는 14층의 학교 건물을 좁은 대지에 적용시키기 위해 대지 활용의 극대화가 요구되며, 주변상황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계획이 필요하다.

Master Plan 상의 광장과의 연계를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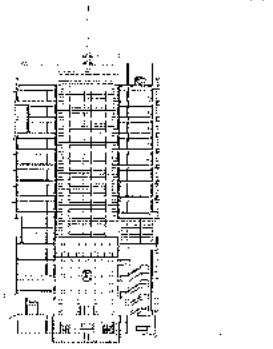
고려할 때 요구되는 진입부, 정면, 광장축 등 3면의 정면성과 진입을 배치, 평면 및 입면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지하층의 200평의 강당을 가능적, 구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두 개의 WING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강당을 배치하였다. 그 상부에 구성된 그랜드홀은 진입홀로서의 기능과 함께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내부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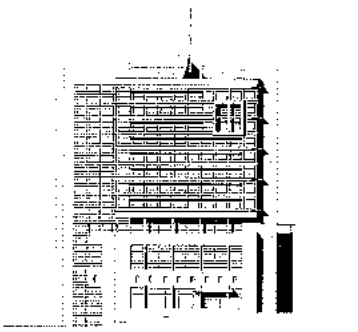
동선계획은 교수와 학생의 동선교차를 최소화하고 각 실간 수직, 수평이동을 단축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저층부와 고층부의 동선을 기능적 ZONING을 통해 수직적으로 분리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특성 상 장애자의 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선계획 및 기능을 고려한 수직적 기능구성은 지하층에 강당, 매점, 1~2층에 그랜드홀 및 행정관리시설, 3~9층에 강의실, 10~11층에 대학원, 12~14층에 교수연구실이 위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층별 GROUPING은 각 층별로 두개의 ZONE을 구성하고, 내부 간막이벽을 건식벽으로 계획하여, 성장하고 변화하는 학교의 기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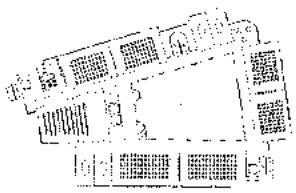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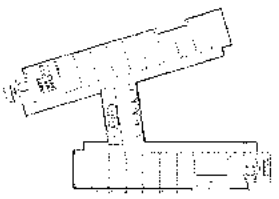


입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2~1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370호
(2001. 1. 16 공포)

개정이유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제2호).

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음(법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항 신설).

라. 종전에는 대지(垈地)가 방화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3항 신설).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77조의3 신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適用除外) ① · ② (생 략)	第3條(適用除外)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建築許可) ① (생 략)	第8條(建築許可) ① (현행과 같음)
② 市長 ·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許可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市長 · 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道知事가 지정 · 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層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3. 住居環境 또는 敎育環境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道知事가 지정 · 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許可權者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許可權者는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	⑦--------第6項----------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대상 法令과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第4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신고) ① (생 략)	제9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第8條第5項의 규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제8조제6항의 ----------
第15條(假設建築物) ①·② (생 략)	第15條(假設建築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都市計劃法 제53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16條(着工申告등) ①·② (생 략)	第16條(着工申告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제41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46條(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	第46條(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措置) ①---------- (綠地地域 및 防火地區 ----------

현 행	개 정 안
한 規定을 적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 지구 또 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 · 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생 략)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현행과 같음)
② 第9條 · 第16條第3項 · 第25條 · 第26條第1項 · 第30條第4項 · 第 31條 · 第37條 · 第38條 · 第45條 · 第47條 · 第51條 · 第53條 · 第70條 · 第73條 · 第74條 및 第76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②----------제47조 · 제51조 · 제53조 · 제69조 · 제70조 · 제73조 · 제74조 · 제76조 및 都市計劃法 제53조 ----------.
〈신 설〉	제78조의2(罰則)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8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0條(罰則) ----------.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2. 第23條第2項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第81條(兩罰規定) ① (생 략)	第81條(兩罰規定) ① (현행과 같음)
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3 및 第78條 내지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제77조의3 · 제78조 · 제78조의2 · 제79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2001. 1. 16일자 관보공포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종전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설계등 용역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료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안 제33조제5항)

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신설).

마. 레미콘·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품질확인결과 당해 건설자재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종전에는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공·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행하는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안 제27조의2).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10월)

(2000. 11. 31.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701		2,997		722		544		239		259		274		153		915		183		209		181		217		118		266		340		84	
금별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회원수		7,687	14	2,993	4	722	1	544	0	239	0	259	0	273	1	153	0	912	3	183	0	208	1	178	3	217	0	117	1	266	0	340	0	84	0
회원변동사항	입회	12	0	4		2		1				1						3		1															
	재입회	2	0	2																															
	전입	9	0	1		1								2				4										1							
	전출	-9	0	-2								-1						-3				-1				-2									
	폐업	-16	0	-3				-8						-1				-1												-1		-2			
	사망	-1	0					-1																											
	등록취소	-1	0	-1																															
금월말 회원수		7,683	14	2,994	4	724	1	536	0	239	0	259	0	274	1	153	0	916	3	184	0	207	1	178	3	215	0	118	1	265	0	338	0	84	0
계		7,697		2,998		725		536		239		259		275		153		918		184		208		181		215		119		265		338		8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회원	건축사	7,683	2,994	724	536	239	259	274	153	915	184	207	178	215	118	265	338	84
	2급	14	4	1	0	0	0	1	0	3	0	1	3	0	1	0	0	0
	계	7,697	2,998	725	536	239	259	275	153	918	184	208	181	215	119	265	338	84
	비율(%)	100.0	39.0	9.4	7.0	3.1	3.4	3.6	2.0	11.9	2.4	2.7	2.4	2.8	1.5	3.4	4.4	1.1
준회원		14	5	7	0	0	0	0	0	0	0	1	0	0	0	1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221	2,458	18	7,697	
비율(%)	67.8	31.9	0.2	100.0	
사무소수	4,725	1,610	15	6,350	
비율(%)	74.4	25.4	0.2	100.0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1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99.11) 7백1만2백87㎡ 보다 36.9%(2백5십8만9천7백18) 감소한 4백4십2만5백69㎡의 실적을 보임. (97년 11월의 44%)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 누계 5천9백2십만2백38㎡ 보다 0.6%(3십8만3백29) 증가한 5천9백5십8만5백67㎡의 실적을 보임. (97년 11월의 53.9%)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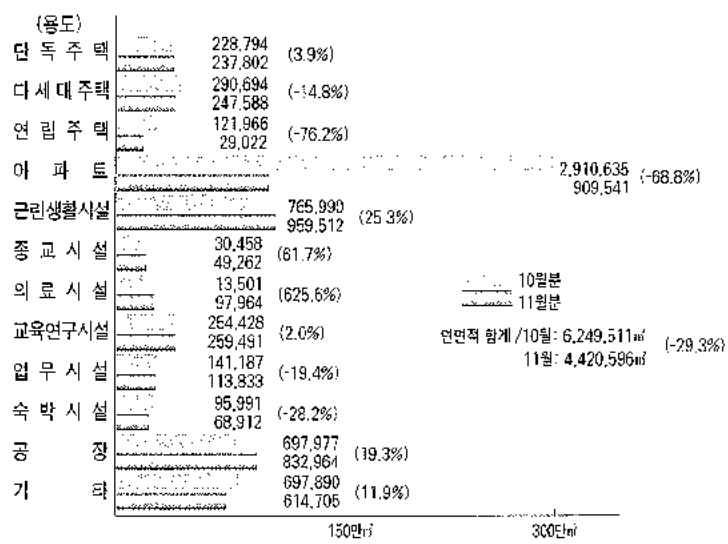
전월 10월분(2000.10) 6백2십4만9천5백11㎡ 보다 29.3% (1백8십2만8천9백15) 감소한 4백4십2만5백9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120,639	408,260	287,621	238.4
	인 천	142,383	210,057	67,674	47.5
	광 주	300,692	426,878	126,186	42.0
	대 전	53,122	148,834	95,712	180.2
	울 산	51,937	98,132	46,195	88.9
	충 북	129,097	149,035	19,938	15.4
	전 남	90,341	127,702	37,361	41.4
	제 주	80,863	115,787	34,924	43.2
감소지역	서 울	2,719,817	1,548,290	(1,171,527)	-43.1
	부 산	297,366	132,854	(164,512)	-55.3
	경 기	1,798,057	508,590	(1,289,467)	-71.7
	강 원	105,647	38,794	(66,853)	-63.3
	충 남	125,626	101,929	(23,697)	-18.9
	전 북	133,267	87,419	(45,848)	-34.4
	경 북	277,710	85,600	(192,110)	-69.2
	경 남	583,723	232,435	(351,288)	-60.2
합 계		7,010,287	4,420,596	(2,589,691)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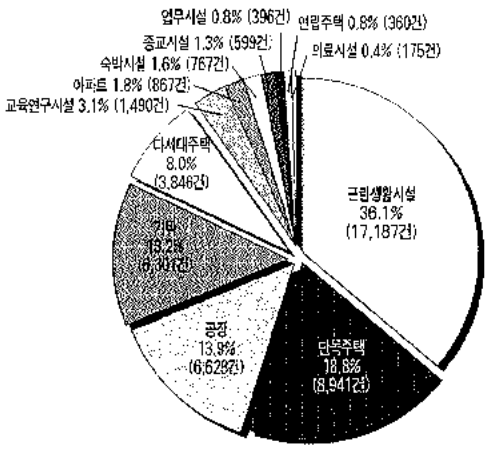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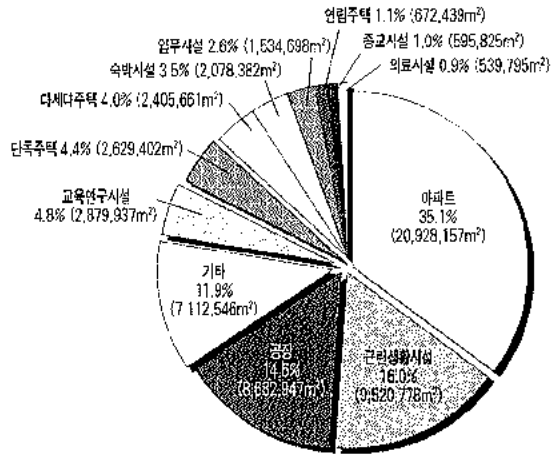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11월분)

구분 / 용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706	744	182,344	759	789	237,802	53	45	55,458	30.4	
다세대주택	218	242	393,949	387	397	247,588	169	155	(146,361)	-37.2	
연립주택	40	44	101,143	27	27	29,022	(13)	(17)	(72,121)	-71.3	
아 파 트	92	266	3,134,998	47	75	909,541	(45)	(191)	(2,225,457)	-71.0	
근린생활시설	1,635	1,725	905,478	1,574	1,616	959,512	(61)	(109)	54,034	6.0	
종교시설	58	64	42,223	55	60	49,262	(3)	(4)	7,039	16.7	
의료시설	23	26	40,253	26	27	97,964	3	1	57,711	143.4	
교육연구시설	191	206	307,633	119	137	259,491	(72)	(69)	(48,142)	-15.6	
업무시설	37	63	263,901	47	50	113,833	10	(13)	(150,068)	-56.9	
숙박시설	61	63	71,350	54	54	68,912	(7)	(9)	(2,438)	-3.4	
공 장	778	1,006	862,251	557	660	832,964	(221)	(346)	(29,287)	-3.4	
기 타	788	941	704,764	571	675	614,705	(217)	(266)	(90,059)	-12.8	
합 계	4,627	5,390	7,010,827	4,223	4,567	4,420,596	(404)	(823)	(2,589,691)	-36.9	(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11월 누계분)



건수 (총 47,557건)



연면적 (총 59,580,567㎡)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11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549	550	2,719,817	356	356	1,548,290	(193)	(194)	(1,171,527)	-43.1	
부 산	201	312	297,366	39	40	132,854	(162)	(272)	(164,512)	-55.3	
대 구	164	164	120,639	598	598	408,260	434	434	287,621	238.4	
인 천	149	149	142,383	289	271	210,057	140	122	67,674	47.5	
광 주	118	182	300,692	375	454	426,878	257	272	126,186	42.0	
대 전	63	63	53,122	137	137	148,834	74	74	95,712	180.2	
울 산	86	86	51,937	129	129	98,132	43	43	46,195	88.9	
경 기	1,410	1,688	1,798,057	745	811	508,590	(665)	(877)	(1,289,467)	-71.7	
강 원	198	219	105,647	102	112	38,794	(96)	(107)	(66,853)	-63.3	
충 북	287	321	129,097	208	240	149,035	(79)	(81)	19,938	15.4	
충 남	196	196	125,626	178	178	101,929	(18)	(18)	(23,697)	-18.9	
전 북	212	212	133,267	118	118	87,419	(94)	(94)	(45,848)	-34.4	
전 남	189	189	90,341	207	208	127,702	18	19	37,361	41.4	
경 북	228	304	277,710	147	203	85,600	(81)	(101)	(192,110)	-69.2	
경 남	395	542	583,723	370	459	232,435	(25)	(83)	(351,288)	-60.2	
제 주	182	213	80,863	225	253	115,787	43	40	34,924	43.2	
합 계	4,627	5,390	7,010,287	4,223	4,567	4,420,596	(404)	(823)	(2,589,691)	-36.9	(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11월 누계분)

구분 / 건축사회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4,812	4,834	30,859,188	5,619	5,665	22,484,480	807	831	(8,374,708)	-27.1	
부 산	1,733	2,535	1,698,216	1,928	2,420	2,929,571	195	(115)	1,231,355	72.5	
대 구	1,813	1,813	1,845,091	2,558	2,558	2,282,061	745	745	436,970	23.7	
인 천	1,277	1,318	2,489,269	3,043	3,025	3,035,599	1,766	1,707	546,330	21.9	
광 주	1,323	1,663	1,706,978	1,574	1,934	1,386,647	251	271	(320,331)	-18.8	
대 전	948	948	594,663	1,654	1,653	1,863,603	706	705	1,268,940	213.4	
울 산	1,005	1,018	674,503	968	968	666,986	(37)	(50)	(7,517)	-1.1	
경 기	9,169	11,089	9,699,294	12,613	14,959	12,724,641	3,444	3,870	3,025,347	31.2	
강 원	1,901	2,096	831,643	1,688	1,821	789,741	(213)	(275)	(41,902)	-5.0	
충 북	2,486	2,821	1,383,328	2,702	3,071	2,117,229	216	250	733,901	53.1	
충 남	2,020	2,020	1,186,798	2,095	2,095	1,199,814	75	75	13,016	1.1	
전 북	1,483	1,511	908,986	1,741	1,750	1,311,809	258	239	402,823	44.3	
전 남	1,826	1,882	927,282	1,978	2,033	1,216,514	152	151	289,232	31.2	
경 북	2,182	2,575	1,518,442	2,422	3,075	1,710,430	240	500	191,988	12.6	
경 남	3,099	3,700	2,454,283	3,673	4,413	3,101,465	574	713	647,182	26.4	
제 주	1,024	1,169	422,274	1,301	1,483	759,977	277	314	337,703	80.0	
합 계	38,101	42,992	59,200,238	47,557	52,923	59,580,567	9,456	9,931	380,329	0.6	( )=마이너스